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 의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2016.07.21. 선고,
2016ONCJ448 판결

번역 강예은, 박아름 / 감수 신윤진



번역 강예은, 박아름 / 감수 신윤진

CONTENTS

004	여는 말
-----	------

009	1부 - 사실관계
011	(피해자 맨디 그레이에 대한) 검사 로프트의 주 신문
022	(피고인 무스타파 우루야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 브리스토의 주 신문
033	(피해자 맨디 그레이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 브리스토의 반대 신문
115	(피해자 맨디 그레이에 대한) 검사 로프트의 재신문
120	(피고인 무스타파 우루야에 대한) 검사 로프트의 반대 신문
168	(피고인 무스타파 우루야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 브리스토의 재신문
171	(피고인의 여자친구 엘리슨 무어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 브리스토의 주 신문

173	2부 - 법률
190	피고인 측 변호인 브리스토의 의견 진술
193	검사 로프트의 의견 진술
207	역사
210	신빙성
222	판결
239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를 하는지 나는 아네

245	역자 후기
-----	-------



여는 말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성폭력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되었고 2010년도에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수사재판기관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동의 여부가 아닌 좁은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과 ‘저항’ 여부에 따라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최협의설’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른바 법적 판단의 ‘합리성’, ‘객관성’ 기준에서 배제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 사건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본 상담소는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2003)>, <법조인의 성별의식 조사연구(2003)>,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2006~200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운동(2015~현재)> 등을 진행해왔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함께 하는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2004~현재)>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는 국내외의 유의미한 성폭력 판결문들을 모아, 성평등한 판결의 사례를 제시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지난해 7월 21일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에서 선고된 후 ‘혁명적’이고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 받으며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던 마빈 주커 판사의 2016ONCJ448 판결문입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신문 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근거가 법의 논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전문을 번역하고 공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은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사건 당시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 판결에는 국내와는 다른 법 규범과 판례 동향이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성폭력을 ‘성적 완전성의 침해’로 바라보는 관점, 성폭력의 구성요소를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합의의 부재’로 정의하는 형법 체계, 합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의의 추정

혹은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에 부주의했거나 의도적으로 무관심했던 경우에도 성폭력의 고의를 인정하는 원칙 등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다소 낮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마빈 주커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8개월과 보호 관찰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보호 관찰 기간에는 주소 변경 전 사전 신고, 직업이나 근무처 변경 시 사후 신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여행 제한, 통금,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 무기 소지 금지,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활동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DNA 정보를 국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고 10년 간 성범죄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마빈 주커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10,735달러 중 8,000달러를 지급하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려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엄벌주의보다 확실한 처벌과 재범 방지, 피해자 구제를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¹⁾

본 상담소는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가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응원과 지지가 되고, 실제 수사재판 과정의 담당자들에게 실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법원의 판례를 모니터링하고 비판하며, 필요시에는 일반 시민, 법조인, 학자, 활동가 등과 공유함으로써,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반성폭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한국성폭력상담소

1) 이와 같은 판결은 캐나다의 현실에서도 상당히 혁신적인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끝에 올해 7월 20일 파기 환송되었고, 새로운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러두기

1. 초벌 번역은 본 상담소 자원활동가 강예은님이, 감수는 본 상담소 자문위원 신윤진님이 해주었습니다. 2차 번역 및 교정교열, 편집은 성문화운동팀 상근활동가 박아름이 하였습니다.
2. 이 판결문 원문은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ntariocourts.ca/ocj/decisions/>)
3.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따랐으나, 각 신문의 대상을 명시하거나 질문자 또는 답변자가 누구인지 표기(원문에서 “Q. 내용 / A. 내용”으로 표기된 것을 『검사 : 내용 / 우루야 : 내용』으로 표기)하는 등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형식을 편집하였습니다. 단, 본문 내용은 일절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4. 본문 중 겹낫표(『 』) 표시는 판사가 판결 근거로 인용한 증거자료 각 부분의 시작과 끝을 표시한 것입니다.
5. 본문 중 이탤릭체 또는 볼드체, 밑줄 또는 괄호 등으로 강조된 부분은 원문에 의한 것이고, 본문 아래에 달린 각주는 모두 옮긴이/편집자 주입니다.
6. 번역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오역 및 번역 개선, 오타 등에 대한 의견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건번호: R. v. 우루야, 2016 ONCJ 448

온타리오 법원

캐나다 정부

-대-

무스타파 우루야

M.A. 주커 판사

선고 전 신문 2016년 2월 1,2,3일, 4월 11일, 5월 3,24일

최종 판결 선고 2016년 7월 21일

J. 로프트 검사

E. 브리스토 피고인 무스타파 우루야 측 변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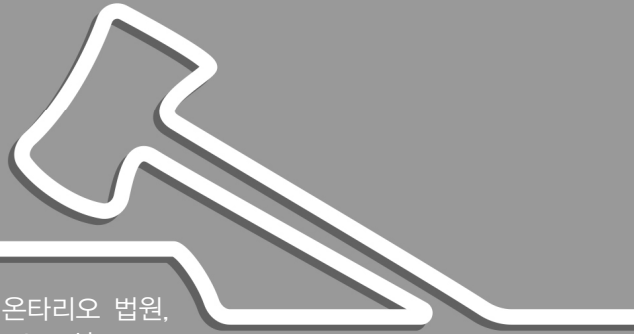
M.A. 주커 판사 작성

중요한
신용력
판결 시리즈 1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2016.07.21. 선고,
2016ONCJ448 판결



1부 - 사실관계

1부. 사실관계

(피해자 맨디 그레이에 대한)
검사 로프트의 주 신문



1 맨디 그레이는 요크 대학교(York University)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2013년 가을에 석사 과정을, 2014년 가을에는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회학 전공의 대학원생이었지만 사회과학대학에서 범죄학 강의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피고인과 2015년 1월 중순, 혹은 16일경에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무스타파 우루야 역시 대학원생으로, 다른 단과대학의 박사과정 1년차 학생이었다. 그는 정치외교학 전공으로, 마찬가지로 요크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2 그레이는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조교(TA, teaching assistant)로서도 일하고 있었고 학생 노동조합에도 소속되어 있었다. 그녀는 피고인을 그녀가 참가한 첫 노동조합 모임에서 만났다. 그들은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캐나다공무원노동조합 토론토 대학 지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노동조합 모임이 끝난 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뒤풀이 모임에 가기로 했다. 이 모임에 그레이를 데려온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러 나가자고 권유했기 때문에, 그녀도 뒤풀이에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3 우루야는 이날 저녁 모임이 끝날 때쯤 도착해 그들과 함께 술집에 갔다. 그레이는 사건이 일어난 밤 이전에도 그와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다.

4 그레이는 같이 요크 대학교를 다니는 다른 몇몇 친구들이 빅토리 카페(Victory Café)에서 만나 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그곳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빅토리 카페는 토론토의 베서스트와 블로어 근처에 있는 작은 술집 겸



카페이다. 캐나다공무원노동조합의 몇몇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그날 그들의 파업을 허가하는 투표에서 이겼다. 이 모임은 노동조합 모임과 같은 반 친구들끼리의 친목 모임을 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빅토리 카페로 가서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술을 몇 잔 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우루야에게 놀러 오지 않겠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이 문자메시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그에게 놀러 오라고 권유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몸이 아팠지만 결국 빅토리 카페로 왔고, 그곳에는 10-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모임 시간은 오후 8시에서 8시 30분경이었다. 당시 빅토리 카페에는 많은 공통 지인들이 있었다.

5 우루야는 그레이에게 몸이 좋지 않아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네가 만약 오고 싶으면, 난 여기에 계속 있을 거야”라고 자신이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몸이 아프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음을 바꿔 놀러 나왔다. 그는 9시쯤 도착했다. 그들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이미 맥주 한두 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 그녀는 그가 계속 아파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그녀는 그녀의 지인들과 어울리고 있었으며, 그 역시 정치외교학과와 노동조합에 소속된 그의 지인들과 어느 정도 어울리고 있었다. 그들은 대화 중이었다. 그들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는 스킨십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녀는 이에 대해 상처받지는 않았지만 당황스럽고 놀라워했다. 이전까지는 그의 여자친구가 그들의 관계를 알아낼 것에 대해서 그가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전까지 그는, 사람들 앞에서 스킨십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의 여자친구에게 들킬 것을 걱정하며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6 그레이와 그녀의 친구 레이스는 놀러 나가고 싶어 했다. 우루야는 몇몇 노동조합 사람들이 블로어와 배서스트 지역에 있고, 빅토리 카페와도 가까운 파우퍼스(Paupers)로 갈 것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그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더 마신 후 그녀가 마신 몫을 계산하고 파우퍼스로 걸어갔다. 그녀는 맥주 서너 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 그녀는 7시경 빅토리 카페에 도착해 10시경에 떠났다. 파우퍼스에서 그레이는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레이스와 함께 보냈다. 그녀는 우루야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레이스를 가장 잘 알고 있었는데, 석사 1학년 시절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파우퍼스에서 그레이는 약간 취해 있었지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잃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저 친구

들과 적당히 즐기면서 재미있게 술을 마시고 있는 정도였다. 정신을 잃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7 파우퍼스에서 그레이는 계속 맥주를 마셨다. 대부분의 시간 그녀는 칸막이 좌석 안에서 그녀가 노동조합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레이시도 있었고 우루야도 있었다. 우루야는 그레이와 레이시 둘 중 누구와도 많이 어울리거나 대화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캐나다공무원노동조합 파업 투표 때문에 온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 그들은 불이 켜지고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는데, 그때 시간은 새벽 2시에서 2시 반 경이었다.

『**그레이** : 저는- 제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우루야에게 너희 집에서 자도 되냐고 물어봤고,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자기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고 가도 되지만 섹스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안전하게 잘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저는 불쾌하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그가 좀 이상한 말을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제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는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이 켜졌고, 저는 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8 그들은 파우퍼스에서 나와 먹을 것을 사려고 했지만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은 후였다. 그들은 어니스트 에드의 바깥쪽에 있는, 배서스트와 블로어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우루야는 레이시에게 자신들과 함께 자기 집에 가자고 계속해서 권유했다. 그는 레이시에게 계속 술을 마시자고 강요했다. 그는 레이시가 돌아와서 술을 마시길 고집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이상했다. 왜냐하면 정작 그는 그날 밤 몸이 좋지 않아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9 그레이는 그날 밤 우루야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와 거의 어울리지 않았으므로, 어쩌면 그가 맥주를 마시는 것을 그녀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그가 갑자기 레이시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굉장히 이상해 보였다. 그의 집은 작았다. 그때 시간은 이미 새벽 2시 반이었고 레이시는 금방 잠들 것 같았기 때문에, 레이시가 그들과 같이 갈 일은 없어 보였다.



『그레이 : 그리고 그녀는 계속 싫다고 했어요. 그녀는 “가기 싫어”라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 그녀에게 강요했고 그녀가 이 상황을 불편해하는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저도 그 상황이 불편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택시가 와서, 그녀는 바로 택시에 올라탔고 이때부터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택시에 탔다는 말은 레이스가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그레이 : 네. 레이스가 택시에 탔어요.』

10 레이스가 택시에 탄 순간부터 우루야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고, 그레이는 당황했다. 우루야는 화가 나 있었다. 그는 그레이에게 그의 분노를 쏟아냈다.

『그레이 : 그는 저에게 너는 나를 성적으로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없으니 레이스를 집으로 부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둘과 동시에 섹스를 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검사 :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레이 :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혼란스러웠어요. 세 명에서 원래 하던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레이스에게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끈질기게 권하기는 했지만, 세 명에서 섹스를 하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것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점점 더 화를 내기 시작했고 너는 수치다, 너 때문에 창피하다, 너는 술고래다, 너는 애정결핍이다 같은 말들을 했어요. 그는 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길거리에서 서 있을 때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일어난 건가요?

그레이 : 네, 저희는- 레이스가 차를 타자마자, 너는 나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말들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는 그의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기 때문이죠.』

11 우루야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레이 :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무뎠어졌고, 직설적이 되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실제로 제가 무언가를 잘못 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제 잘못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는 레이시가 떠난 순간부터 제가 원래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굴었어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고, 제 자신이 굉장히 작게 느껴졌어요.』

12 그녀는 자신이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그가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혀 말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화를 냈다. 말투만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수위도 점점 올라갔다. 그들은 쓰리썸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레이나 레이시와 합의되지 않은, 그의 일방적인 기대 같은 것이었다. 대화는 없었다. 그레이는 그날 밤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왜 그가 그런 성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레이 : 저는 슬프거나 화나거나 상처받을 때면 제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고 내면으로 파고드는 성격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묻어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레이 : 그가 어떤 말들을 했냐면, 너도 다른 여자들이랑 똑같다고 했고, 그와 섹스를 한 적이 있는 다른 여자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너는 걸레(slut)다, 너는- 이런 욕설들도 했어요.』

13 그레이는 그날 밤 이후로 우루야와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붓고, 육체관계를 맺을 때에 자신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사람과 계속 친구로서 남기가 싫었다.

『그레이 : 계속 얘기하면서 걷다가 그의 집에 도착했어요.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걸었어요. 저는 그때 거의 현실감이 없이 멍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얼



마나 지긋지긋한 사람인지, 얼마나 술고래이고 걸레인지에 대한 끔찍한 말들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잠이나 자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 사람이랑 인연을 끊고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냥 쓰러져 잠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 일들이 분명 좋게 흘러가지 않았고, 저는 기진맥진하고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 상태였거든요.』

14 파우퍼스에서 그레이는 40달러 정도를 썼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40달러를 전부 맥주 값으로 썼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맥주 값까지 자기가 계산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레이 : 저는 다른 잘 곳을 찾기 위해 혼자 택시를 잡아 타기에는 너무 취해 있었고, 제 자신이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취해 있었어요.』

『그레이 : 저는 걸으면서 약간 어지럽고, 알뜰뜰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술기운이 저를 더 멍한 상태로 만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15 우루야의 집은 계단을 올라가면, 아파트 빌딩 형식으로 개조된 주택이 있는 구조이다. 계단을 올라가면 주방, 화장실, 그리고 침실들이 있다. 그녀는 침실이 세 개일 거라고 추측했다. 2015년 1월 31일 이른 새벽 그녀가 그곳에 있었을 때, 그녀는 그녀와 우루야 외에 아무도 보지 못했으며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그레이 :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결국 그의 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그의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언어적 폭력의 수위는 높아져 가기 시작했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저는, 아마 제가 이런 일을 당해도 쌀 만큼 나쁜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제, 저는 그 때 신체적 폭력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겁에 질린 채로 앉아서 그냥 그가 하는 말을 다 받아줬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 때, 그냥 저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가 제가 가진 모든 자존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는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느꼈고, 그냥 지금 당장 죽고 싶었어요.』

『그레이 :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저에 대해서 그런 끔찍한 말들을 하니깐, 저는 그가 하는 말이 전부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못된 말들을 퍼부었어요, 네.』

『그레이 : 그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내가 널 따먹는 건²⁾ 이게 마지막일 거고 너도 그걸 좋아할 거야.”라는 말이었고 이 말은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저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16 그들은 바로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그레이 : 저는 그의 몸 전체와 말투와 그의 모든 것이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묘사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어요. 그제-,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는- 그는 그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 지조차 모르는 상태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니요. 그건 그냥- 네, 그건 그냥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일어났던 일들의 연장선이었어요. 너는 술 취한 걸레고, 난 널 싫어하고, 나는 너랑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넌 나랑 자고 싶어 한다. 네, 내 여자친구한테 들길 거다, 너는- 네, 그냥 저에 대한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레이 : 네, 그리고 그는 제가 아까 진술했던 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기억하는 건, 저는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2) 원문의 표현 Fuck, Sex보다 좀 더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뉘앙스.



그는 일어서서 저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저를 깔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옷을 벗는 장면이라던가, 정확히 어떻게 다음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머리 뒤쪽을 움켜쥐고 그의 성기를 제 입 안에 처넣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레이 : 그냥 그 상황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그 때 저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저는 취해 있었고, 반격할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 폭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니 차라리 신체적 폭력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행동을 받아주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그냥, 생각하는 걸 멈췄고 그냥 되는 대로 되도록 내버려 뒀어요-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검사 : 그의 그런 행동에 동의하셨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검사 : 그가 당신의 머리 뒤쪽을 움켜쥐었다고 하셨죠?

그레이 : 네, 그리고 그는 저를 밀쳤어요- 그게, 제 등을 밀쳤고, 그리고 그의 성기를 제 입 안에 밀어넣었고, 그리고 저는 에라 모르겠다, 싫다고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정했나요?

그레이 : 그 때에는 아니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레이 : 그 상황이 언제 끝났는지, 얼마나 계속됐는지는 잘 모르겠

어요. 그 때는 그냥 혼이 나간 상태였어요. 저는 그냥, 최대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가 저를 침대에 밀쳐 눕혔던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한데, 왜냐하면 그 이후로 저는 그냥 누워있었고 그는 저와 섹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레이** : 그가 제 머리채를 잡기 바로 직전에. 그 말을 했어요. 그가 그 말을 했던 게 기억나고, 저는 “우리 지금 섹스하고 있네. 근데, 이게 뭐지- 누구랑 섹스할 때 이런 방식이면 안 되는데.”라고 멍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그냥 그에게 맞춰 줬어요.』

『**그레이** : (성행위는) 그가 끝내고 싶어 했을 때 끝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혼이 나간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레이** : 저는 아기처럼 웅크린 상태로 엄청나게 울었어요. 저는, 저는 평소에는 잘 울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운다면 그건 진짜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레이** :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네. 그리고 저는...

검사 : 그때 그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습니까?

그레이 : 조용히 하라던가,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기절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았고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기절했어요.

검사 : 당신이 기억하는 다음 일은 무엇인가요?

그레이 : 아, 저는 그가 제 옆에서 자위를 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잠에서 깬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는 제가 어젯밤, 아니 그 전날 밤,



죄송해요, 울면서 잠이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고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는 제가 그 전날 밤에 울면서 잠든 걸 알고 있었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너는 이 상황의 뭐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잠에서 깬 걸 알아차렸고 그는 또다시, 제 머리 뒤를 잡고 제 머리를 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시점에서는 상태가 좀 더, 잠을 조금 잤기 때문에 술에서 많이 깬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난 안 할 거야.”라고 말했어요.』

17 그녀는 일어났고, 바지를 챙겨 입은 후 그의 집을 떠났다. 아침 9시쯤의 일이었다. 그녀는 칼리지와 배서스트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차를 기다리면서, 그녀의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침 9시 45분경이었다. 그레이의 말에 따르면, 그가 아침에 그녀의 머리를 잡았을 때에도 그들은 같은 침대 위에 있었다. 어떠한 언어적 의사소통도 없었다.

『**그레이** : 저는 “싫어. 안 할 거야.”라고 말한 후에 일어났고, 인사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8 그레이는 집에 도착한 후 몇 시간 정도 잠을 잤다. 그녀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그가 무슨 오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어젯밤 완전 개판이었지.”³⁾ “그리고 그는 저에게 그래⁴⁾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것은 그들이 서로 쌍방향으로 주고 받은 마지막 연락이었다.

19 그녀는 그날 저녁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진술했다. 그녀가 추측하기로는 그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

20 그녀는 자신이 그 사건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참고 있었고, 당시 우울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21 2015년 2월 1일, 그녀는 신고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신고하지 않게

3) 원문의 표현은 Fucked up. 원래는 더 센 뉘앙스.

4) 원문의 표현은 Okay.

되더라도, 만약 나중에 다시 마음을 바꿔 신고하게 될 경우를 위해, 최소한 병원에 가서 법의학적 테스트는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위민스 칼리지 병원(Women's College Hospital)으로 갔다. 닫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Mount Sinai)으로 가서 법의학과 간호사 혹은 성폭력 전문 간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키트 검사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신고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증거는 갖추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친구 리디아가 함께 병원에 거주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일요일 늦은 저녁 키트 검사를 했다. 자정쯤 되어 그녀는 검사를 끝냈다. 2월 2일 월요일 아침, 그녀는 수업조교 일을 위해 출근해야 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서 망설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대학원생이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레이는 그녀의 대학원 과정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노동조합에도 연락을 했다. 그녀는 우루야가 캐나다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였기 때문에 불안했다.

『그레이 :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캐나다공무원노동조합 간부 중 한 사람이 금요일에 저를 강간했는데, 저는 어떻게, 저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여러분이 제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알고 싶어요.”』

22 그녀는 비긴급 신고(Non-emergency)를 했고 그날 저녁 그녀의 집에 두 명의 경찰관이 파견되었다. 그녀는 그들이 오기 전에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녀는 그날 밤 사건 진술을 했다. 첫 진술을 들은 후 경찰관들은 그녀를 14번 부서로 데려갔다. 그녀는 척 배리 형사와 그의 동료들을 만났고 KGB 선언⁵⁾을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우루야와 의사소통한 것은 우루야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였다.

5) 캐나다 법률용어.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도 진술의 필요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며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



1부. 사실관계

(피고인 무스타파 우루야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 브리스토의 주 신문



23 『**변호인** : 우루야, 당신은 2015년 1월 31일 새벽에 맨디 그레이와 성행위를 했습니까?

우루야 :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 : 그 성행위는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루야 : 네. 단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24 피고인은 요크 대학교의 정치외교학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자 수업조교이다. 그와 그레이는 2015년 1월 16일의 노동조합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2015년 1월 30일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다. 여자친구의 이름은 엘리슨이고, 그녀는 몬트리올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3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사귀었다. 그들의 관계는 열린 연애편계⁶⁾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하거나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합의하였다. 엘리슨이 토론토로 다시 돌아오는 2015년 4월경에는 다시 배타적인 연애편계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 그 관계는 다시 배타적으로 돌아갔다.

25 그는 엘리슨에게 그레이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6) 원문의 표현은 Open relationship. 파트너가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과 로맨틱한 혹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용인하는 관계.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2015년 1월 30일 9시경 빅토리 카페에서 그레이를 보았다. 그의 친구와 동료 몇 명이 캠퍼스에서의 파업 투표가 끝난 후 그리로 갔다. 그들은 술을 몇 잔 마시려고 했다. 그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 후 그는 그레이로부터, 그가 왔으면 좋겠고 나중에 섹스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와 그날 밤 성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우루야 : 네. 그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성행위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26 그는 빅토리 카페로 가기 전에 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빅토리 카페에서 그는 맥주를 마셨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15-20명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정치외교학과와 사회학과 사람들이었다. 그는 바에 도착한 후 그레이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 성적인 뉘앙스로 시시덕거렸다.⁷⁾ 그 날 저녁 그녀는 그의 다리를 더듬기도 했다. 그녀는 손으로 그의 다리 안쪽을 위아래로 문질렀다. 그것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그런 애정행각을 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다. 그곳에는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었고 그는 그런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우루야는 그가 도착했을 때 그레이가 이미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그들이 떠나기 전에도 그녀가 맥주 한 잔을 더 시켰다고 진술했다.

27 그들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후에 파우퍼스라는 다른 술집으로 갔다. 우루야, 그레이, 그레이의 친구 레이시, 그리고 5-6명 정도 되는 다른 사람들(대부분 정치외교학과와 사회학과 사람들)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파우퍼스에 갔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술을 주문했다. 그레이와 우루야는 서로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 외에 4-5명 정도가 있는 칸막이 좌석이였다. 그들은 대화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또다시 테이블 아래로 우루야의 다리를 더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허벅지 윗부분의 안쪽으로 그의 성기와 좀더 가까운 부분이었다. 이번에도 그는 불편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말했다. 그들은 폐점 시간인 새벽 2시 30분에서 2시 45분경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맥주를 두

7) 원문의 표현은 Open relationship. 파트너가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과 로맨틱한 혹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용인하는 관계.



세 잔 정도 마셨다. 그녀는 그들이 늦은 저녁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맥주 한 잔을 주문했다. 그는 그녀가 최소 두 잔의 다른 맥주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파우퍼스에서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서로 가까이 앉아 있거나 서 있지 않았다. 그는 그레이, 레이스, 그의 친구 인디고, 공통 친구인 가젼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바에서 나와 배서스트를 향해 서쪽으로 걸었다. 인디고와 가젼과는 중간에 헤어졌다. 그는 레이스에게 자기 집에서 자고 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우루야 : 저는 그냥, “나랑 맨디랑 우리 집에서 술 마실래?” 라고 말했어요.

변호인 : 그리고 레이스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루야 : 그녀는 고민했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 하지만 그녀는 결국 같이 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택시를 잡았어요.』

28 빅토리 카페에서 그레이는 그의 집에 가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집에 가고 싶다고 했고 그는 물론 괜찮다고 했다.

『변호인 : 그날 밤 레이스나 그레이에게 쓰리썸을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아, 없습니다. 없어요.』

29 그날 저녁의 어느 시점, 우루야는 그의 친구 가젼으로부터 그레이가 우루야와 다른 사람 한 명을 데해서 쓰리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쓰리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사건 며칠 후 가젼과 만났고, 가젼은 그가 여전히 그레이와 만나고 있는지, 쓰리썸은 어땠는지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레이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며 쓰리썸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30 레이스가 떠난 후, 그들은 우루야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캠퍼스 서쪽으로 배서스트 근처에 위치해 있는 그의 집까지는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

『변호인 : 걸어갔다고요. 걸어가는 동안 그레이와 대화를 나눴습니까?

우루야 : 네. 저는 레이스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아서 실망이라고 했

고 맨디는— 맨디는, “나로는 충분하지 않니?”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너로 충분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를 약간 잡고 길을 걸었어요. 저는 그녀의 허리에 제 팔을 둘렀고, 그녀는 그녀의 팔을 저한테 둘렀어요.』

31 우루야는 그들이 날씨와 곧 있을 파업에 대해 대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레이가 너희 집에 가서 섹스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노력은 해보겠지만 할 수 있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몸이 좋지 않았다. 일주일 전부터 걸린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말다툼을 하지 않았다. 언성은 높아지지 않았고, 그는 화가 나 있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그레이는 취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음, 그러니까, 아마 볼이 빨개져 있었던 것 같고, 음, 행복해 보였고, 음, 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말할 때의 발음도 분명했다. 그녀는 그들이 평소에 만나서 술을 마셨을 때 이상으로 취해 있지 않았다. 그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취해 있지 않았다.

32 그의 집은 2층에 있다. 들어가면 부엌과 소파가 보이는데, 이것이 거실 비슷하게 쓰이는 공용공간이다.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왼쪽에는 세 개의 침실로 가는 복도가 있다. 그의 침실은 왼쪽에서 첫 번째에 있고, 그는 룸메이트가 두 명 있다.

33 『변호인 : 이제 그레이와 함께 집에 도착한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루야 : 저희는 걸어 들어갔고, 제가 뒤에서 문을 잠갔어요. 맨디가 제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저희는 옷을 벗었고, 어, 그리고 침대로 갔어요.』

『변호인 : 침대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우루야 : 퀸사이즈입니다.

변호인 : 방에서 침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실 수 있습니까?



우루야 : 오른쪽에 있어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침대가 보입니다. 음, 침대의 오른쪽 면과 머리판이 벽과 붙어 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다고 했죠. 서로 옷을 벗는 것을 도와줬나요?

우루야 : 아니요. 스스로 벗었습니다.

변호인 : 그레이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변호인 : 그레이가 당신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변호인 : 그리고 그레이가 옷을 벗은 후에 무언가를 입고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우루야 : 아마 그녀는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 당신은 어땠나요? 무언가를 입고 있었습니까?

우루야 : 저는 긴팔 셔츠와 긴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당신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둘 중에 누가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갔나요?

우루야 : 맨디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 그래서 그녀는 침대 어디에 누워 있었나요?

우루야 : 침대 오른쪽, 벽 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누웠나요?

우루야 : 저는 왼쪽, 방 중앙에서 가까운 쪽에 누웠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때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나요?

우루야 : 아, 처음에는 메인 조명이 켜져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걸 껐고 대신 침대 옆에 있는 램프를 켜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램프도 껐어요.

변호인 : 언제 램프를 껐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루야 : 옷을 벗고 난 후였던 것 같아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해주세요.

우루야 : 어, 침대에 누운 후, 맨디가 제 쪽으로 와서 저에게 키스하려고 했고 저는 그걸 피했어요.

변호인 : 왜 피했습니까?

우루야 : 어, 저는, 어, - 저는 그녀가 술집에서 저를 만졌던 게 기분이 나빴다고, 어, 그리고 그걸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별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8)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았어요.』

34 우루야는 그의 여자친구가 4월에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친구로만 지내자고 말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그에게 사과했다.

『**우루야** : 저는 그녀를 달래려고 노력했고, 그녀가 저를 만진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네, 그게, 그녀를 안았고, 그녀의 팔이랑 등을 만졌어요.

변호인 :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루야 : 어, 그녀는 조금 흥분했고, 저희는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인 : 키스하기 위해서 그레이 쪽으로 몸을 기댔나요?

우루야 : 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댔어요.

8) 원문에서도 불분명한 부분.



변호인 : 그리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루야 : 어, 저희는 키스했고, 서로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세를 바꾸려고 굴러서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웠고 그녀가 제 위로 왔어요. 그리고 그녀가 제 바지를 벗겼고 저는 제 셔츠를 벗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오럴 섹스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변호인 : 그레이가 그리고 있는 동안 그녀를 만진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그녀의 팔, 가슴, 어깨, 머리를 만졌어요.

변호인 : 그녀를 강제적인 방식으로 만진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변호인 : 그 시간 동안 대화가 오갔나요?

우루야 : 한 일이 분 정도 후에, 어, “네 안에 넣어 줄까?”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몸을 돌리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짚었고, 그 자세로 섹스를 했어요.

변호인 : 그 자세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루야 : 그건, 어, 후배위 자세를 말합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당신이 그레이의 위에서 정상위로 한 적은 있습니까?

우루야 : 없습니다.

변호인 : 그날 밤, 음, 사정을 했습니까?

우루야 : 네, 사정했습니다.

변호인 : 콘돔을 사용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이때까지 몇 번 만나온 동안에도 콘돔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맨디는 자신의 생리 주기를 체크하고 있다고 했어요.

변호인 : 그리고 무슨, 음, 만약 성행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루야 : 섹스를 한 후에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변호인 : 그때 그레이가 울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우루야 : 아니요,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 그녀에게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섹스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침대에서 자거나 섹스를 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변호인 : 왜 그렇게 말하셨죠?

우루야 : 아, 왜냐하면 전 그녀가—전 그냥 솔직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변호인 : 성행위를 하는 동안 그 성행위가 합의된 것이었다고 믿었습니까?

우루야 :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 :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루야 : 섹스하는 동안 있었던 모든 행위들은 쌍방향이었어요. 키스, 오럴 섹스, 삽입 과정에 둘 다 참여하고 있었어요.

변호인 : 그레이가 성행위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암시나 조짐을 당신에게 보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변호인 : 그레이가 성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어, 당신이 멈추기를 바라는 듯한 암시를 준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변호인 : 그레이가 성행위 동안 운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변호인 : 그레이가 싫어하거나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변호인 : 그레이가 당신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변호인 : 그레이의 눈이 감기거나 그레이가 기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35 우루야는 그가 10시쯤에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레이는 이미 옷을 입고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그녀는 파카와 부츠 그리고 어두운 색깔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나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이용당했다고 느꼈다. 그는 그날 아침에 자신이 그레이의 머리를 자기 성기 쪽으로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몇 시간 후 그는 그레이로부터 “어젯밤 완전 개판이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변호인** : 그리고 그 문자에 답했습니까?

우루야 : “그래.”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변호인 : 그레이로부터 그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우루야 : 음, 제 생각은요, 그녀가 술집에서 저를 더듬은 것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군 것과, 섹스하기 전에 이제 이 관계를 끝내자고 말

한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인 : 다른 생각이 드시지는 않았나요?

우루야 : 네.』

『**우루야** : 아, 그리고 그 이후 며칠 동안은 그녀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며칠 후에 제가 그날 밤 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변호인 : 무엇이 미안하다는 뜻이었나요?

우루야 : 무슨 뜻이었냐면, 그게, 그녀가 술집에서 저를 더듬은 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화를 낸 거랑, 이 관계가 끝났다고 말했으면서도, 그거랑 상관없이 섹스를 해버린 거요.

변호인 : 사과하는 데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우루야 : 없었습니다.

변호인 : 그 이후로 그레이와 말한 적이 있나요?

우루야 : 아, 아니요. 없습니다.』

36 우루야는 그가 그날 오후 룸메이트 필과 만났다고 진술했다. 필의 방은 그의 침대 머리판 뒤쪽에 있다. 몇 주 후 그가 기소된 이후로, 우루야는 필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다. 기소 이후 그는 조교 업무를 정직 당했고 거의 모든 날에 캠퍼스로 오는 것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2월 15일 아침 그는 경찰이 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는 같은 전화번호로부터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했다. 스티븐 배리 형사가 전화를 받아 그레이가 그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말문이 막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마지막 주문 시간인 새벽 2시경까지 그레이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새벽 3시 30분경 성행위를 했다. 그는 그날 밤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37 『**변호인** : 알겠습니다. 성행위가 상호 간 합의된 것이라는 확신에 의문을 품으신 적은 없었습니까?



우루야 : 네.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변호인 : 왜 그렇게 믿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루야 : 음, 저녁에 받았던 문자메시지에서도 그녀는 제가 술집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섹스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또 빅토리 카페에서도, 그녀가 저희 집으로 오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도, 그녀는 집에 도착하면 섹스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키스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그녀는 제 위로 올라와서 오렐 섹스를 해 줬어요. 삽입을 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아 주기도 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레이가 이런 성적 행위를 하게끔 강요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1부. 사실관계

(피해자 맨디 그레이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 브리스토의 반대 신문



38 『**변호인** : 당신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 일했다고 하셨죠?

그레이 : 엘리자베스 프라이 사회연합 매니토바 지부에서 사회 재적용 프로그램을 담당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폭력 생존자 여성들과 함께 일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이곳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재소자 여성들과도 일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맞습니다.』

39 2015년 1월 16일의 노동조합 모임에서, 그녀는 우루야를 처음 만났다. 그들은 근처에 있던 술집인 빅토리 카페로 걸어갔다. 그날 밤 그곳에는 6명에서 7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40 빅토리 카페에서, 그녀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맥주 피치를 시켜서 나눠 마셨다. 그 후 그들은 다른 바로 갔다. 그녀와 초면인 사람들이 많았고, 우루야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블로어에 있는 허리케인즈(Hurricanes)로 향했다.



그들은 걸어서 그곳으로 갔다. 그녀는 우루야와 처음 만나 잡담을 나눴고, 그들은 학과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밤은 깊어갔다. 그녀는 그가 재미있고 정직하며 친절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계속 술을 마셨다.

41 『**변호인** : 이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 후 당신은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42 『**변호인** :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하셨는데, 이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그레이 :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은 포함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43 『**그레이** : 음, 일단 말해 볼게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시면 언제든지 말을 끊어 주세요. 음, 그래서 그 여자는 화장실에서 저와 마주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심해, 그는 여성혐오적인 명칭이고 나는 그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었는데 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조심해.”』

44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난 날 밤, 그녀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사실에 대해 그를 추궁했다. 그녀가 알기로는, 1월 16일 당시에 우루야와 그의 여자친구는 열린 연애편계였다.

45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루야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이 관계를 들킬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여자친구에게 들킬까봐 화가 났다던가 하는 일도 전혀 없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레이 :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호인 : 아무 시점에서든 말입니다.

그레이 :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들리게 돼서 그의 여자친구가, 혹은 그가 화가 났다고 언제 당신에게 말했습니까?

그레이 : 그 관계가 진짜 열린 연애편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게 된 날은, 제가 그의 집에 가 있었는데 그가 여자친구와 통

화를 한 날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넌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그 문제의 밤에, 그의 여자친구가 이사를— 아, 맞아요. 그의 여자친구가 토론토로 이사를 다시 올 예정이었고, 네, 그건 그날로부터 며칠 전이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그는 저한테 여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와 계속 잘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46 『**그레이** : 아니, 아니, 1월 16일 첫날 밤, 제가 그를 직접 추궁하면서 “너 여자친구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가 처음 의문을 품었던 날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는 여자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열린 연예관계라고 대답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집에 놀러갔을 때였나요?

그레이 : 네, 저희는 그냥 놀고 있었는데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는—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는 뻔뻔하게도 여자친구랑 통화를 해야 하니까 저보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47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가 이 관계를 비밀로 해달라고 당신에게 말했다고 하셨죠?』

48 『**그레이** :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요. 날짜라든지 이런 건요. 그때 그가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토론토로 다시 와도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만약 그러고 싶다면 비밀로 해야 할 거라고 말했던 것은 기억 나요.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대화에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49 『**변호인** : 2015년 1월 30일과 13일에 그가 다시 그 얘기를 꺼냈다고 말씀하셨죠?

그레이 : 맞아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네 번째인가요?

그레이 : 아마도요.』

50 2015년 1월 30일, 우루야는 그녀에게 굉장히 화가 났다. 그는 앨리슨이



그들의 관계를 알아낼지도 모른다는 것,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 것, 그리고 그것이 혹시 그의 여자친구의 귀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다. 그레이는 어차피 노동조합 사람들은 모두가 모두와 돌아가면서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1 빅토리 카페에 가기 전,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다. 8시에서 8시 30분경 그녀는 빅토리 카페로 갔다. 그곳에 정치외교학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지인과 초면인 사람들이 섞인 테이블에 앉았다. 모두 요크 대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이후 우루야가 도착했다.

52 『**변호인** : 그래서, 제가 몇 개의 문자메시지 복사본을 보여 드렸죠. 이것이 1월 31일, 우루야와 당신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바로 그 문자메시지들입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변호인** : 그래서, 7시 55분에, 당신의 핸드폰으로 우루야의 핸드폰에 보내진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나 빅토리 카페에 있어…” 아니, “…빅토리에 있어. 와서 술 먹고 나서 우리 뜨거운 섹스를 하자”가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레이 :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루야가 “나 너무 피곤해”라고 답장을 보냈죠?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우루야가 “그리고 아직 아파”라고 7시 57분에 보낸 또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에 당신이 보낸 “알겠어. 쉬어. 좋은 밤 돼.”라는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지루해, 너 안 오길 잘 했다.” 8시 15- 아니, 오후 8시 18분. 맞습니까? 맞나요?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루야가 오후 8시 19분에 “오, 왜?”라고 답장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8시 23분에 당신이 “분위기가 이상해, 나 이제 곧 집에 가려고, 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26분에, 우루야가 “지금 바로 갈게”라고 답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8시 31분에 보낸 답장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농담이야.”입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계속되었지만, 당신은 당신이 보낸 나머지 메시지들을 다 볼 수 없군요.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맞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증거물 1B): 여러 개의 문자메시지 확인됨. 생산 및 보증됨. 2월 2일 그레이가 경찰에게 진술함.

53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날 밤 당신이 우루야에게 뜨거운 섹스를 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 그가 저를 강간한 것과 그 문자메시지가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 당신이 우루야에게 오라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뜨거운 섹스를 할 수 있게 빅토리로 오라고 한 것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경찰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그레이 :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연락처를 제 핸드폰에서 삭제해 버렸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모든 문자메시지를 지웠고 제 페이스북에서도 그를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정확히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지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당신이 오늘 저에게 그 문자메시지들을 보여 주기 전까지는 제가 문자메시지로 뭐라고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54 그는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에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55 『변호인 : 당신은 경찰에게 그날 밤 당신이 우루야에게 뜨거운 섹스를 하자고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 저는, 저는 그 문자메시지들이 없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변호인 : 굉장히 편리하게 잊어버리시네요, 그레이 씨.』

56 그녀는 맥주를 세 잔에서 네 잔정도 마셨다.

57 『변호인 : 알겠습니다. 당신은 경찰에게 맥주를 세 잔 마셨다고 진술했죠. 서너 잔이 아니라 정확히 세 잔이라고 기억하고 계신 겁니까?

그레이 : 네, 음, 네, 아마도요.』

58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24페이지 중 19페이지로 가셔서, 2월 2일 22시 47분에 있었던 맨디 그레이의 진술을 봅시다.

세 번째 문단에, “그레이”, 네 번째 줄입니다. “빅토리 카페에서 맥주 세 잔을 마셨어요. 확실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59 『변호인 : 배리 형사의 질문은, “그때 바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나요?”입니다. 제가 제대로 읽었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기억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빅토리 카페에서는, 생각하는 중이에요, 빅토리 카페에서는 확실히 맥주 세 잔을 마셨어요. 음, 그리고 저는— 저는, 기억해 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바에서 맥주 값으로 40달러를 쓴 거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 지금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이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까지 많이 안 마시려고 했고, 네, 아마 그 정도로만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입니다. 제가 제대로 읽었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진술은 진실한 것이었죠?

그레이 : 네.』

60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신은, 우루야가 당신에게 만지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우루야를 만졌죠. 맞습니까?

그레이 :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루야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만지지 말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레이 : 제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지만, 그냥 수긍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빅토리 카페에서 우루야를 만졌다고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레이 : 음, 어떻게 만졌다는 건가요?

변호인 : 그의 팔을 문질렀죠?

그레이 :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변호인 : 그의 허벅지 안쪽을 문질렀죠?

그레이 :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앉아 있었고 그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변호인 : 그렇지만 당신은 어느 시점에는 둘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레이 : 네, 그건 그가 자기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말했던 때였죠. 그리고 저는 그가 자기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누가 저한테 자기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걸 존중해요.

변호인 : 당신은 그가 자기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의 허벅지 안쪽을 문질렀죠?

그레이 :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변호인** : 당신은 그날 저녁 우루야에게 추파를 던졌죠?

그레이 : 그 문자메시지들을 제외하면, 추파를 던진 기억은 없어요.

변호인 : 그래서, 당신은 우루야에게 “뜨거운 섹스를 하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놓고, 나머지 저녁 시간 동안에는 그냥 그를 무시했다는 건가요?

그레이 :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그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했던 내용의 짧은 대화가 오갔으니깐,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게 추파를 던진 건 아니었죠.』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이 파워퍼스에서 우루야에게 그의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알겠어, 근데 우리 같이 자지는 않을 거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진술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61 그레이는 2013년 가을, 석사과정 1학년 때 레이스를 처음 만났다. 레이스는 1월 30일, 빅토리 카페에서 그레이와 함께 있었고 파워퍼스에도 같이 갔다. 그날 밤 그레이는 우루야의 집에서 잤다. 그녀는 레이스의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62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레이스에게 가령, 나 혼자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거 좀 불편한데, 너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 라고 물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정말로 일이 그렇게 됐더라면 좋았겠네요.

변호인 :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 네. 그럴 생각을 떠올리지 못 했어요. 이미 그에게 물어봐 놓기도 했고, 그의 집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우니까요. 예전에도 거기서 잔 적이 있었고 별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변호인 : 당신이 레이시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던 이유는, 당신이 문자메시지에 썼던 대로 우루야와 뜨거운 섹스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저는 그가 피곤하고 몸이 좋지 않고, 저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으며, 저와 그날 밤 섹스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존중했어요.

변호인 : 그 말은...

그레이 : ...저는 그 사실을 존중했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었고 어딘가에서 잠을 좀 자고 싶었어요.』

『**변호인** : 당신은 경찰에게 당신과 우루야가 가끔 함께 만나서 데이트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아마도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남자친구 삼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했어요. 사실입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당신은 경찰에게 우루야가 거의 매일 당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당신과 만나고 싶어 했다고 진술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63 『**변호인** : 배리 형사의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그와 연애편계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레이 : 음, 그건 육체적인 관계였어요. 저는 그와 몇 번 잤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정말, 정말 친절했고 항상 제 주위에 있길 바랐어요. 그리고, 음, 처음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는, 그를 가끔씩밖에 안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바뀌었죠. 굉장히 빨리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관계의 의미를 넓게 정의한다면, 아마 어떤 관계에 있었던

건 맞겠네요. 아마.』

『**변호인** : 그레이는 그녀가 보낸 문자메시지들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와 우루야 사이에 2주 동안에 오간 모든 문자메시지입니다. 이 문자메시지들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항상 상대방 주위에 있고 싶어 하고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둘이서 만나 데이트할 때 상대방에게 될 하고 싶냐고 먼저 물어본 사람은 우루야가 아닌 다른 쪽이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변호인** : 이제 문자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실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문자메시지들을 보면 우루야가 당신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것보다는, 당신 쪽이 더 우루야와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64 그레이 : 굳이 비교한다면 서로 비슷하게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 그렇지만 “너 나랑 만날래?”, “너 내일 뭐 해?”라고 물어보는 쪽은 모두 당신입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메시지들을 다시 제대로 읽어보고 몇 번 그랬는지 세 봐야 알긴 하겠지만, 아니요. 방금 그건 공정한 주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 보죠.

그레이 : 알겠습니다.

변호인 : 그럼, 1월 19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루야에게 보낸 첫 메시지고 내용은 “나 맨디야. 뭐해?”입니다. 맞습니까?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루야로부터 “별 건 없고 축구하다 방금 집에 왔어. 너는?”이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네가 문자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



었어(웃는 이모티콘)”라고 말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 내일 강의 때 쓸 자료 같은 거 준비해야 돼.”라고도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도 일하는 중이야. 별로 잘 되어가진 않아. 너 내일 강의 몇 시야?”라고 답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루야는 “11시 30분이랑 5시 30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근무 시간이야.”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바쁘네. 이번 주에 나랑 놀 시간도 좀 내 줘.”라고 답장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붉히면서 웃는 이모티콘 같은 것도 있네요?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루야의 답장은 “응, 그리고 싶어. 안 그래도 너네 집에서 일이 잘 되더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그래, 이번 주에 놀러 와. 나도 읽을거리가 많아.”입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둘 다 비슷한 정도로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루야는 “수요일 밤 괜찮아. 목요일에 별 일 없거든.”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래. 수요일에는 5시 30분까지 수업이 있고, 목요일에는 2시 30분까지 아무것도 없어.”라고 답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는 1월 20일 화요일 오후 9시 12분에 이루어졌군요.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나 내일 11시 30분에 축구 경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오늘 밤에는 시간 있어. 나 지금 학교에서 떠나. 촉박하게 알려줘서 미안해.”라고 합니다. 맞게 읽었나요?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응, 알겠어. 여기로 올래?”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는 “응, 갈게.”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로블로(Loblaws)⁹⁾ 안에 있는 LCBO¹⁰⁾가 열었으면 맥주 큰 캔으로 좀 사와다 줘. 그럼 널 영원히

9) 캐나다의 슈퍼마켓 체인

10) 캐나다의 주류 판매점



사랑해 줄게.”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하, 알겠어.” 아니, 죄송합니다, 그는 “하하, 알겠어.”라고 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 어디야?”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그는 어디냐는 질문에 대한 답장으로 “세인트클레어 역에서 걸어가고 있어. 너무 늦어서 미안. LCBO는 문 닫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겠어, 좀 이따 봐.”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그는 당신의 주소를 물어보고, 당신은 대답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2월 21일 수요일 오후 1시 39분에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그는 “아직 미팅 중이야. 회의 다 끝났어? 맡아줄 사람 없으면 테이블 아이패드랑...” 죄송합니다, “...테이블, 아이패드랑 다른 것들 사무실에 그냥 다시 놔둬도 돼.”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가짐이 너 기다려 준대.”라고 답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그는 “혹시 내가 너네 집에 물통 놔두고 왔나? 너네 집에 없으면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찾아볼게. 너 뭐해? 지하철이야?”라고 답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니, 집이야. 네가 아직 있을 줄 알았으면 계속 거기 있을걸. 할 수 없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거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매일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수업 있어. 너 축구하러 갈 거야? 아니면 나랑 만날래?”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는 “축구 취소됐으니까 만나자. 우리 집으로 와서 영화 볼래, 아니면 너네 집으로 가는 게 더 좋아?”라고 대답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네가 우리 집에 올래? 나 지금 학교에서 집 가는 중이고 할 일이 좀 있어. 괜찮아?”입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의 대답은 “지금 내 룸메이트 헤일리 때문에 번기가 휴지로 막혀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아. 응, 괜찮아.”입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게. 내일 학교에 가서 회의 좀 하고, 너네 집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금요일 아침에 수업 들으러 학교로 가야겠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알겠어. 하하하. 회의하는 중에 누가 날 보러 왔게?”라고 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우루야는 “맘소사, 설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맞아, 개는 정말 건방진 자식이야. 미팅은 어땠어?”라고 답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진짜 별로였어. 다 헛소리였고 내가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미리 지정된 언론 대변인들만 왔어. 계속 협상팀이 회원 협상 제안을 수정하는 데에 얼마나 큰 권한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 싸우기만 했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아, 다 꺼지라고 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이건 모두 1월 21일의 수요일의 일이죠. 맞습니까?

우루야는 “다 꺼지라고 해”에 “하하”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방금 집에 도착했어, 긴 하루였어.”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루야는 “응, 빌어먹게도 긴 하루였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루야는 “아, 내 말이. 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벌써 침대야.”라고 답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루야는 “좋겠다. 내 물통은 못 찾았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응, 너도 와. 물통은 여기 없는 것 같아. 부엌에서도 내 방에서도 못 찾았어.”라고 답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할, 그 물통 비싼 거였는데.”라고 합니다. 우루야- 아니, 죄송합니다, 당신은 “최악이겠다.”라고 답합니다.

우루야는 “지금 내가 당근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너네 집에서 피자 먹는 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내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잘하면 내가 요리해 줄 수도 있어, ㅋㅋ”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루야는 “넌 나를 응석받이로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넌 날 응석받이로 만들어.” 그리고 당신은 “그래, 오늘 세 끼 다 학교에서 먹었어, 최악이야.”라고 답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그는 “어, 그거 진짜 싫겠다.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일찍 나온 가장 큰 이유야. 학교에서 일하면서 오래 머물렀을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밥 먹기가 싫었거든. 하지만 그래서 금요일 수업까지 들어가야 하는 책을 -에서(의미불명)¹¹⁾ 빌려야 하는 걸 깜빡했지.”라고 답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내일 빌리면 되잖아.”라고 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물음표가 있고요. 맞죠?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난 아직 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 보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건 아직 1월 21일 수요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니, 죄송합니다, 우루야는 “응, 근데 그거 말고 학교에 가야 할 다른 이유가 없거든. 그냥 복사본을 다운로드할까. 회의에도 사람이 충분히 많을 것 같아서, 난 그냥 집에 있어도 될 것 같아.”라고 답합니다. 맞습니까?

11) 원문에도 의미불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하하, 너 나한테 내일 회의 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 도서관에 있는 거면 내가 빌려다 줄게.”라고 답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우루야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 DC150B95.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 전자책을 찾아서, 꼭 빌려다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라고 답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라고 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우루야는 “음, 나 이걸로는 한 시간에 20페이지밖에 못 봐서, 실물 책이 있으면 좀더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해.”라고 답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이 다음에는 1월 22일로 갑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검사 : 아니지 않나요? 아, 맞군요. 죄송합니다.

변호인 : 1월 22일 오전 7시 47분입니다. 당신은 우루야에게 “알겠어, 오늘 아침에 빌려다 줄게.”라고 답장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루야는 “고마워. 나 목이 좀 아픈데, 그래도 가도 될까?”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오고 싶어?”라고 답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우루야는 “응, 나한테 옳아도 원망하지 마.”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민간요법으로 약 좀 먹으면 괜찮을 거야.”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민간요법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레이 : 오래가노 오일어요.

변호인 : 그리고 계속해서 1월 22일, 그는 “하하, 알겠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나 오후 5시에 일이 다 끝나. 그때 이후에 우리 집으로 와서 책 읽을래?”라고 답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그는 “그래.”라고 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나도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당신은 “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어.”라고 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책 이름이랑 도서 정리 번호 좀 다시 문자로 보내 줄래?”라고 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는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 DC15-B95.”라고 답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1968년판 아니면 1973년판?”이라고 답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바로 “둘 다 빌려다 주려고 했는데 1968년판 바코드가 없어져서, 1973년판만 빌려다 줄게.”라고 보냅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그는 “완벽해, 정말 고마워.”라고 답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나서는, 당신이 원하신다면 문자메시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프린터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죠.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관련 대화 이후에, 우루야는 “너 거의 다 끝난 것 같네. 나 몇 시쯤에 갈까?”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학교에서 출발할 때 메시지 보낼게. 나 이 뒤로 일정 없으니까 네가 좋을 대로 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루야는 “맥주나 간식 같은 거 사갈 까?”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응 둘 다 사와 줘, 내 건 밀팩 주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좋아, 나 25분쯤 후에 집에 도착해.”라고 1월 22일 오후 5시 25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루야는 “우리 집에서 방금 출발했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증거물 1C): 여러 개의 문자메시지가 낭독되고 기록됨. 생산 및 보증됨.

65 『변호인 :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경찰에게 진술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변호인 :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말했던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똑같이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24페이지 중 9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배리 형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그와 연애편계였던 적이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음, 그건 그러니까...” 입니다.

기록에는 일반적인 관계라고 적혀 있지만,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피고인과 저는 당신이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육체적인 관계라고 경찰에게 진술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레이 : 비디오를 다시 한 번 돌려보아야 할 것 같네요.

변호인 :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죠…

그레이 : 그렇지만 동의합니다. 그 주장에 동의해요,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그건 육체적인 관계였어요. 저는 그와 몇 번 잤어요. 처음에는 그가 정말, 정말 친절했고 항상 제 주위에 있길 바랐어요. 그리고, 음, 처음 일 주일 정도가 지나고는…”라고 진술했습니다.』

66 16일, 우루야와 그레이가 만난 첫날 밤, 그녀는 그들이 그날 밤에만 잠깐 어울릴 것이고 그대로 관계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는 그녀와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했다. 그녀는 이렇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나, 그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였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주 주말 내내 그와 만나 놀게 되었다.

67 『**변호인 :** 우루야가 당신에게 만지지 말아달라고 두 번째로 말했던 적은 없다고 하셨죠?

그레이 : 그렇습니다.

변호인 : 파워퍼스에서 우루야에게 성적인 농담을 건네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 그러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 파워퍼스에서 우루야의, 부적절한 부위들을 만지셨죠?

그레이 : 뭐라고요? 제가 정확히 어떻게 만졌다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인 : 그의 허벅지 위쪽을 만졌죠?



그레이 : 음, 아니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파우퍼스에서, 당신이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우루야와 당신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죠. 맞습니까?

그레이 : 그가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기억은 없는데요.

변호인 : 서로 옆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68 그녀는 우루야와 그녀의 친구 레이시와 함께 2시 30분경 파우퍼스를 떠났다. 그레이, 레이시와 우루야는 블로어 서쪽으로 배서스트를 향해 걸어갔고, 3분에서 5분 정도 걸렸다.

69 파우퍼스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만한 곳을 찾고 있었다. 열려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었다. 그레이는 칼리지와 배서스트에 있는 우루야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70 『**변호인 :** 그리고 걷는 동안, 우루야가 점점 화가 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동안 그가 당신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는 격양된 말투였고요.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레이시가 택시를 타고 간 후 이 모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레이시가 택시를 타고 가기 전에, 우루야는 레이시에게 자기 집으로 오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가 몇 번 물어봤나요?

그레이 :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집으로 와서 술 더 마시자, 이런 권유였다고 기억해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물어봤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고, 몇 번 물어봤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가 싫다고 했는데도 그가 끈질기게 물어봤거든요. 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도요.

변호인 : 당신도 그녀에게 같이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했지요?

그레이 : 제가 그녀에게 권유한 기억은 없는데요.

변호인 : 그랬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그레이 : 가능성은 있죠.

변호인 : 그래서- 당신은 그날 저녁 우루야가 레이시에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 저와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레이 : 아마 그것이 그의 의도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당신들은 먹을 곳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그래 볼까 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우루야가 레이시에게 자기 집으로 와서 먹고 술을 마시자고 했던 건지는 모른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레이 : 그의 의도는 몰랐어요- 음,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차 문을 닫고- 떠나기 전까지는 그가 왜 그녀에게 물어보는지 그 의도를 몰랐어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우루야가 레이시에게 어떤 성적인 언급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죠?



그레이 : 제가 들은 바로는 없었어요.』

71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가 레이시를 초대한 것에 대해 당신이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는, 질투가 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레이 : 질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집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우리가 다 같이 놀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질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의 문제였어요.

변호인 : 하지만 비합리적이지는 않죠-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술집에 갔던 후 2차로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까?

그레이 :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간 적은 있어요. 네, 예전예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술집에 간 후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저와 동의하시죠? 맞습니까?

그레이 : 그게 이상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가 굉장히 고집을 부린 점은 이상했어요. 저한테는 말이에요,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왜 레이시가 불편해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레이 : 그녀의 목소리 톤이나, 그녀가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 네가 택시 잡는 걸 도와줄게.” 이랬죠. 그게, 별일도 아니었는데 그는 자꾸 같이 가자고 밀어붙였고 그녀는 계속 싫다고 말했어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변호인 : 그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에게 굉장히 자세한 상황을 알려 주셨죠?

그레이 : 그러네요.』

72 『그레이 : 네. 그리고 레이시도- 저도- 솔직히 말해서, 레이시와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기억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변호인 : 그 사건의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레이 : 대부분 레이시와 얘기했고, 그게 다였어요. 다른 사람과는 얘기한 적 없어요. 제 상담사랑 얘기했고, 그게 다예요.

변호인 : 1월 30일과 31일에 일어난 사건의 자세한 정황에 대해 레이시나 상담사 이외의 사람과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레이 : 그렇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레이시와 그렇게 친하지는 않죠. 맞습니까?

그레이 : 별로 친하진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변호인 : 음, 우루야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과 레이시가 무슨 상관이 있죠?

그레이 : 그가 왜 우리 세 명이 그의 집으로 가서 섹스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와는 상관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가 없던 동안 술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녀와 그 일에 대해 얘기를 했죠.』

73 『**변호인** : 당신은 우루야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2주차 즈음부터, 그가 당신에게 관심을 잃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실망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74 『**변호인** : 그러면, 당신은 왜 그에게 화가 났던 겁니까?』

75 『**그레이** : 그러니까, 그와 어느 날 밤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날 그는 계속 짜증을 부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는 몸이 아팠어요. 기억나요. 그는 아팠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 그렇게 최악으로 굴었고, 저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집에 간다고 했고, 저는 그의 집에 제 물건들을 많이 놔두고 와서, “알겠어. 그럼 나는 너랑 같이 갈게. 너네 집에서 내 물건들 가져온 다음에 다시 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 거야.”라고 했죠.』



76 『변호인 : 그래서, 1월 24일은 토요일이었고, 1월 23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며칠에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레이 :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이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 그럼, 그 즈음에, 당신은 우루야와 만났고 저녁에는 당신의 친구들과 만난 겁니까?

그레이 : 네.』

77 『변호인 :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루야의 집에 어떤 물건을 두고 오셨나요?

그레이 : 그냥 뭐가 좀 들어있는 배낭이요. 그리고 술집이 바로 그의 집 근처여서 그냥 거기다가 놔두고 나왔어요. 그걸 들고 칼리지가 (College street)를 걸어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변호인 : 알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당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우루야의 집에 다시 가서, 당신의 배낭을 가지고 간 건가요?』

78 1월 24일 토요일에 그들은 만났고, 그 후 27일 화요일까지는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다.

『변호인 : 알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우루야에게 “안녕, 뭐 해?”라고 메시지를 보냈지요?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그는 “그냥 늦은 저녁식사 중이야.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아. 너는?”이라고 답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나도. 몸은 좀 낫고 있어? 보고 싶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약간 나아졌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잘됐다. 몸조리 잘해. 오늘 회의도 늘 그렇듯이 드라마틱했다며.”라고 답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그는 “고마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익숙해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나도 보고 싶어.”라고 답합니다.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이제 화해하자.”라고 답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79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건 이전에, 택시를 혼자 타 본 적이 있죠?

그레이 : 네. 하지만 몇 주 전에 피어슨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택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어서, 그 끔찍한 경험 때문에 조금 불안했어요.』

80 『변호인 : 그리고 다시 24일 저녁, 우루야가 당신과 당신 친구들 모임에 합류했을 때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은 우루야의 집으로 당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돌아갔었다고 저희에게 설명했죠. 맞습니까?』

81 『그레이 : 그때 저는 그가 제 요구사항들을 별로 고려해주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별로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왜 나를 무시하지? 정도의 생각이 들었어요.』

82 『그레이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는 그의-, 저희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고, 혹은 그가 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도 그는 그제, 그는 포르노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틀어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바로 저와 섹스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 하지 않을 거라고, 이곳에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는 저에게 화



가 나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어차피 나도 너 따먹고 싶지 않아¹²⁾”나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제 요구사항들을 들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떠났고, 다 필요 없어, 집에 가야지, 아 그게 아니고, 죄송해요, 집에 가기 전에 짐을 챙겨서 떠나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원했던 방식의 성적 접촉이 아니었거든요.

변호인 : 아무튼 당신은 짐을 가지러 갔다는 거죠?

그레이 : 맞아요. 그게 그는, 그는 별로 몸이 좋지 않았고 집에 가거나 잠을 자거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변호인 : 그리고 떠나겠다고 마음먹기 전까지 그곳에는 얼마 정도 머물렀습니까?

그레이 : 어, 아마 15분 정도요.

변호인 : 몇 시쯤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레이 : 네. 저녁때였고, 음, 9시나 10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83 『**변호인** : 좋습니다. 그럼 2015년 1월 31일, 파우퍼스에 갔다가 우루야의 집으로 갔던 날로 다시 돌아가죠. 누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신이었나요, 우루야였나요?

그레이 : 기억이 안 나요.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가 먼저 들어갔겠죠.

변호인 :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때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까?

그레이 : 꽤 추웠으니까 아마 입고 있었을 거예요.

변호인 : 당신은 그냥 신발을 신고 있었나요, 아니면 부츠를 신고 있었나요?

12) 원문 표현은 “Well, I don’t want to fuck you anyways”

그레이 : 그날 저녁 제가 뭘 신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 신발을 벗은 것은 기억나십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외투를 벗은 것은 기억나십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외투를 어디에 벗어 뒀는지, 아니면 외투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레이 :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일어났을 때 외투를 입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그레이 : 그렇습니다.』

84 『변호인 : 알겠습니다. 당신은 일어났을 때, 브래지어와 민소매 셔츠만 입고 있었죠?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바지나 팬티를 벗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그렇다면, 당신 스스로가 벗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레이 : 저는, 네, 그건- 아니요- 저는 기억이-, 팬티는 제가 벗지 않은 건 확실한데, 바지는 아마 제가 벗었을 수도 있겠네요.

변호인 : 그렇지만 경찰에게 진술하셨을 때, 당신이 바지나 팬티를 벗은 기억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아마 그건, 저는 그와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팬티를 벗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스스로 팬티를 벗지 않았다고 확신



하는 이유예요. 바지는 벗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평소에 자주 민소매 셔츠에 팬티만 입고 잠드니까요. 하지만 저는 팬티까지 벗고 자는 적은 거의 없고, 그게 제 주장의 이유입니다.

변호인 : 글썄, 저는...

그레이 : 팬티까지 벗고 자는 것은 평소의 저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85 『**변호인** : 저는 당신이 경찰에게 바지나 팬티를 벗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진술을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그레이 : 음, 아뇨.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알겠어요. 저는 그냥 - 저는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고-, 제가 그러지 않았을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바지나 팬티가 벗겨진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맞아요. 정확히 언제 그 일이 일어난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여쭙본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는 경찰에게 “제가 제 바지나 팬티를 벗은 기억은 없어요.”라고 진술했던 것이 기억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레이 : 알겠습니다. 기억나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 바지나 팬티를 벗은 기억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점에서는 저와 동의하시는군요.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당신이 스스로 바지나 팬티를 벗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레이 : 그게, 가능성은 있겠지만, 팬티까지 스스로 벗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변호인 : 기억나지 않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때 의식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 사건이 세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우루야가 바지를 벗거나 옷을 벗는 장면도

기억나지 않겠죠?』

86 『변호인 : 그래서, 다시, 당신이 그의 옷을 벗겼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레이 : 저는— 저는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요.

변호인 : 하지만 기억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레이 : 저는 그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변호인 : 하지만 기억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레이 : 그 상황에 끼지 않았다는 기억은 있어요. 정확한 진술을 다시 읽고 싶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음, 저는—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진술이요,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리 형사는, 1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벗었나요?”, 우루야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생각 중이에요, 네, 옷을 벗었어요. 제가 일어났을 때 그의 옷이 침대 위 제 옆에 있었으니까, 벗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이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희미하게만 기억나요. 하지만 그가 저에게 그 짓을 했을 때 속옷이나 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기억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옷을 벗었을 거예요.” 제가 맞게 읽었나요?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루야가 옷을 벗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저와 동의하십니까?』

87 『변호인 : 하지만 당신은 경찰에게, 당신이 그의 옷을 벗기지 않았다고는 진술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그레이 : 제가 경찰에 진술했을 때 한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꼬투리 잡아서 살펴봐야 되는 건가 보네요. 저는 그의 옷을 벗기지 않았고, 그도— 그가 옷을 벗었는지 여부나 언제 옷을 벗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변호인 : 그래서 당신은 우루야의 옷이 어떻게 벗겨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그레이 : 그의 옷이 벗겨진 것에 있어서 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88 『변호인 : 당신은 우루야와 함께 그의 집으로 걸어갔던 것을, 굉장히 불편한 상황으로 기억하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불편하다는 단어가 맞을 것 같네요.

변호인 : 방금 편하다고 하셨나요 불편하다고 하셨나요?

그레이 : 불편하다고요.

변호인 : 그는 당신에게 고향을 지르고 소리를 쳤죠. 맞습니까?

그레이 : 고향을 지르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를 향한 말투가 거칠어졌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난 말투였어요. 화가 나 있었어요,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그걸 언어적 폭력이라고 정의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당신이 레이스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하지 않아서 우루야가 당신에게 화가 난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했죠. 맞습니까?』

89 『변호인 :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루야에게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 것에 대해 우루야가 화가 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레이 : 네, 그래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여자친구에게 들길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화를 낸 것을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그레이 : 음, 네.

변호인 : 우루야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그레이 : 어렵פות하게 기억해요.

변호인 : 그의 방으로 바로 들어간 것을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우루야가 콘돔을 쓰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그레이 : 네.

변호인 : 감사합니다. 성행위를 하기 전 당신이 운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레이 : 아니요. 우리는— 저는 강간당한 후에 울었어요.

변호인 : 자, 우루야가 당신과 어떤 방식으로 성행위를 했는지 묘사하셨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신은 우루야가— 우루야가 당신의 머리 뒤쪽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했죠?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저희에게 다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레이 : 이렇게...』

90 『**변호인** : 알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머리 뒤쪽의 포니테일 혹은 올림머리 부분을 잡고 있네요?

그레이 : 네. 그렇지만 그가 어느 쪽 손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단지 상황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그는 일어서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요. 그는 그가 하려던 말을 했고 그리고, 그리고 그는 제 머리를 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고 저는 그가 어느 쪽 손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그제 그제 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네, 그래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혹은 왼손을 썼지만 양손을 다 쓴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레이 : 양손을 다 쓴 것은 아니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당신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우루야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머리를 그의 성기로 잡아당겼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그때 우루야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레이 : 그가 그때 뭘 입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 아침에 우루야의 집에서 나와서 당신은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그렇습니다.

변호인 : 누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나요?

그레이 : 밀렌이요.』

91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루야는 어떤 자세로 있었습니까?

그레이 :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옆의 움직임을 느껴서 잠에서 깬고, 그는 자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는 제 눈이 떠진 걸 봤고 제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싫다고 말했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변호인 : 음, 우루야는 어떤 자세로 있었나요? 앉아 있었나요, 일어서 있었나요, 누워 있었나요?

그레이 :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나요, 덮여 있지 않았나요?

그레이 :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호인 : 당신은 그의 성기를 볼 수 있었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럼, 이불이 덮여 있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이불이 머리 위로 올려져 있었던 건가요?

그레이 : 그렇다면 아마 이불이 덮여 있지 않았던 것 같네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어떤 자세였습니까?

그레이 : 일어났을 때는 누워 있었어요- 그는 제 왼쪽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가 왼쪽에 있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처럼 웅크려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벽 쪽을 보면서 웅크린 자세로 잠들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퀸 사이즈 침대죠. 맞습니까?』

92 『변호인 : 그래서, 당신은 잘 때 벽 쪽을 보고 잤습니까?

그레이 : 기억이 안 나요. 일어날 때 벽 쪽을 보고 있었으니 그랬겠네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눈이 벽 쪽을 향하고 있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레이 : 그리고 저는 옆에서 움직임을 느껴서 몸을 약간 옮겼고, 그래서 그가 자위를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가 당신의 머리를 잡아당겼을 때 한 손을 썼나요? 아니면 양 손을 썼나요?

그레이 :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가 당신의 머리를 잡아당기려고 했을 때- 잡아당기려고 시도했을 때, 그가 당신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긴 것을 제외하고, 당신의 다른 신체적 부위에도 접촉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레이 : 무슨 뜻인가요?

변호인 : 당신의 입에 성기가 닿았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저는- 그는 세계 잡아당기지는 않았어요. 그건 마치, 음, 정확히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난폭하게 잡아당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마치 “어, 너 일어났구나. 나는 지금부터 너에게 내 성기를 빨아주지 않겠냐고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저는 울면서 잠들었고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다음날 제가 일어났을 때 괜챦냐고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제 의식이 돌아왔고 술에서도 깬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일어서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건- 힘을 썼다든가 그런 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그의 그런 행동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저는 그 행동이 전혀 달갑지 않았어요.

변호인 : 당신은 일어날 때 우루야 위를 타고 넘어갔습니까?

그레이 : 이걸 벌써 1년 전 일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침대 끝 부분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 옷이 침대 끝에 있어서, 저는 옷을 입고 그곳을 나갔어요.

변호인 : 우루야와 대화를 했습니까?

그레이 : 제가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아마 경찰 진술에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진술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싫어, 네가 또 이런 짓을 나에게 하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야.” 아니면 “싫어, 난 안 할 거야.”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레이 :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혀 동요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변호인 : 저는 그날 아침의 사건이 사실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루야가 당신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당신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레이 : 음, 그렇다면, 그가 제 옆에서 그냥 자위만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93 『**변호인** : 저는 당신이 일어나서 바로 옷을 입었고, 그때 우루야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94 『**변호인** : 저는 당신은 일어나서 코트를 입고, 우루야를 노려보면서 지갑을 챙겨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레이 : 아마 저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노려보기는 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변호인 : 당신은 그날 아침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싫어, 네가 또 이런 짓을 나에게 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혹은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95 그의 침실은 긴 복도에 위치해 있는 맨 첫 번째 방이다. 그녀는 다른 방문이 열려 있었는지 혹은 닫혀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아침에 근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기는 했다.

96 그레이는 맥주를 계산하는 데 쓴 40달러가 맥주 네 잔 정도의 가격일 거라는 데에 동의했다. 따라서 그녀는 40달러어치의 맥주 네 잔, 혹은 친구의 맥주까지 그녀가 계산했다면 그것보다 더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 그날 밤 그녀는 총 맥주 일곱 잔 정도를 마셨다. 그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칸막이석 안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의 발음은 정확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행동했다. 그녀는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파우퍼스나 빅토리 카페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97 그녀가 추측하기로는 저녁 7시 정도쯤 그녀는 빅토리 카페에 도착했다. 그녀는 그날 밤 피고인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파우퍼스에서, 바 옆에 서 있었던 그에게 그녀는 그날 밤 그의 집에서 자고 갈 수 있냐고 물었다. 그때가 유일하게 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그녀가 목격한 때였다. 1월 31일, 그녀가 우루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직도 그녀에게 꽤 화가 나 있었고, 말투는 매우 거칠었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가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었다. 매우 거친 말투이기는 했으나, 그녀는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98 『**변호인** : 당신은 그가 소리를 질렀다고 경찰에게 진술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레이 : 네. 진술의 그 부분을 다시 읽을 수 있나요?

변호인 : 물론이죠. 그러니까, 14페이지, 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배리 형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부터 시작하죠. 그의 집 안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저희는 집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의 방으로 갔고, 저는 그의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그는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그냥 잠이나 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네, 저는— 네.”입니다.』

99 『**변호인** : 저는 당신이 방, 그러니까 우루야의 방에 들어갔을 때, 당신 스스로 옷을 벗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레이 : 제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요?

변호인 : 맞죠?

그레이 : 음, 아니요. 그렇게 진술한 적 없는데요.

변호인 :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그는 일어서 있었어요. 저는 방으

로 가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변호인 : 저는 당신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벽 쪽으로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그게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변호인 : 저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레이 :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변호인 : 자, 우루야도 옷을 벗었죠.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변호인 : 그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당신 옆으로 갔죠.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100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우루야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댔죠?

그레이 : 그날 밤 저희는 한 번도 키스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레이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 저는, 당신이 먼저 우루야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댔고 우루야가 따라서 기대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판장 : 뭐라고 하셨습니까?

변호인 : 저는 그녀가 먼저 우루야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댔고 우루야가 따라서 기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 :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키스한 적이 없고, 저는 그에게 키스하려고 시도하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변호인 : 저는 우루야가 당신에게 “난 섹스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



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그가 그렇게 말했었다면 정말 좋겠네요. 제 말뜻은,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변호인 : 우루야는 당신에게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그는 “나는 너를 따먹을 거고 너도 그걸 좋아할 거야.”라고 했어요. 제가 진술한 대로 그는 말했어요.

변호인 :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우루야는 당신에게, 우리는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하지만 그는 이걸 저에게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술집에서 그와 당신이 함께 있었을 때, 당신의 행동이 창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그는 그때 제가 술에 취한 걸레처럼 굴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창피했다고 했는데, 그는 이걸 제가 침대에 앉아 있고, 그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서 있었던 상황에서, 분명히 명시했어요. 그는 제가 창피했다고 말했고, 술에 취했고 문란하게 굴었다고 했고, 저와 엮이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네,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101 『**변호인 :** 당신은 그에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라고 말했죠?

그레이 : 어디에서요? 그의 집에서요?

변호인 : 그렇습니다.

그레이 : 그의 집에서는 대화가 오간 적이 없어요. 그가 일방적으로 저를 욕했을 뿐이었어요. 대화는 없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인 : 그의 집에서 당신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레이 :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변호인 : 저는, 우루야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레이 : 알겠어요. 음, 제가 말했던 대로- 공격적인 말투였기는 했지만, 그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는지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그는-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할게요. 그건 대화가 아니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었고, 그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그건 굉장히,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대화였어요. 대화조차 아니었어요. 대화라는 단어를 쓰기도 싫어요. 그냥 그가 그의 공격성과 지배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변호인 : 저는 우루야가 그날 저녁 당신을 향해 화를 낸 적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그렇다면, 당신이 아까 전에 보여준 문자메시지에서 왜 그가 자기가 화가 나 있었다고 인정했고, 왜 저에게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음, 네, 그는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네, 그는 화가 나 있었다고요. 그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살면서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변호인 : 우루야는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이 화가 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레이 :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변호인 : 보여드릴게요.

... 그레이가 묵독함 ...

그레이 : 그래요. 알겠어요. 당신이 맞네요. 화가 났다(angry)고 한 적은 없고, 기분이 나빴다(upset)고 했네요.』

102 『**변호인** :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가 “일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



해”라고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네요.』

103 『변호인 : 이건 2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52분의 메시지입니다.

검사 : 2월 5일 목요일 11시 오십- 저에게는 그게 없는데요.

변호인 : 나중에 다시 짚고 넘어가죠. 하지만 저는 재판장님께서 당신이 보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메시지에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보낸 메시지를요. 메시지의 내용은 “일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때 기분이 나빴었고 네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나의 실수를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입니다.

이게 문자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104 『변호인 : 나중에 우루야에게 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더 설명하게 하도록 하죠. 저는 1월 30일에 일어났던 말싸움, 혹은 그날 일어났던 사건들이, 사실은 우루야가 당신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과 헤어지려고 했고...

그레이 : 하지만...

변호인 : ...그리고 나서 성행위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레이 : 저와 헤어지려고 했다고요? 아니요- 네, 그와 가볍게 사귄 것은 맞지만, 저는...』

105 『변호인 : 우루야가 그때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잘 모를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루야가 말하는 의견 충돌이라는 것이, 그가 당신을 강간했다는 말이 아니라, 헤어진 뒤에도 성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레이 : 죄송해요. 질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저희가 헤어졌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는 저와 이제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 분명히 말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과

역일 필요성을 찾지 못했어요.』

106 『**변호인** : 우루야는 당신에게 “여자친구가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는 끝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 음,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레이 : 그는 비밀로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변호인 : 저는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신과 헤어졌고 당신은 울기 시작했죠?

그레이 : 아니요. 언제요? 언제 제가 울었는데요?

변호인 : 성행위를 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레이 : 아니에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이 우루야의 집에 도착한 후, 당신은 침대로 가서 그에게 키스하려고 몸을 기울였고, 그는 “안 돼, 이 관계는 끝났어. 너랑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아”라고 했고, 당신은 울기 시작했죠?

그레이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잘 우는 성격이 아니고, 그가 저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해도 울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당신이 울고 있는 동안 당신을 달래려고 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그는 그 일이 있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달래 주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위로해 주거나 제 기분을 낮게 해주려고 한 적이 없어요.

변호인 : 그리고 그가 당신을 달래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서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그레이 : 그날 밤 저희는 키스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우루야의 위에 올라탔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그리고 오럴 섹스를 해주기 시작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네 발로 었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뭐라고요? 아니에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가 일어나서 당신과 후배위 자세로 성행위를 하기 시작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그는 저와 굉장히 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네요. 저는 이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고--그런 일들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변호인 : 우루야는 콘돔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우루야의 성기를 당신의 성기에 삽입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이 우루야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당신이 그에게 생리 주기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레이 : 생리 주기를 체크하기는 해요. 맞아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에게 그렇게 말했죠. 맞습니까?』

107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우루야가 당신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느꼈다고요?

그레이 : 저희 둘이 있던 그 상황에서는 항상 그의 요구가 우선되었어요.

변호인 :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에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108 『그레이 : 네. 그러니까, 그가 저에게 “만지지 마”라고 했던 게 좋은 예가 되겠네요. 그건 대화조차 아니었어요. 저는 그를 만진 적이 없었으니까 그건 정말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당신이 어제 말한 것처럼, 그를 술집에서 더듬은 적이 없어요. 그가 “만지지 마”라고 했던 건 완전히 밀도 끝도 없이 나온 소리였어요. 이게 그가 저나 다른 여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여자에게 거만하게 굴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예요.』

109 『변호인 : 그럼, 우루야가 당신을 강간한 후, 당신은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갔죠.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친구에게는 그 성행위에 당신이 확실히 동의했다고 느끼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원하신다면, 제가 말했던 그대로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변호인 : 당신은 경찰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는데요…

그레이 : 저는— 문자메시지를 읽을게요.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녀에게 “어젯밤에…”

재판장 : 음, 시간 순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요. 당신이 집으로 간 후 이 일들이….

그레이 : 네.

재판장 : 일어났을 때요.

그레이 : 알겠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제가 말하는 메시지는 제-, 고소인이 우루야의 아 파트를 떠났을 때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전 9시 45분에 당신은 “나는 그 섹스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죠?

그레이 : 네. 그리고 저는 그 문자메시지들을 갖고 있고 어젯밤에 한 번 다시 훑어봤어요. 저는 “어젯밤에...”, 저는...

재판장 : 2월 1일입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제가 알기로는 1월 3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그레이 : 네. 그래서 저는 칼리지와 배서스트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제 친구 밀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왜 나는 항상 폭력적인 사이코들만 만나는 거지?”라고 했고, 그녀는 “무슨 일 이야?”라고 답장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무스타파가 날 덮쳤는데¹³⁾ 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저는 그날 이런 말도 했어요. “모르겠어. 난 동의한 적 없어- 하지만 난 동의하지 않은 적도 없어...”라고. 제가 거부감을 확실히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했어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그 문자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레이 : 네. 제 핸드백에 있어요. 인쇄를 해 왔어요.』

『**그레이** : 그래서 저는 2015년 1월 31일 오전 9시 43분에 밀렌 에 니센시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난 왜 항상 폭력적인 사이코들만 만나는 거지?”

오전 9시 47분에 그녀는 “무슨 일이야?”라고 답장했어요.

13) 원문의 표현은 Fucked me.

저는 “무스타파는 사이코야. 일어나 보니까 개가 날 덮쳤던 걸 알았는데 난 하고 싶지 않았어. 개가 15분 동안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투로 얘기했으니까.”라고 답했어요.

오전 10시 10분에 그녀는 “괜찮아? 진짜 심각한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 그냥 진짜 화났어. 일어났더니 개가 내 머리를 잡아당겨서 오럴 섹스를 시키려고 하고 있었어.”라고 답장했어요.

그녀는 “뭐라고? 미친놈이네.”라고 답장했어요.

저는 “그치”라고 했어요.

그녀는 “개 아직도 너랑 같이 있어?”라고 했어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아니, 개네 집에서 있었던 일이야. 난 방금 내 집에 도착했어.”라고 답장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너도 개한테 욕해 줘?”라고 했어요.

저는 “아니, 의미가 없잖아? 개는 계속 내 탓으로 돌리고-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내 탓만 했어.”라고 했어요.

그녀는 “와, 개 완전 사람을 조종하고 농락하는 것 같아.”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렇지. 개랑 더 이상 알고 지내기 싫어.”라고 했어요.

그녀는 “개랑 다시 만나는 건 너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라고 했어요.

저는 “개 여자친구보고 그냥 개 가지라고 해.”라고 했어요.

그녀는 “내 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개는 날 만날 때마다, 점점 폭력적이 돼 가.”라고 했어요.

그녀는 “개가 가끔씩은 착하게 굴고 좋은 말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네가 방금 나한테 말해준 것만 들으면, 개는 너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에 진술할 때도 이대로 말했어요. “그게, 섹스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동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그녀는 “그건 강간이야. 정말로.”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너 지금 상황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그게 맞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너 술 취했었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분이 더러워. 거의 필름 끊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어. 개가 나한테 술에 왜 이렇게 취했냐, 왜 그렇게 애정결핍처럼 구냐, 이제 다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됐고 다 네 잘못이다, 등등에 대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 밖에 기억 안 나. 그리고 나는 그때, 개가 지금 그냥 날 죽이던가, 날 덮치던가 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깐, 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녀는 “맨디,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너는 필름 끊길 정도로 술 취해 있었고, 너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했고, 개는 너에게 소리를 질렀어. 난 네 친구고 널 사랑해. 난 네가 개한테서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넌 이거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면 너는 점점 더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야.”라고 답장했어요.

그리고 오전 10시 23분에, 저는 “네 말이 맞아. 짜증나는 건,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같은 술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 너 개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알아? 나한테 내가 쓰리썸 할 사람을 더 열심히 찾아보지 않았다고 했어. 개는 내 친구 한 명을 더 초대하려고 했고 내가 그 친구를 설득하지 않은 거

에 대해서 화를 냈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맞아. 그리고 난 네가 정말로 개랑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렵잖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응, 알아요. 하지만 나 이제 정말로 개 근처에도 있기 싫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진짜 뭐야 미친놈. 와, 개가 그렇게 쓰레기 같은 놈인지 몰랐어.”라고 했어요.

저는 “그치. 걔 그냥 자기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대상화하는 거야. 그리고 욕구 충족이 안 되면 미친 짓을 해서 무서워.”라고 했어요.

아니,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그리고 저는 “응. 걔 사이코야.”라고 했어요.

그녀는 “맞아.”라고 했어요.

저는 “나 정말 화났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를 차단하고 연락처를 지우는 게 맞겠지? 휴가 받아서 정말 다행이다. 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했어요.

오전 10시 40분에 그녀는 “응, 나도 너한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개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고 답장했어요.

그리고 저는 “응, 다행이야. 나 정말 사이코들 많이 만났다. 진짜 짜증나.”라고 했어요.

그녀는 “너 나중에 외로워지면 개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만나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면 더 기분만 안 좋아 질 거야. 개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사람을 조종해댈 줄이야.”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 뭐 쓰레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기분이 상해 있고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날 덮치려고 하면 안 되지. 우리 관계는 한 일주일 동안은 재미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재미없었어. 난 개가 그냥 그날따라 기분이 나쁜 줄로만 알았지. 하지만 알고 보니 개는 그냥 끔찍한 여성혐오자였어.”라고 했어요.

그녀는 “내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2주 동안 정말 끔찍했어. 개는 항상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개한테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랑 다른 것들도 다 그만두고 그랬어. 너무했어.”라고 했어요.

그녀는 “응, 개는 진짜 사이코고, 내 생각엔 개가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는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대화들이 이어져요.』

110 『**변호인** : 그래서, 당신이 읽어주신 메시지들 중 하나에 따르면, 당신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섹스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동의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맞습니까?

그레이 : 맞아요. 제가 확실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어요. 경찰에게도 이렇게 진술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싫다고- 싫다고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레이 :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로 표현한 적은 없었고,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111 『**그레이** : 아니요. 그리고 저는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했다고 한 것에 대해 진술과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냥 그때 굉장히 취해 있었다는 뜻이었고,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인정해요.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한 적은 없고, 그냥 많이 취해 있었어요.』

증거물 2: 2015년 1월 31일의 문자메시지들, 생산 및 보증됨.

증거물 3 - 그레이의 진술- 2015년 2월 2일 월요일, 생산 및 보증됨.

112 『**변호인** : 당신은 친구와 대화를 마친 후에도 하루 반 정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죠.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 후에도, 당신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113 그 후, 그레이는 그녀가 아침에 대화를 나눴던 사람과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월요일 아침에 그녀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임을 알렸으나, 사건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114 『**변호인** : 하지만 2월 2일 오후까지 기다린 후 그를 신고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이에 대해 변명을 하자면, 법적절차까지 가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경찰에 신고한다면 학교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고하기 전에, 요크 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저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된 이후에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신고하기 전에 대학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려웠거든요. 그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말 동안 기다렸어요. 주말에는 당연히 사무실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 대학원 과정 담당자와 캐나다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어제 제가 당신에게 말씀 드린 것처럼요. 저는 그러니까, 네,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싶었어요.

변호인 : 당신이 폭력적인 강간범을 신고할 것인지 말지 여부는, 이후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달려 있었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그레이 : 음, 저는 이 사건이 제 경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고 싶었



어요. 저는 제 박사과정에서의 모든 성취가 이 사건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변호인 : 그래서, 당신에게는 당신의 경력이, 폭력적인 강간범이 길 거리를 나다니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건가요?

그레이 :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변호인 : 당신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그게 당신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저는 당신이 폭력적인 강간범이 길거리를 나다니는 것보다 당신의 경력을 더 중요시했다고 보는데요?

그레이 : 저는...

115 검사 : 재판장님, 방금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방금 질문은 증인의- 첫 번째로, 진술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사실들을 마치 참이라고 가정하고 있고, 증인은 캐나다의 길거리를 범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건- 방금 질문은- 질문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피고인은 바로 여기 앉아 있고-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풀려났습니다...」

116 변호인 : 『그래서, 저는 당신이 당신의 경력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보는데요...』

그레이 : 네. 제 경력도 하나의 고려사항이었죠. 하지만 저는 캠퍼스 내의 다른 여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려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와 같은 단과대학의 여성들에게 그가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제가 제 경력을 더 중요시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한 일들은 저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제 경력을 더 손상시켰으니까요.

변호인 : 왜 당신의 경력이 손상되었다는 건가요?

그레이 : 음, 일단 저는 공론화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이고, 무엇보다 요크 대학교라는 몇 백만 달러 규모의 거대 법인이 이 사건의 대처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고, 그리고 저는 학계에 몸담고 있으니까요. 제 경력에 유리한 점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17 『변호인 : 저는 당신이 신고하기까지 3일씩이나 걸린 이유가, 이야기를 생각해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생각이요? 생각하기는 했죠. 저는 생각했고- 저는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처럼 상황을 부정했어요. 저는 어떻게 저에게 친절했던 사람이 별 이유도 없이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고- 네, 당연하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게 특이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변호인 : 당신은 우루야가 여자친구에게 돌아가려고 당신과 헤어졌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 것이 아닌가요?

그레이 : 죄송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저는 고작해야 2주 밖에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제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꼬박 일 년의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네, 완전히 틀려요.』

118 『변호인 :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우루야의 집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로부터 유리된 상태였어요.』

119 『변호인 : 그러니까, 택시 문이 닫히고 우루야가 처음 당신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그때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레이 :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돌아가지 않은 걸 이제 평생 후회해야 할 것 같네요.



변호인 :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아직 꽤 높은 상태였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하지만 당신은, 그는 예전에도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고, 이 사람과 집에 같이 가기 싫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그가 저를 강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120 『변호인 : 저는 이게 당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 : 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때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변호인 : 당신이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집에 가지 않았죠?

그레이 : 확실히 집에 가지 않았어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우루야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당신의 자존감은 떨어져 있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렇게 2-30분을 걷는 동안, 지나가던 사람을 불러 세우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우루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을 취한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그런 적은 없어요.

변호인 : 레이시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것보다 우루야의 집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긴 거죠. 맞습니까?

그레이 : 저는 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까지 심하게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의 집으로 가면 잠을 잘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변호인 : 그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당신을 비난했고, 소리를

질렸고, 길거리에서 당신을 향해 고함을 질렀는데도 당신은— 제 말은, 당신은 이미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칠 수 있을 때 최대한 도망쳐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레이 :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1월이었고, 굉장히 추웠고, 저는 술집에서 돈을 다 써 버렸고, 대중교통은 끊겨 있었어요. 그냥— 그나마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선택한 거였어요. 똑같이 별로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것을 고르는 거였어요.

변호인 : 하지만 핸드폰은 가지고 있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핸드폰은 있었어요.

변호인 :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레이 : 할 수는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변호인 : 바로 몇 분 전에 레이시와 헤어졌는데 레이시에게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레이시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 대신에 당신은, 당신을 비난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 있는 사람의 집으로 따라갔다?

그레이 : 그렇습니다.

121 『변호인 : 제가 알기로는 우루야가 “레이시가 같이 안 와서 아쉽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네. 그는 레이시가 같이 오지 않아서 실망했어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나로는 충분하지 않아?”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어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충분해.”라고 대답하고, 당신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죠?

그레이 : 아니요. 저희는 손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날 그의 집으로 걸어갈 때 저희 사이에는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어요.』

122 『변호인 : 제 생각에는 우루야가 당신과 레이시와 함께 쓰리썸을 하고 싶어했다는 것은 당신만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레이 : 그는 그녀가 차에 타자마자 저에게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는 쓰리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요.

변호인 :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과 레이시와 우루야 사이에 쓰리썸에 대한 대화는 오고간 적이 없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그래서 매우 놀랐던 거예요.

변호인 :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놀랐던 겁니까?

그레이 : 네. 그리고 레이시가 여기 있으니까, 그녀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건 마치-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매우 놀라웠어요.』

123 『변호인 : 당신은 성행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진술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의 머리를 잡고 당신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고 했죠?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가 그럴 동안 당신의 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레이 :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 그의 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레이 :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은 제 머리 뒤쪽을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잘 모르겠어요.

변호인 : 당신은 그를 밀치지 않았죠?

그레이 :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겁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인 : 그가 당신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죠?

그레이 :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였어요.

변호인 : 당신도 그것을 예상했습니까?

그레이 : 저는 그때 위협과 공포를 인지했고 그 상황에서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섹스를 하는 것, 그가 저를 강간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그에게 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이전에 그가 당신을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죠?

그레이 : 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어요.

변호인 : 제 생각에는 당신이 그 상황 당시에 신음소리를 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우루야가 당신의 머리를 잡고 당신의 입 속에 성기를 넣었을 때, 당신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그레이 :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그는 일어서 있었어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앉아 있었습니까? 침대에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있었습니까, 혹은 두 다리 모두...

그레이 :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요.

변호인 : 의자에 앉는 것처럼요?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움직였습니까?

그레이 : 그가 저에게 오럴 섹스를 강요했을 때요? 아니요.

변호인 :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그레이 :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 1분, 2분?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5분? 10분?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그레이 : 10분까지는 아니었어요. 우루야는 저와 섹스를 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네,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몇 분 정도였을 거예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앉아 있었습니까, 서 있었습니까?

그레이 : 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인 : 두 다리로 완전히 서 있었습니까?

그레이 : 아마도요. 네.

변호인 : 그가 약간이라도 쭈그리고 있었습니까?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그가...

그레이 : 저는 그때 입 안에 성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 저는 앉아 있었고 그는 성기를 제 입 안에 밀어넣었어요.』

124 『변호인 : 그때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까?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방이 밝았는지 어두웠는지도 몰랐습니까?

그레이 : 그건- 그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은, 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자기 바지를 벗었는지 같은 세세한 상황들은 기억이 안 나요.』

125 『그레이 : 그는 제 머리 뒤를 잡고 제 얼굴이 그의 성기를 향하게 잡아당겼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손을 움직이고 있었네요.

변호인 : 다른 움직임은요?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그가 당신을 침대로 밀칠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레이 : 저는 그때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밀쳤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변호인 : 밀쳐서 쓰러뜨릴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레이 : 잘 모르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걸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가 그의 성기를 제 입에서 꺼낸 바로 후에 그랬고, 그리고 나서는 저랑 섹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인 : 이때 우루야가 소리를 냈습니까?

그레이 : 기억이 안 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변호인 : 우루야가 당신의 어디를 밀쳐서 침대로 쓰러뜨렸습니까?

그레이 : 음, 제가 등을 대고 눕도록 쓰러뜨렸어요.

변호인 :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그레이 : 그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음, 그가 밀친 것은 기억나는 데 저를 밀칠 때 그의 손이 제 어디에 있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고요, 네.

변호인 : 한 손이었습니까, 두 손이었습니까?

그레이 :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 손바닥을 펴고 있었는지, 살짝 건드린 건지, 혹은 세계 밀친 건지도 기억이 안 납니까?

그레이 :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저를 쓰러뜨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알리기에는 충분한 정도였지만 제 상체에 멍을 남길 정도는 아니었어요.

변호인 : 당신은 저항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그레이 : 저항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 그가 당신을 제압하고 있었습니까?

그레이 : 음, 그는 제 위에 올라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는 저보다 무겁고 힘도 더 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변호인 : 하지만 그는-, 우루야가 당신보다 크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손을 쓰거나 해서 당신을 제압한 적은 없죠?

그레이 : 그는 제 위에 올라타 있었어요.」

126 『그레이 : 그의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으세요? 전 몰라요.

변호인 : 우루야는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까?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성행위는 얼마나 지속되었죠?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당신은 그가— 그가 사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다른 체위로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 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 그럼, 계속 우루야가 당신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당신의 발이 침대에서 뺏어 나와 있었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그렇다면, 당신은 그가— 당신이 오컬 섹스를 하고 있을 때에는 침대에 앉아 있었으니까, 어느 순간 침대 위쪽으로 움직인 거군요?

그레이 : 네. 좀 움직였을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루야는 당신을 침대로 쓰러뜨리기만한 거죠?

그레이 : 네.

변호인 : 그렇다면 당신은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위쪽으로 움직인 거죠. 맞습니까?

그레이 : 모르겠어요.』

127 『변호인 : 상담사와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그레이 : 네. 저는 위민스 칼리지 병원에 있는 성폭력 전문 상담사에게 갔어요, 네.



변호인 : 당신은 이런 이야기들을— 당신이 상담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알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상담사에게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이런 식으로 다 말씀했습니까?

그레이 : 당신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다 말하는 식은 아니었지만, 가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떠오르는 걸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그리고 갈 때마다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다른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날그날 제가 말하기로 한 것들에 집중하는 식이었어요.

변호인 : 일 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거겠죠?

그레이 : 아니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폭력적인 말을 하고, 화를 내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그와 계속 만났던 것에 대한 자괴감을 극복해 보려고 한 거고, 그 당시의 제 선택을 정당화해 보려고 한 거였어요.

변호인 : 당신이 그때 성행위에 동의했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신 거죠?

그레이 : 아니요. 저는 첫날부터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싫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지만 저는— 제가— 그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어요.

변호인 : 당신이 그날 아침 친구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법정에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경찰에게는 동의했는지 동의하지 않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저는, 음, 저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더 쉽게 바꿔서 표현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였어요. 강간 직후 보낸 문자메시지들의 정확한 표현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변호인 : 음,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기로 한 것은 당신이 선택한 거고, 당신은 구체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했는지 동의하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저는 계속 배리 형사님께 문자메시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형사님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저는 계속 제가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걸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자메시지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128 『**변호인** : 당신이 문자메시지들을 숨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문자메시지들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경찰에게 진술했을 때, 성행위에 동의했는지 동의하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 제가 했던 진술을 다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변호인 : 물론이죠.

그럼, 18페이지입니다. 긴 진술이에요.

공정성을 위해 단락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배리 형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침에 저는 그가 제, 제, 제 옆에서 자위를 하고 있는 걸 느껴서 잠에서 깬고 저는, 저는, 젼장. 저는 그가 그런 짓을 할지 몰랐어요. 그는 그때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즐기지 못했어요. 저는 그가 왜 저에게 그런 짓을 한 건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울면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일어난 걸 알아냈고, 저를 봤고, 그리고 그는 제 손을 잡고, 그의 성기 쪽으로 저를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제가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마치 굉장히 취해 있을 때처럼, 저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저는, 음, 제가, 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마치,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움직일 힘어요.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니야, 나 지금 술에서 깬 어, 일어날 수 있어. 해도 뺏고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집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싫어, 나 지금 갈 거야, 혹은 나 이제 여기서 나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떠나면서 말했고-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모르겠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일어나서 나갔고 집에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아, 그게 현실 부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친구에게, 저는, 잘 모르겠어, 나- 나 어젯밤의 섹스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정말 싫었다고 말했어요. 난 싫었다고.

저는 그냥, 음, 저는 그냥 몰랐어요.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한숨을 쉽니다. 맞습니까? 제가 맞게 읽었나요?

그레이 : 네, 저는 경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배리 형사에게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신이 경찰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러니까 성행위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당신 스스로가 실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는지 동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음, 저는 그냥 제가 그때 친구랑 나눴던 대화 내용을 진술했고 친구도 경찰서에 저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들이 제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면 그냥 제 친구에게 물어봤으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문자메시지도 가지고 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제 친구와 나눈 대화를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문자메시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건 제가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들을 재현하고, 제가 그날 밤 저희 둘이 섹스를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줬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때 저는 제가 그가 나눴던 대화, 그가 그날 몸이 아프고 피곤했고 화가 나 있었던 사실에 대해 모두 따져 봤어요.』

129 그레이는 그의 집에서 몇 번 자고 갔던 적이 있다. 우루야의 집 부엌에는 소파가 있다. 소파는 부엌 한가운데에 있고, 그의 집은 매우 좁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침실에서 놀았다.

130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럼, 우루야가 당신을 강간한 후, 당신은 그의 침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저는—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엌에 있는 소파로 자리를 옮길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죠?

그레이 : 부엌으로 가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 제 생각에는, 당신은 그날 밤 그의 침대에서 자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레이 :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변호인 : 저는 당신이 그의 침대에서 자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당신이 정확히 원하던 것을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당신의 뜨거운 섹스 말입니다.

그레이 :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날 밤 뜨거운 섹스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변호인 : 당신이 그날 밤이 시작될 때 원래 원하던 것은 그거였죠. 맞습니까?



그레이 : 제가 7시에 그런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뒤에는 그냥 안전한 곳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에 그 집에서 잔 거였어요.

변호인 : 음, 당신은 우루야가 당신에게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섹스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죠?

그레이 : 맞아요. 그래서 그날 밤 저희가 섹스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31 『변호인 : 그럼, 제 생각에는, 우루야가 피곤하고 아프다고 했어도, 당신은 그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네,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죠. 아마도.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 그는 당신의 뜨거운 섹스 제안을 피곤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그렇습니다.

변호인 : 제 생각에는 그가 중간에 마음을 바꿨고, 그날 저녁의 어느 시점에 그것을 당신에게 알렸을 것 같은데요?

그레이 : 어느 시점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를 생각하시는 거죠?

변호인 : 그의 집에 갔을 때 말입니다.

그레이 : 틀려요.

변호인 : 그럼, 당신은 우루야의 집에서 소파로 자리를 옮기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당신은 또 그가 잠든 후, 그의 집에서 나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제가 잠든 후에요?

변호인 : 그가 잠든 후, 우루야가 잠든 후 말입니다.

그레이 : 그가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웅크린 자세로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울다가 밤늦게 기절하듯이 잠들었어요. 새벽 3-4시쯤 이었고, 밖은 굉장히 추웠고, 저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소파로 옮겨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변호인 : 돈이 없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는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레이 : 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었겠네요.

변호인 : 911을 불렀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 그럴 수 있었죠. 네.

변호인 :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레이 : 당신이 맞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변호인 : 당신을 난폭하게 강간한 사람 옆에서 하룻밤 내내 누워 있었던 말입니까?

그레이 : 네. 그리고 그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흔한 경험이지요.』

132 『**그레이** : 척 배리 형사님은 제가 술을 마시고 그의 집으로 갔을 때,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라고 단호하게 주장하셨고, 제가 술을 마셔서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인 : 그리고 그건 당신이 비디오 녹화 진술을 했을 때였습니까?

그레이 : 비디오 녹화 진술 바로 이후였고, 금요일 저녁에 진술을 하고 일주일 뒤에 그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아직 신고는 접수되는 중이었고, 그는 검사들이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고소가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합법적인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그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고소가 성립되었다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제가 신고 과정에서 토론토 경찰과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저에게는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133 『**변호인** : 그랬겠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첫날, 2016년 2월 1일의 기록을 보고 있고, 79페이지 밑에 있는 당신의 신문입니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당신은 “한 부분을 놓쳤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우루야에게 너희 집에서 자도 되냐고 물어봤고,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고 가도 되지만 섹스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안전하게 잘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알겠어.”라고 했어요. 저는 불쾌하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그가 좀 이상한 말을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제 자리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 돌아가서 자리에 다시 앉았고 그 이후에는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이 켜졌고, 저는 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제가 맞게 읽고 있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2월 1일에도 증인 선서를 하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진술을 했죠. 맞습니까?

우루야는 “알겠어,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돼, 나 아파서 너랑 섹스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날 당신이 먼저 그에게 섹스를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완전히 맥락이 없는 뜬금없는 소리는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동의하십니까?

그레이 : 네. 그리고 그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네.

변호인 : 그리고, 그는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되지만 오늘 밤 너랑 섹스하고 싶지는 않아”라고 했는데, 이게 당신이 먼저 그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섹스를 하자고 물어본 데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죠. 맞습니까?

그레이 : 아마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미 몇 시간이 지난 후였고 이미 그 다른 대화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변호인 : 그럼, 제 생각에는 당신은 2015년 1월 30일- 31일, 죄송합니다, 예, 우루야와 쓰리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134 『변호인 :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신이 레이시도 그날 밤 쓰리섬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그리고 저는, 당신이 당신 친구 가젼에게도 그날 밤 우루야와 레이시와 쓰리섬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저는 가젼에게 제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 그게 저와 그 사이 그리고 그와 그녀 사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변호인 : 그럼, 당신은 우루야와 당신의 관계가 가벼운 관계였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레이 : 동의합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위 그날 밤 우루야의 집에서, 당신은 침대 위에서 그에게 키스하기 위해 기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레이 : 아니에요.



재판장 : 뭐라고 하셨습니까?

변호인 : 당신은 그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댔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당신에게, 우리가 같이 자는 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변호인 : 그 시점에서, 저는 당신이 우루야의 집에서 우루야와, 둘 사이의 관계를 끝내자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레이 : 대화는 오가지 않았어요.』

135 『**변호인** : 그래서, 저는 당신들이 둘 사이의 관계를 끝내자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성행위를 하기 전, 당신이 침대에 앉아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레이 :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대화가 아니었고 이야기가 오간 적은 없어요.

변호인 : 그래서, 다시, 저는 당신이 우루야와 성행위를 하기 전, 우루야가 당신과 헤어지려고 했고 그게 당신을 울게 만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이 운 이유는, 제 생각에는, 당신은 가벼운 관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저는 처음부터 그와 사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변호인 :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당신은 우루야의 집 침대 위에서 울고 있었고, 그는 당신을 달래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저는 그가 저를 강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변호인 : 그리고 이때, 제 생각에는, 우루야와 성행위를 하기 전 당신이 울고 있을 때 그가 당신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당신을 달래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레이 : 그는— 저는 그가 저를 강간한 후에 울었어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가 당신을 달래는 도중에, 두 사람은 키스하기 위해 서로 기댔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그날 밤 저희는 한 번도 키스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 그리고 제 생각에는, 두 사람이 키스하고 있을 때, 우루야는 당신에게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그는 “내가 널 따먹는 건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저를 강간했어요.』

136 『변호인 :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루야가 당신에게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그가 일부러 당신이 오해하게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무슨 뜻인가요?

변호인 :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고, 당신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레이 : 음, 저는 그 이후로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그가 저를 강간하기 전에 했던 말들을 제외하면 아무런 대화도 없었고, 당신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후에 그가 저에게 사과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 다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그와 전혀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와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와의 관계를 끝낸 거예요.

변호인 :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당신은 우루야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성행위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레이 : 방금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 제 생각에는, 당신은 우루야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레이 :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변호인 : 당신은 우루야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 그 순간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변호인 : 그 순간에요.

그레이 : 음, 강간을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용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표현했으니까. 아뇨, 그가 저를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 제 생각으로는 당신이 우루야의 바지를 벗겼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합의 하에 그와 오럴 섹스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저는, 당신이 아침에 마음을 바꿔서 이게 우루야와의 마지막 성행위라는 사실에 대해 관찮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당신은...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그리고 제가 보기엔 당신은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뭐가 부끄러웠다는 건가요?

변호인 : 우루야가 당신을 거부한 것이 부끄러웠던 것 아닙니까?

그레이 : 음,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그가 저를 거부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변호인 : 그가 당신을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레이 : 음, 그가 저를 거부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가 저에게 “내가 널 따먹는 건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하기는 했죠.

네, 그걸 거부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거부라고 하죠.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당신과 계속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제 기억으로는 아닌데요.

변호인 : 그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레이 : 음, 제가 이미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며칠 전에 우리 관계를 비밀로 지속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저는 그러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에 흥미가 없어서요.

그리고 더해서, 그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들킬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놀랐는데 이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는 네가 아니라 여자친구를 선택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내 여자친구가 알아낼지도 몰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뇨. 제 생각에 이건 완전히 다른 두 문제인 것 같아요.

변호인 :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날 밤 이후, 당신은 우루야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레이 : 네. 꽤 뻔한 이유요.



변호인 : 그리고 이걸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는 완벽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계획이라뇨?

변호인 : 당신은 사법 체계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왜 제가 그거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굳이 제 인생의 2년을 낭비하겠어요? 아닙니다.』

137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아침에 우루야가 당신에게 또다시 오를 섹스를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맞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그때, 당신은 싫다고 말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그때 저는 술에서 깨 있었고, 낮 시간이었으니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당신은 싫다고 말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변호인 : 당신을 강간했던 남자가 다시 당신에게 오를 섹스를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꽤 트라우마가 될 일이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저는 화가 났어요.

변호인 : 그리고 그건 당신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한 경험이죠. 맞습니까?

그레이 :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변호인 : 이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겠죠...

그레이 : 음, 당신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변호인 : 음, 저는 당신이 이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잊어버릴 거냐고 여쭙어보는 겁니다.

그레이 : 음, 저는 강간당한 경험을 잊지는 않겠지만 세세한 상황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상담 치료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 극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래 전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세세한 정황들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변호인 : 당신은 우루야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아차렸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그레이 : 아뇨, 저는- 저는 제 옆에서 느낌이 와서 알아차렸어요.

변호인 : 그리고 당신은 그걸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까?

그레이 :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제가 일어났다는 걸 알았고, 제 머리를 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어요.

변호인 : 당신은 그걸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까?

그레이 :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재판장 : 죄송합니다. 이건 아침의 이야기입니까?

변호인 : 네.』

138 『**변호인 :** 우루야는 어떻게 누워 있었습니까?

그레이 :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있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는 당신의 머리와 비슷하게 위치해 있었습니까?



그레이 : 기억이 안 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대답하지 않을래요. 모르겠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가 침대 위쪽으로 움직여서 앉았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이불이 완전히 내려져 있었나요?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이불의 일부가 내려져 있었습니까?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우루야가 바지를 완전히 벗고 있었는지, 혹은 입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레이 : 제가 나갔을 때 바닥에 바지가 떨어져 있었던 걸 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는 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어요.

변호인 : 우루야가 어느 쪽 손을 썼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레이 : 자위할 때요? 아니요.

변호인 : 당신의 머리를 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길 때 그가 어느 쪽 손을 썼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레이 : 그가 자위하지 않는 쪽 손이었어요. 모르겠어요.

변호인 : 그럼, 오른손이었는지 왼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까?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죄송합니다. 모르겠다고요?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레이 : 어떻게 빠져나왔냐고요?

변호인 :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그레이 : 저는 “싫어”라고 말했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변호인 : 음,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의 위에 올라탔나요?

그레이 :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대 끝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인 : 음, 당신의 옷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레이 : 바닥에요.

변호인 : 바닥 어디예요?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침대 끝 쪽에 있었습니까, 머리 쪽에 있었습니까?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방 안에 흩어져 있었습니까?

그레이 : 모르겠어요.

변호인 : 옷을 입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레이 : 2분 정도요.

변호인 : 당신은 뭘- 죄송합니다, 옷을 입는 동안 우루야는 뭘 하고 있는지 봤습니까?

그레이 :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

변호인 : 그때도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레이 : 기억이 안 나요.



변호인 : 제 생각에 우루야는, 당신이 옷을 입는 동안, 괜찮냐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레이 : 그는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적 없어요.

변호인 : 그는 “아침 먹고 갈래?”라고 권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루야에게 당신이 이용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제가 그와 했던 마지막 의사소통은 제가 그에게 “어젯밤 완전 개판이었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거고, 그는 “그래”라고 답장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이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강간한 이후 저희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그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를 제외하면 저희는 그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강간 이후 문자메시지를 제외하면 대화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싫어”라고 한 뒤 나갔어요. 그게 제가 그에게 했던 몇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139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당신은 우루야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레이 :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제가 강간당한 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그는 이미 저를 강간했죠. 그러니까, 제가 안심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루야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으니까, 우루야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질문을 고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인 : 음, 제 생각에는, 고메시의 무죄판결¹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고려하면, 우루야가 비슷하게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건 사법

체계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신의 주장에 도움이 되니까, 당신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음, 저는 방금 그 발언이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모든 법조계 분들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정의”가 구현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말했던 위민스 칼리지 병원에 계신 제 상담사를 포함해서요. 사법체계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저는 제 상담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될 것 같네요.

변호인 : 그래서, 당신은 우루야가 무죄판결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레이 : 제가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워요. 제 사건은 그 사건- 그들의 사건과는 달라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예상하는지, 혹은 예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수많은 역사적인 성폭력 사건들 중 하나의 사건이었고, 저는 그 사건이 저의 경험과는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특정 사건과 관계가 있던 것이지 제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요.

변호인 : 그렇다면, 당신은 우루야가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모든 성폭력의 증거는 당신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레이 : 저는 제가 증거의 큰 부분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어요.」

140 『변호인 : 저는 당신이 그날 밤 있었던 일들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고, 우루야가 무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니요.

변호인 : 그리고 저는 당신이 우루야가 무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

14) 유명 방송인 지안 고메시(Jian Ghomeshi)가 세 명의 여성에게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되었으나 판사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을 말함.



고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2015년 1월 31일에 그와 당신이 합의된 성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그레이 : 아니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당신의 머리를 그의 성기로 억지로 잡아 당긴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틀려요.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당신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틀려요.

변호인 : 2015년 1월 31일의 성행위는 백 퍼센트 합의된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틀려요.』

1부. 사실관계

(피해자 맨디 그레이에 대한)
검사 로프트의 재신문



141 『**검사** : 저는 그날 당신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기억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확실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그날 저녁 술을 얼마나 마셨다고 기억하고 있나요?

그레이 : 네, 저는, 아마- 맥주 여섯 잔, 일곱 잔 정도요. 저는, 네, 세세한 상황들은 기억이 안 나요.

검사 :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까?

그레이 :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검사 : 그럼- 알겠습니다.

증거물 1c) 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레이, 당신은 증거물 1-3-1c)- 당신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이 재판에서 볼 기회가 있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검사 : 그리고 당신은 당신 핸드폰에서는 문자메시지 기록을 지웠다고 말했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검사 : 그럼, 1월 19일 월요일 10월 44분부터 시작하는 이 메시지들이 보이세요?

그레이 : 네.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은 이 이전에, 그러니까 16일부터 19일까지 오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레이 :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는- 그는 그 첫 메시지 이전까지는 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바로 그 주말에 처음 만났거든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문자메시지 기록이 당신과 우루야 사이에 오간 모든 문자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레이 : 네, 확실합니다.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당신은 사건 이후 우루야에게 보낸 메시지들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을 받았죠?

그레이 : 맞습니다.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당신이 보낸 메시지는 회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 : 네.

검사 : 그리고 그가 보낸 메시지는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그레이 : 맞습니다.

검사 : 그리고 이게 메시지가 표시되는 방식이 맞죠? 그러니까, 이건 그의 핸드폰으로부터 보내진 거죠?

그레이 : 맞습니다.

검사 : 알겠습니다.

그레이 : 그리고 저희는 둘 다 아이폰의 아이메시지를 썼고, 그리고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마지막 메시지는 초록색인데 이건 왜냐하면…

검사 : 그게 제가…

그레이 : 네.』

『**검사** : 알겠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옷 차림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옷이 어떻게 벗겨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의 옷을 벗겼을 수도 있다고 수 차례 얘기되었죠.

그리고 이걸 제가 다시 명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그의 옷이 어떻게 벗겨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당신의 대답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때 당신이 그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나요?

그레이 : 저는, 제가 최대한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도, 저는 그날 밤 침대에 앉아 있을 때부터 다음날 떠났을 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옷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언제 벗겨졌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제가 그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순서를 정확히 재현해낼 정도의 기억은 남아 있지 않아요.

검사 : 알겠습니다. 당신은 어니스트 에드에서부터 칼리지 남쪽- 칼리지 근처까지 그의 집으로 걸어갔을 때, 그의 말투가 어떠한지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레이 : 네.

검사 : 그래서, 그가 공격적이었는지, 소리를 질렀던 건지 혹은- 더 명확하게 정정해 주세요.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낮은 목소리 톤으로 말을 했던 건지, 처음 당신에게 나쁘게 말하기 시작한 때부터 걸을



때, 그리고 우루야의 집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까지 말투가 똑같았는지 아니면 부침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그레이 : 음, 걸으면서 점점 더 심해졌고 굉장히 공격적인 말투였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왜냐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런 말투로 말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상황이 굉장히, 진짜 이상했어요.

그래서 상황은 점점 공격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해갔고, 소리지르거나 고함을 지르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말투에 공격성이 묻어 있었고, 걸으면서 점점 더 강압적이 되었어요.』

142 『그레이 : 네, 저는 위민스 칼리지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플랜 B를 권유 받았고 그건, 만약 임신했을 때, ...

검사 : 사후피임이군요. 그렇죠?

그레이 : 네, 응급피임이요.

검사 : 맞아요. 응급피임이요. 오늘 아침 당신은 피고인이 한 말,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했던 말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받았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억하기로는, 그건 성행위 이전에 일어났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레이 : 네. 그가 제 입 안에 성기를 처넣기 직전이에요.

검사 : 그리고 혹시 그때 그가 실제로 했던 말들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레이 : 그건 “내가 널 따먹는 건 이게 마지막일 거고 너도 그걸 좋아할 거야” 이 비슷한 말이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아침, 당신이 사건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창피함을 느낀 것이 아니냐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정정하고 그때 실제로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묘사했어요. 혹시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레이 : 제가 아침에 어떤 기분이었는지요?

검사 : 네.

그레이 : 음, 처음에는 정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는 제가 울면서 잠드는 걸 봤고 제가 운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저는 그가 제 옆에서 자위를 하는 것 때문에 잠에서 깬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아서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저는, 네, 기분이 정말 안 좋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가 잘못- 그가 저에게 사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에게 왜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는 굉장히 차갑게 답장을 했어요. 마치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우울해 있었고 그리고, 네, 행복한 시간들은 아니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 성행위에 동의했었는지 헛갈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레이 : 헛갈린 적 없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책한 유일한 이유는 제가 명확하게 싫다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합의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사건으로부터 받은 충격과, 제가 저도 모르게 무슨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제가 동의했는지 동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헛갈렸던 적 없어요.」



1부. 사실관계

(피고인 무스타파 우루야에 대한)
검사 로프트의 반대 신문



143 『**검사** : 음, 우루야, 당신은 그 당시 몇 명의 여자들과 사귀고 있었습니까?

우루야 : 아니- 제 여자친구와 맨디뿐입니다.

검사 : 그럼 당신이- 당신과 앨리슨과의 관계가 열린 연애관계였다고 했을 때, 그건, 어, 어떤 관계였다는 뜻입니까?

우루야 : 저희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각자 다른 사람과 만나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144 『**검사** : 음, 그렇다면 맨디를 제외하고, 당신은 몇 명의 여자들과 만났습니까?

우루야 : 네 명 더 있었어요.

검사 : 그리고 그건 당신이 토론토의 요크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네. 2013년 9월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앨리슨과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사귀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우루야 : 아니요. 그건 관계가 열린 연애관계가 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 전에도 2년 반 동안 사귀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들에 따르면, 맨디와 있었을 때 당신은 몬트리얼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맨디에게 확실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그리고 당신은 몬트리얼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말했습니까?

우루야 : 네. 그리고 그 중 몇 명에게는 여자친구와 열린 연애관계라고도 말했어요.

검사 : 당신이 여자친구에게 당신과 맨디 그레이의 관계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우루야 : 아니요. 여자친구가 알아도 상관없었어요.』

145 『검사 : 그리고 그 모임, 1월 31일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기 그 전날의 밤에 있었던 모임에는, 당신의 동료들과 맨디의 동료들이 모두 있었습니까?』

우루야 : 네, 빅토리 카페에서요.

검사 : 그리고 파우퍼스에서도요. 맞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파우퍼스에서 맨디의 동료는 레이시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두 정치외교학과, 그러니까 제 학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146 『검사 :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다리에 손을 올려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맞습니다.

검사 : 그리고 그건 동료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



다. 맞습니까?

우루야 : 네.

검사 : 맞죠? 당신의 동료들이, 당신이 맨디 그레이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낼까 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맞습니다.』

147 『**검사** : 음,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당신은— 나중에 파우퍼스에서는 사타구니 쪽에 가까웠고, 빅토리 카페에서는 그냥 다리 위였다고 하셨죠?

우루야 : 음, 제 허벅지요. 허벅지 위쪽, 네.

검사 : 당신의 허벅지 위쪽이요?

우루야 : 네.

검사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허벅지 위쪽을 어떻게 만진 겁니까?

우루야 : 그런 종류의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 당신 오른쪽에 앉아 계신 남자분이 보이십니까?

우루야 : 네.

검사 : 재판장님이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루야 : 이해는 하지만, 상황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졌다고 치면, 당신은 저에게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148 『**검사** : 당신은 상황이 그것보다 더 심했다고 진술하면서 더듬었다¹⁵⁾라는 경멸적인 어투의 단어를 쓰셨는데, 그렇다면 그 단어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5) 원문의 표현은 groping.

우루야 : 제가 알기로 더듬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몸을, 음, 성적인 부분에 가까운 곳을 만진다는 뜻입니다.

검사 : 당신의 허벅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루야 : 네.』

149 『우루야 : 10초까지는 아니었지만, 2초 이상이었어요.

검사 : 그리고, 음, 당신은— 당신은 그녀에게 몸을 기대서 그만이라고 귓속말을 했죠?

우루야 : 그렇습니다.

검사 : 그리고 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제 생각에는, 당신은 맨디에 대해서 이날 저녁에 성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우루야 : 네.』

150 『검사 : 그럼— 당신은 그녀와의 관계에서 남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까? 맞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그냥 저는— 저는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151 『검사 : 당신은 뭐라고— 당신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루야 : 저는 그냥 “만지지 말아 줘”라고 했어요.

검사 : 다른 말은 안 하셨습니까?

우루야 :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말만 했어요.

검사 :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루야 : 음, 제 생각에는 “알겠어”라고 한 후에 손을 뺐던 것 같아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빅토리 카페에서 당신과 그녀는 계속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우루야 : 아, 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네.

검사 : 알겠습니다. 음, 대부분의 시간과 계속은 다른데요.

우루야 : 네. 대부분의 시간 동안이에요. 계속은 아니고요.

검사 : 그럼, 빅토리 카페에서 맨디의 옆자리에 앉지 않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루야 : 제가 술을 주문하러 갔을 때랑, 음, 그리고 아마, 그리고 잠깐 후에 다른 사람이랑 조금 얘기하려고 갔을 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맨디 옆에- 맨디 옆에 있는 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 : 그리고 당신은 빅토리 카페에서 맨디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루야 : 네. 음, 제 근처에 앉았던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152 『**검사** :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서로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군요. 제 생각에는, 당신은 그녀가 그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우루야 : 맞습니다.』

153 『**검사**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음, 당신은 그날 밤 7시 55분에 맨디에게서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것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죠. “나 지금 빅토리아, 우리 술 먹고 나서 뜨거운 섹스를 하자”라는 문자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맞습니다.

검사 : 제 생각에는 그 때 당신은 그러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루야 : 뭐라고요?

검사 : 그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날 저녁 그렇게 하려는 것이

당신의 계획이었죠?

우루야 : 아, 네. 제 생각에는, 그게 저희 계획이었어요. 네.

검사 :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루야 : 네, 그게 저희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검사 :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은 그때 맨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으니까, 7시 55분부터 그것은 당신이 생각한 계획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루야 : 그녀가 먼저 뭘 할지를 제안했는데 그게 어떻게 저만의 계획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사 : 저는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7시 55분에 문자를 받은 후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맨디와 성행위를 해야겠다고 계획했을 것 같은데요.

우루야 :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면 그랬겠죠. 저는 확실하지 않았고, 그래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알겠어, 술집으로 갈게.”라고만 했어요.』

154 『**검사** : 음, 당신은 회유된 거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루야 : 회유된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메시지가 저를 동하게 하기는 했죠, 네.』

『**우루야** : 술집으로 오고 나서 섹스를 하자는 그녀의 메시지요.

검사 : 그렇다면, 그럼 언제— 그리고 당신은 8시 26분에 “지금 바로 갈게.”라고 답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맞습니다.』

155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9시 7분에 맨디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증거물 1c)번을 보고 있습니다.

우루야 : 네, 그녀는 “오는 중이야?”라고 했어요.

검사 : 그리고 당신은- 9시 이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제가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딱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검사 : 아, 당신이 언제 파워퍼스에서 나왔는지는 기억하십니까?

우루야 : 아마 10시 15분, 3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검사 : 그럼, 그날 밤 대부분의 시간을 파워퍼스에서 보냈겠군요?

우루야 : 그렇습니다.

검사 : 음, 그리고 당신은 빅토리 카페에서 파워퍼스까지 가는 데 걸어서 15분~20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우루야 : 네, 그 정도요. 네, 20분 정도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이요.

검사 : 200미터 정도의 거리인데도 20분 정도요?

우루야 : 아뇨, 그건...

검사 : 300미터?』

156 『검사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빅토리 카페에서 파워퍼스로 가는 길에 그 기분 나빴던 경험, 음, 더듬어진 경험에 대해 얘기하셨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음, 그녀가 당신에게 그것을 언급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처음 당신의 다리 위에 몇 초 정도 올려진 후에, 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루야 : 네, 파워퍼스에서요.

검사 : 아뇨, 제 말은, 파워퍼스에 가기 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느냐는 말입니다.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당신은 아직 그녀와 뜨거운 섹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우루야 : 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확신하진 않았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음, 당신은 맨디가 당신의 집에서 자고 가냐고 물어봤을 때, 맨디에게 “알겠어, 하지만 나는— 우리는 섹스는 안 할 거야.”라고 하셨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검사 : 왜냐하면 당신은 그날 밤에 있을 성행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그건 그냥— 그녀는 저에게 저희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고 저는 된다고 했어요.

검사 : 그리고 당신은— 조금 전의 그 문자메시지에 쓰여져 있던 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음, 그 문자메시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네, 잘 모르겠어요.

검사 : 빅토리 카페에서 맨디가 당신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했던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우루야 : 저는 그냥 그게 제 친구들과 동료들 앞에서 할 만한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검사 : 당신의— 당신과 자는 여성이, 당신의 다리에 손을 올려놓는 것, 그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행동입니까?



우루야 : 네.

검사 : 알겠습니다. 음, 빅토리 카페에서 파우퍼스로 가는 동안 손을 잡았습니까?

우루야 :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걷기는 했지만, 손을 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검사 : 나중에 파우퍼스에서 나왔을 때에는 서로를 팔로 감싸고 있었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우루야 : 네, 그랬습니다.

검사 : 그리고 음, 배서스트와 블로어에서 당신의 집이 있는 배서스트와 칼리지까지 걸어갈 때는 팔짱을 끼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네.

검사 : 음, 그건 다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은, 애정 표현이 아닙니까?

우루야 : 아니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 왜 다른가요?

우루야 : 음, 성적인 함의가 없었어요.

검사 :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루야 : 저는 저와 자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과 팔짱을 끼고 걷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57 『검사 : 그리고 무슨- 맨디가 다리를 만져서 짜증나기는 했지만, 당신의 계획은 그대로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진술하셨죠?

우루야 : 처음 만졌을 때는 그렇게 짜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후로는 조금 짜증났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당신은 그게 그녀와 헤어진 이유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네. 이유들 중 하나였죠, 네.

검사 :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게 이유라고 말하지 않았죠?

우루야 :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158 『**검사** : 음, 그게 당신을 술집으로 가게 만든 겁니까? 당신은 그 문자 메시지로 마음이 동하게 되었다고 했죠?

우루야 : 네.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이전에 저에게 오라고 했어요.』

159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리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우루야 : 저녁에 파워퍼스에 도착했을 때쯤이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맨디 옆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우루야 : 네.

검사 :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까?

우루야 : 어, 폴, 가젤, 그렉, 그리고 아마 레이시요. 잘 모르겠어요. 그레이엄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레이엄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160 『**우루야** : 음, 어, 그것조차 아니었어요. 빅토리에서는 정치외교학과 사람들이 약간 더 많았지만 비슷했어요. 하지만 파워퍼스에서는, 확실히 사회학과 사람들보다 정치외교학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우루야 : 음, 네. 박사학위 학생들은 모두 수업조교로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박사과정 학생들은 노동조합 소속이에요.

검사 : 네, 그리고 당신은 노동조합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



습니까?

우루야 : 집행위원회였어요, 네.』

161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파우퍼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언제 이
- 당신이 말하는 더듬는 행위가 일어났습니까?

우루야 :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도착한지 얼마 안 돼서였던
것 같아요.

검사 : 그리고 당신은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죠. 맞습니까?

우루야 : 네, 칸막이 좌석에서요.

검사 : 칸막이 좌석이요. 그리고 이건 테이블 밑에서 일어난 일이죠.
맞습니까?

우루야 : 네.

검사 : 그리고 당신이- 당신은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했습니까?

우루야 : 음, 아마 못 봤을 거예요. 테이블 밑이니까요.

검사 : 아마 못 봤을 거라고요?

우루야 :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는 사타구니 쪽에 더 가까웠다고
진술했었죠?

우루야 : 네.

검사 :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셨죠?

우루야 : 이번에도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했어요.

검사 :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루야 : 그녀는 그만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 음,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저는 짜증이 났고 네,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나쁜 감정을 가지거나 악의적인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검사 : 음, 저는— 알겠습니다. 당신은 짜증이 났지만, 화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화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루야 : 네, 화나지는 않았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만하라고 한 후 그녀는 그만했다고 했죠. 이게 당신 쪽의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은데요?

우루야 : 음,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어, 두 번째에는, 제 말은 그러니까, — 누군가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몇 분 후에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면, 진짜로 그만둔 건 아니죠.』

162 『**검사** : 알겠습니다. 빅토리 카페나 파워퍼스에서 그녀와 일대일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네, 저희는 서로 대화를 나눴고 술집은 굉장히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 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들었을 거예요.

검사 : 아, 그럼 당신은 그때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냐, 왜 다른 사람들도 있는 데에서 내 다리를 만지냐, 같은 말을 했습니까?』

163 『**우루야** : 아니요. 저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고, 실제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속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았어요.』

164 『**검사** : 알겠습니다. 당신이 가짚과 했다는 대화 말인데요. 어디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루야 : 그건...



검사 : 쓰리썸에 대한 대화요.

우루야 : 그것도 제가 칸막이 좌석에 앉아있을 때였어요, 네.

검사 : 맨디와 함께 앉아 있을 때요?

우루야 : 아뇨, 그녀는, 어, 자리를 옮겼어요- 레이시와 바에서 놀고 있었어요.

검사 : 그럼 맨디는 그곳에 없었던 거죠?

우루야 : 그때는 없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있었습니까?

우루야 : 다른 사람들 몇 명이 칸막이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폴이랑 그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사 : 그리고...

우루야 : 맞은편이에요.

검사 : 그리고 가젼이 당신에게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우루야 : 그녀는 저에게 와서 “맨디가 너랑 다른 사람 하나랑 쓰리썸을 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라고 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칸막이 좌석이 앉아 있을 때 가젼이 당신에게 온 건가요?

우루야 : 네.

검사 : 당신에게 와서 당신 옆에 앉았습니까?

우루야 : 네, 앉은 것 같아요.

검사 : 음, 앉았습니까, 아니면 앉은 것 같았습니까?

우루야 : 음, 저는 끝 쪽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녀는 일어서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무슨- 당신은 그녀가 술에 취해 있다고 느꼈나요?

우루야 : 그녀는 그렇게 심하게, 음, 그러니까, 한계점 이상으로 알코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괜찮아 보였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에 당신은 깜짝 놀랐겠죠?

우루야 : 네, 놀랐어요.

검사 : 그리고 당신은 바로, 어,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했겠군요?

우루야 : 아니요.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검사 : 그래서 가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루야 : 어, 저는 “어, 흥미롭네, 난 몰랐는데.”라고 했어요.

검사 : 그리고 가젼은 당신에게- 어떤 계획인지, 누구랑 할 계획인지에 대해 말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검사 : 음, 그러면, 그게 레이시였을 거라고는 그냥 추측한 겁니까?

우루야 : 아, 아니요. 그게 누구일지 추측하지는 않았어요. 음, 그때는 레이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술집에 유일하게 있었던 맨디의 친구였기도 하고, 둘이 굉장히 친해 보였기도 해서, 나중에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검사 : 음, 다른 남자와 함께 할 거라고는 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루야 : 음, 저희는 만나면서 예전에, 다른 여자 한 명을 더 껴서 쓰리썸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165 『**검사** :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맨디에게 가서 그걸 물어봤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레이시에게는 물어봤나요?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그러면 그건 가젼이 당신에게 전해준 신나는 뉴스 같은 걸로 받아들인 겁니까?

우루야 : 저는 그걸 음, 그러니까 진짜일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젼이 말한 거요. 하지만 네, 그녀가 그 말을 한 이후로 쓰리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검사 : 그리고 나중에는 쓰리썸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보는 것 정도를 넘어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군요?

우루야 : 아뇨.

검사 : 당신은 맨디와 레이시랑 나갔을 때, 정확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루야 :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검사 : 그리고 당신은 레이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우루야 : 그날 저녁에 처음 만났어요.』

166 『검사 : 맨디가 당신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던 건, 빅토리 카페에서였다고 당신이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우루야 : 네.

검사 : 그리고, 음,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그날 밤 그녀와 섹스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혹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까? 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루야 : 빅토리 카페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나중에 집에 걸어가는 길에, 그녀가 저에게 섹스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몸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장담해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검사 : 그녀가 뜨거운 섹스를 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당신이 나오게 된 이유였는데도 말입니까?

우루야 : 그게 이유긴 했죠, 네.

검사 : 파워퍼스에서 나왔을 때 누가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까?

우루야 : 인디고와 가젼이요.』

167 『**검사** : 왜냐하면 파워퍼스가 거의 문을 닫을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루야 : 네, 근처에 있는 샤와마라라는 곳이 좀 늦게까지 열었던 것 같고, 음, 맥도날드도 항상 있죠.

검사 : 레이시가 택시에 탔을 때,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쓰리썸에 대한 기대가 음, 완전히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우루야 : 음, 네, 그녀가 택시를 탔을 때, 네, 당연히 쓰리썸을 할 가능성은 없어졌으니까요.

검사 :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신이 그 사실에 대해, 음, 불쾌해했을 것 같은데요?

우루야 :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시다.

검사 : 별 생각이 없었습니까?

우루야 : 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검사 : 그리고 레이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은 맨디에게, 음, 우리 쓰리썸을 할 줄 알았는데-라거나 그런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저는 그녀가 저희와 함께 술을 마시지 않게 돼서 아깝다고 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본심은 아니었죠. 그렇죠?



우루야 : 아니요. 그게- 제가 그녀를 초대했을 때 했던 생각이었어
요.』

168 『검사 : 그러니까 어느 쪽인가요? 그 두 명이 계속 술을 마시고 싶어
했던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까지 포함해서 세 명이 모두 계속 술을
마시고 싶어 했던 건가요?

우루야 : 어, 그들은 계속 마시자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레이시도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검사 : 아, 저는 당신이 맨디와 함께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루야 : 네, 그랬어요. 제가 그들 바로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죠.』

169 『검사 :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당신이, 음, 맨디에
게 실망감을 표현했을 것 같은데요?

우루야 : 네, 그랬어요.

검사 : 당신은 레이시가 같이 오지 않아서, 레이시, 맨디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쓰리썸을 하지 못하게 돼서 불쾌했던 거죠?

우루야 : 아뇨,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 : 그럼 신경 쓰지 않았나요?

우루야 : 네,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검사 : 음, 그리고 당신의 집에 도착-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당신은
그래도 적어도 조금 짜증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레이가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당신이
그녀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그녀에게 어떻게 불쾌감을 표현했는지와
욕을 했는지에 대해 한 진술을 들었을 텐데요. 당신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죠?

우루야 : 아뇨,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 저는 당신이 그 당시 맨디를 매우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우루야 : 아뇨.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170 『**검사** : 그리고, 음, 당신은 당신의 집이 주택을 아파트식으로 만든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우루야 : 네.』

171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은 당신과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이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그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검사 : 학생이 아니었군요. 그와 함께 어울려 논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두 번 정도 있어요, 네.

검사 : 술을 마시거나, 저녁을 먹거나 파티에 가거나?

우루야 : 네, 필을 제게 소개시켜 준 제 예전 룸메이트와 저 그리고 필, 이렇게 셋이서 술도 마시고 저녁도 먹었어요. 필이랑 더 친해지기 위해서요. 음, 그리고 저희는 다른 사람 생일 파티에 한 번 같이 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정도 술을 같이 마신 적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여자친구가 당신의 집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네, 두 번 정도 찾아왔어요.

검사 : 필은 당신의 여자친구를 알고 있습니까?

우루야 : 아마도요. 둘이 만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사 : 혹시 당신은 없고 필은 있었을 때 그녀가 당신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있었을 수도 있죠. 아마 그런데 없었을 거예요.

검사 :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필과 같이 살지 않게 되었습니까?

우루야 : 어, 2015년 4월이요.』

172 『검사 : 우루야, 당신은 1월 31일로부터 약 일 주일 전에 맨디와 말다툼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루야 : 아마 그녀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게 맞습니까?

검사 : 당신이 TV로 포르노를 보고 있었고 그녀에게 “나도 어차피 너 따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하셨을 때 말입니다.

재판장 : 나도 어차피 너, 뭐라고요?

검사 : “따먹고 싶지 않아”요.

우루야 : 아뇨,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검사 : 말다툼 도중에 그녀에게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절대 없습니다.

검사 : 왜 그렇게 격하게 부정하시는 거죠?

우루야 : 격하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와 알게 된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검사 : 그럼, 당신은 그녀에게, 어, “내가 널 따먹는 건 이게 마지막 일 거”라고는 하셨습니까?

우루야 : 아뇨,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검사 : 당신이 TV로 포르노를 보고 있었을 때, 아마 텔레비전 방송은 아니었을 거고 포르노 영화를 보고 있었을 때 그녀와 한 말다툼을

기억하십니까?

우루야 : 그건 말다툼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제 집으로 왔어요.

검사 : 네.

우루야 : 그리고 저희는 섹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발기가 유지되지 않아서, 저는 포르노를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텔레비전에 연결했어요. 저희는 다시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그녀와 섹스하는 것을 실패했고, 그녀는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버렸어요.

검사 : 그리고 당신은— 당신과 그녀는, 그때 서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하지 않았던 겁니까?

우루야 : 저희는 하루 동안 말하지 않았고, 아마 이틀 후에, 그녀가 제게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검사 :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루야 : 1월 27일인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증거물 1c) 의 문자메시지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루야 씨, 한번 보세요.

우루야 : 고맙습니다.

검사 : 1월 27일에는 사과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루야 : 그녀는 “화해하자”에다 물음표 두 개를 찍어서 보냈어요. 저는 그게 미안하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사과에 가까운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사 : 하지만— 그럼 그녀가 당신에게 화가 나 있었을 때, 당신도 그녀에게 화가 나 있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우루야 :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두 번째로 섹스에 실패한 후에, 저는 “TV나 보자, 데일리 쇼를 좀 보면 괜찮아질지도 몰라”라고 했고, 그녀는 그냥 나가 버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검사 : 그럼…

우루야 :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전혀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173 『우루야 : 제 생각에 그녀는 그렇게 갑자기 나가버린 것에 대해서 미안해했고, 음, 화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검사 :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말다툼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말다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도 없이 나가버린 것은 분노나, 불쾌감이나 불만족 같은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174 『검사 : 알겠습니다. 음, 당신이 처음 그레이를 만난 것도 빅토리 카페였죠. 맞습니까? 1월 16일에 그레이와 처음 교류했던 것은 언제인가요?

우루야 : 그건— 음, 네, 네, 맞아요. 이전에 노동조합 모임에서 서로 눈이 마주쳤고 서로에게 웃어줬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눈 것은, 빅토리 카페에서가 처음이에요.

검사 : 그리고 그건— 노동조합 모임이 빅토리 카페 근처에서 열렸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우루야 : 네, 토론토 대학 캠퍼스에서 열렸어요. 블로어에 있는 미술관, 아니면 박물관 근처예요. 블로어에 있는 게 미술관인지 박물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베이에 있는데, 음…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음, 당신은 그 행동이 서로 추파를 던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루야 : 어떤 행동이요?

검사 : 노동조합 모임에서요. 서로 눈이 마주친 것 말입니다.

우루야 : 네, 뭐 서로 조금 추파를 던졌다고 할 수 있죠.

검사 : 그리고, 음, 그날 밤 빅토리 카페에서 당신은 술을 마셨습니까?

우루야 : 네, 저희는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175 『**검사** : 처음에 그런 낚시가 없었던 것과 달리 이후에는 서로에게 추파를 던진 겁니까?

우루야 : 네, 허리케인으로 걸어가는 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하철을 탔지만 저는 걸어가겠다고 했고, 맨디가 저와 함께 걷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둘이서 허리케인으로 걸어갔고, 걸어가는 길에 서로 추파를 던졌어요.

검사 : 그리고 허리케인에는 당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맞습니까?

우루야 : 네, 음, 지하철을 탔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죠. 당연하지만 저희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했어요.

검사 : 그리고 가젼도 그곳에 있었나요?

우루야 : 아, 네. 그녀도 그곳에 있었어요.』

176 『**검사** : 사실 당신은 가젼과도 예전에 사귀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그건- 맞습니다.

검사 : 그리고 맨디 그레이와 사귀 후에도 가젼과 사귀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 당신은 가젼이 화장실에서, 맨디에게 당신에 대해 경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루야 : 몰랐습니다.



검사 : 알겠습니다. 음, 그때 가젼과 당신이 사이가 좋았는지, 아니면 나뻐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루야 : 그 당시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 지 하루이틀밖에 안 됐었어요. 바로 직후였죠.

검사 : 그럼 그때- 그때 당시에는 당신과 가젼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겠군요. 특히 그녀 쪽에서 말입니다.

우루야 :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검사 : 음, 그럼 당신은, 음- 그리고, 당신은 맨디 그레이와 가벼운 관계를 가지고 있던 도중에도, 가젼과 사귀었습니까?

우루야 : 아뇨, 절대 아닙니다.』

177 『검사 : 빅토리 카페에서 당신은- 그레이가 당신의 다리를 만졌을 때, 네, 당신은 비명을 질렀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니다.

검사 : 소리를 질렀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니다.

검사 : 그녀를 밀쳤습니까?

우루야 : 당연히 아닙니다.

검사 :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까?

우루야 : 어,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검사 : 아, 흠음, 아닌 것 같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인 기억이 있나요, 없나요?

우루야 : 그녀가 저를 더듬은 것은 확실하게 기억해요. 그 이후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 나중에 일어나기는 했어요. 확실해요.』

178 『우루야 : 네. 저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했고 그녀가 그만뒀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검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날 밤 그녀와 성행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군요?

우루야 : 꼭 그래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어요—일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기다렸어요. 저는 그녀와 섹스를 하겠다고 백 퍼센트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 둘이 모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였죠.

검사 : 하지만— 당신은 그녀와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그럼요, 네.

검사 : 음,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녀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2차에 갔죠. 맞습니까?

우루야 : 네, 맞습니다.

검사 :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당신의 동의 없이 또 한 번 당신을 만졌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네, 맞아요.

검사 :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건 파워퍼스였죠?

우루야 : 네.

검사 : 당신은 비명을 질렀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소리를 질렀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맞서 싸웠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그녀를 밀쳤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어, 파워퍼스에서 레이시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네,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179 『검사 : 파워퍼스에서 당신과 맨디는 거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죠?

우루야 : 어, 비교적 그랬어요. 네.

검사 : 그렇지만 당신은 레이시와 함께 조금이라도 더 얘기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루야 :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180 『검사 : 어, 그럼, 왜 하필 그녀에게 집에 같이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했습니까?

우루야 : 그때는 그곳에 저희 세 명밖에 없었어요. 인디고랑 가젤이 있었다면, 그들도 초대했을 거예요.

검사 : 그럼, 그 당시에 쓰리썸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우루야 : 그녀를 초대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가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줄 때 말고는 쓰리썸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어요.

검사 : 제 생각에는, 그 시점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던 유일한 것은 쓰리썸을 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우루야 :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 그리고 사실, 당신은 그 생각에 약간 집착하고 있었죠?

우루야 : 집착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검사 : 그리고 당신은 그걸, 어, 쓰리썸을 거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루야 : 아뇨, 레이시를 초대했을 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181 『**검사** : 그럼, 당신이 그녀가 같이 술을 먹지 않게 된 데 실망했던 것은, 쓰리썸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까?

우루야 : 그렇습니다.』

182 『**검사** : 그럼 당신은 그날 밤 쓰리썸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루야 : 맞습니다. 제가 맨디와 섹스하고 싶어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저는— 쓰리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검사 : 그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날 밤 계속 놀고 싶어했죠?

우루야 : 네.』

183 『**검사** : 음, 당신은 걸어가면서 노동조합 문제와 날씨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을 텐데, 파티를 계속하자는 말은 갑자기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우루야 :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한 말은 맨디가 저와 섹스하고 싶다는 거였고, 저는 시도는 해보겠다고 했지만 제 몸이 괜찮을지 장담하지 못했어요.



검사 : 그때 당신은 쓰리썸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현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검사 : 음, 당신은 그때 맨디가 그날 저녁 술집에서 보였던 행동에 대해-, 그녀에게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루야 :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사 : 불쾌감을 느끼긴 했죠?

우루야 : 아뇨,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검사 : 당신은 맨디에게 경멸감을 느꼈나요?

우루야 : 아뇨,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사 : 음, 그건- 당신은- 당신은 당신이 그녀를 모욕했고, 그녀가 술을 많이 마신 것과 그날 저녁 한 일들을 비난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십니까?

우루야 : 완전히 부정합니다. 저는 그냥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만 했어요.

검사 : 집으로 가는 길에 그랬나요?』

184 『검사 : 그리고 당신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까?

우루야 : 네, 그랬습니다.

검사 : 어두웠나요?

우루야 : 음, 아뇨, - 네, 제가 불을 켜기 전까지는 어두웠어요. 네.

검사. 네, 당신이 불을 켜기 전까지요.

우루야 : 네.

검사 : 그럼- 당신은 그때 집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우루야 : 확실히 잘 몰랐어요. 맞습니다.

검사 : 당신은 룸메이트가 세 명인데, 누가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루야 : 음, 네. 룸메이트들은 집에서 잘 때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집에 없거나, 밤늦게까지 나가 있을 때는 문을 대부분 열어놓고 있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검사 :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음, 룸메이트들끼리는 친하다고 하셨죠?

우루야 : 별로 친하지 않아요.』

185 『**우루야** : 의식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집으로 가서 옷을 벗고 침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는 그걸 할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검사 : 무엇을 할 기분 말입니까?

우루야 : 파티 할 기분이요.

검사 : 그럼 그때, 당신이 침대에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가 당신이 그녀에게 그날 저녁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였습니까?

우루야 : 네. 침대 위에서 그녀가 저에게 키스하려고 한 후에요.

검사 :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술과 지금 하고 계신 말에 따르면, 당신의 계획은, 서로 합의된 성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네, 저희가 대화를 좀 나눈 후였어요. 하지만 확실히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일단 시도는 해 보겠지만, 몸 컨디션에 따라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루야 : 네.

검사 : …생각대로는 잘 안 됐다는 말이죠?

우루야 : 네.

검사 : 알겠습니다.

우루야 : 네.

검사 : 그럼, 당신이 집으로 갔을 때…

우루야 : 네.

검사 : 그럼- 이게 당신의 진술대로인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다 벗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옷 몇 벌을 벗었죠. 맞습니까?

우루야 : 맞습니다.

검사. 그리고 침대로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네.

검사 :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당신은, 그 이후로 상호 간 합의된 성행위를 적어도 시도는 하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키스하려고 왔을 때, 그때는, 음, 섹스를 하는 게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 : 그래서 마음을 바꾸셨나요?

우루야 : 네, 그랬습니다.

검사 : 그리고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죠.

우루야 : 네.

검사 : 그리고, 음, 당신은 그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키스하지마라?

우루야 : 아뇨, 저는 그냥 서로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것 같으니 이젠 더 이상 같이 자지 말자고 했고, 그녀가 술집에서 제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음, 그녀가 저를 술집에서 더듬었던 거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건, 음, 그럼 당신은 그날 밤 그녀가 술집에서 당신의 다리를 두 번 만졌기 때문에, 그녀에게 더 이상 같이 자지 말자고 한 거군요. 맞습니까?

우루야 : 네. 그리고 또 저는 제 여자친구가 4월에 토론토로 올 예정이니 이 관계를 일찌감치 끝내고 그냥 친구로만 지내는 게 좋겠다고도 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갑자기 여자친구 생각이 난 거군요…

우루야 : 어, 아뇨, 그건 그냥…」

186 『검사 : 그리고 당신에게는 쓰리썸이, 음, 오랜 성적 판타지였죠?

우루야 : 맨디랑 쓰리썸에 대해 얘기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쓰리썸에 집착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맨디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쓰리썸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루야 :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 가젼이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당신은 굉장히 솔깃했겠군요?

우루야 : 솔깃하긴 했지만 저는 제삼자였고, 그냥 전해 들은 말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187 『**검사** : 아뇨, 당신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우루야 : 예전에 그녀의 집에서 한 번 얘기했던 적이 있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검사 : 아뇨, 제 말은 그날 저녁에 말입니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레이시가 택시를 타고 떠났을 때요. 당신은 쓰리섬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짜증이 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고 하셨죠?

우루야 : 그렇습니다.』

188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왜 맨디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레이시와 있을 때와 레이시가 떠난 후에 모두요. 왜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루야 :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그녀가...

검사 : 저는...

우루야 : ... 그녀가 이미 떠나 버렸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189 『**검사** : 그리고 당신이- 제 생각에는, 당신이 맨디와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당신은 정확히 언제 맨디와의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우루야 : 아마 저희가 옷을 벗고 침대로 갔을 때쯤인 것 같아요.

검사 : 그녀가 빅토리 카페에서 당신의 다리를 만졌을 때는 아니었죠?

우루야 : 아뇨,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검사 : 파우퍼스에서 아니었죠?

우루야 : 그렇습니다.

검사 : 레이시와 함께 걸어갔을 때도 아니었죠?

우루야 : 그렇습니다.

검사 : 레이시가 떠났을 때도 아니었죠? 아니면 맞습니까?

우루야 : 어, 아니요. 그때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검사 : 그리고 당신이 맨디와의 모든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음, ...

우루야 : 저는 친구로는 남자고 했어요.

검사 : 그럼 그때 당신은 침대에서 나와서 옷을 입었습니까?

우루야 : 아뇨, 저는 침대에서 나와서 옷을 입지는 않았어요.』

190 『**검사** :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맨디와 당신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상호 간 합의된 성행위를 하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진술했죠? 맞습니까?

우루야 : 아뇨, 그건- ,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는 저에게 기대와서 키스하려고 했고 저는 “싫어”라고 했고, 그리고...

검사 : 알겠습니다.

우루야 : ...그래서-, 그래서...

검사 : 제가...

우루야 : 그래서 그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화가 났고 그리고 결국에는 섹스를 하게 되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질문은, 그녀가 당신에게 기대오기 전에, 맨디가 당신에게 기대오기 전에,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그녀가 당신에게 기대왔을 때 말입니다.

우루야 : 네.



검사 : 알겠습니다. 음, 당신은 그때 침대에 누워 있었나요?

우루야 : 네.

검사 : 옷을 벗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우루야 : 입고 있었어요...

검사 : 다 벗고 있지는 않았냐?

우루야 : 팬티와 러닝셔츠는 입고 있었어요.

검사 : 이불 속에서 말입니까?

우루야 : 네.

검사 : 그렇죠? 음, 어, 당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함께 이불 속에 있었던 겁니까. 맞습니까?

우루야 : 그렇습니다.

검사 : 나중에 성적인 행위를 같이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과 함께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네.』

191 『검사 :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만을 계속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했을 것이고, 가끔씩 그 생각을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넣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분명 당신이 그날 저녁에 기대했던 것이었죠. 그렇죠?

우루야 : 저는 그런 기대를 한 적이 없어요.』

192 『검사 : 맨디도 그녀의 옷을 조금 벗고 침대로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불은 꺼져 있었죠? 당신이 그러기를 기대했거나 예상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때 상호 간 합의된 성행위를 하려고 하기는 했죠?

우루야 : 그때에도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음,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집으로 걸어오는 중에 맨디가 성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셨습니다데요…

우루야 : 네.

검사 : 그리고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요?

우루야 : 네, 맞아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상황이 시작된 것은 이때가 아닙니까?

우루야 : 네. 하지만 그때에는,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검사 : 그럼, 음, 맨디가 당신에게 기대와서 키스하려고 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진술대로라면…

우루야 : 네.

검사 : 당신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당신은 침대에서 나왔습니까?

우루야 : 침대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검사 : 어, 그럼 언제 침대에서 나왔나요?

우루야 :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당신은— 당신은 불현듯 갑자기 맨디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그날 저녁 내내 맨디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우루야 : 그날 저녁 내내 그런 생각은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 그녀와 음,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말다툼을 했을 때, 그녀가 제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던 날이요. 음, 그날 이후부터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음, 하지만 맨디와 당신의 관계는 뭐 위대한 사랑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었죠? 저와 동의하십니까?

우루야 : 음, 엄청나게 로맨틱하지는 않았지만 2주 동안 꽤 많이 만났고, 거의 매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검사 : 네, 그리고 저희는 그 문자메시지들을 지금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네.』

193 『**검사** : 음, 그리고 여기 증거물 1C)를 보면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때 실제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은 겁니까?

우루야 : 어, 그렇습니다.』

194 『**검사** : 그럼 제 생각에는, 이 문자메시지들로 본다면 맨디와 당신의 관계는 그냥 가볍게 즐기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우루야 : 아, 네, 맞습니다.』

195 『**검사** : …음, 그러니까, 애정 표현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몇 개 있기는 있어요. 음, 저희 둘 다 서로에게 “보고 싶어”라고 했던 적이 있었고, 그녀가 “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말은 몇 번 했었지만 음, 엄청나게 로맨틱했던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요.

검사 : 정확히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평범한 동료 사이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우루야 : 어, 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196 『**검사** : 그리고 당신은 문자메시지 기록에 당신이 했던 말, 그러니까 맨디가 당신과 진지하게 사귀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신 거죠?

우루야 : 문자메시지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백 퍼센트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음, 네. 그런 종류의 감정들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네.

검사 : 제 생각에는 그런 종류의 감정들 자체가 당신에게 전달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루야 : 어, 몇 번 정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검사 : 제 생각에 그녀는 당신에게 그렇게 흥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우루야 : 그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그녀에게 물어봐야 할 내용일 것 같아요.』

197 『**검사** : 제 생각에는— 당신은 그녀가 우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가 당신의 진술처럼,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루야 : 저는 그녀가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사 : 당신 생각은 그렇습니까?

우루야 : 그녀가 왜 울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더듬은 걸 제가 문제 삼아서일 수도 있고, 관계가 끝나서일 수도 있고요. 음, 하지만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98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당신에게 몸을 기울여서 키스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우루야 : 네.

검사 :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밀치거나, 당신의 손을 사용했습니까?

우루야 : 아뇨.

검사 : 그 이후로 당신은 바로 그날 저녁 술집에서 있었던, 음, 당신



을 힘들게 했던 그녀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겁니까?

우루야 : 그녀는 왜 자기를 피하는지나 그 비슷한 것을 물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 술집에서 그녀가 절 더듬었던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싫다고 말했는데도 그녀가 저에게 키스하려고 했던 것과, 제가 술집에서 그녀가 더듬는 게 싫다고 했던 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던 거예요.

검사 : 당신은 그때 맨디와 함께 이불 속에 있었고, 옷을 어느 정도 벗고 있었다고 했죠….

우루야 : 네.

검사 : …어, 그리고 그녀는 당신에게 키스하기 위해 기대 왔고요?

우루야 : 네.』

199 『검사 :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녀가 당신에게 키스하려고 기뻐함으로써 당신을 추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군요?』

200 『우루야 : 아뇨, 그때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검사 : 하지만 당신은 그걸 술집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 지었잖아요?

우루야 : 네. 음, 조금 달랐어요. 제 생각에는 그녀가 그때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침대에서 제가 한 번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하지만 술집에서도, 그녀는 제가 더듬어주길 원했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어, 두 번째 더듬었을 때는 아니겠지만요.

검사 : 알겠습니다. 당신이 자꾸 얘기하는 그 더듬었다는 단어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녀의 손이 당신의 허벅지에 올려져 있던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루야 : 허벅지 위쪽이랑 안쪽이요, 네.

검사 :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빅토리 카페에서의 일에 대해 다시 얘기해 보죠.

우루야 : 알겠습니다.

검사 : 첫 번째로 그랬을 때 맞죠?

우루야 : 네.

검사 : 그녀의 손이 몇 초 정도 당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졌고…

우루야 : 네.

검사 : 맞습니까?

우루야 : 그리고 손을 아래위로 문질렀어요.

검사 :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습니까?

우루야 : 어,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201 『검사 : 그리고— 그리고 당신은 맨디와의 관계가 부끄러웠습니까?

우루야 : 아뇨,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검사 : 맨디가 당신을 만졌을 때 부끄러웠습니까?

우루야 :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꼭 맨디라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검사 : 음, 이전에도 그런 경험 때문에 놀랐던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네. 다른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에도 몇 번 정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음, 당신에 진술에 따르면, 맨디가 당신에게 키스하려고 했지만 당신이 그녀를 피했을 때, 당신이 맨 처음 한 말은 술집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것이었군요?



우루야 : 네, 맞습니다.

검사 :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했나요?

우루야 : 제 생각에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네가 술집에서 날 두 번이나 더듬은 게 싫었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검사 :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처음 당신을 만졌고, 당신은 그녀에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그녀는 그만뒀다가 또다시 당신을 만졌다는 거죠?

우루야 : 네.

검사 : 그리고 당신은 또 한 번 더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녀는 이번에도 그만뒀습니까?

우루야 : 그렇습니다.

검사 : 그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만졌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우루야 : 아, 제 말은, 제가 첫 번째로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그녀가 또 그랬다는 거였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루야 : ... 좀 나중에 그랬던 거죠.

검사 : 그리고, 음, 맨디가 당신의 말에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우루야 : 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202 『검사 : 그래서, 당신은—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루야 : 아, 저는 그게 심각한 일이라고 했고 음, 이 관계를 끝내자는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건

이게 마지막이 되어야 할 거라고 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이게 우리가 할 마지막 섹스라고는 한 적이 없는 거군요?

우루야 : 아, 네. 구체적으로 섹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당신은 그게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까?

우루야 : 네.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까?

우루야 : 어,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니에요.』

203 『**검사** :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녀가 당신의 집에서 말도 없이 나간 날 그녀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당신이 포르노를 보고 그 후에 바로 그녀와 성 행위를 하려고 고집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우루야 : 아뇨. 음, 처음 섹스를 시도했을 때 제가 발기를 유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실패한 후에, 음, 그녀는 자기 짐을 챙겨서 어, 네, 나가 버렸어요.

검사 : 그리고 그 포르노는 어, 쓰리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우루야 : 아닌 것 같아요.

검사 : 아닌 것 같다고요?

우루야 : 아니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네.』

204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어, 1월 31일 아침 이후로 당신이 처음 필을 본 건 언제였습니까? 혹은 1월 31일 아침에 맨디가 떠난 이후로 처음이요.

우루야 : 아마 오후에 봤던 것 같아요.』

205 『**우루야** : 제 생각에 그는— 그는 부엌에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뭘 좀



먹으려고 부엌에 있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검사 : 그때 그에게 맨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우루야 : 아뇨.

검사 : 음, 그때는 맨디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받은 후였습니까?

206 우루야 : 어, 아마 받은 후였던 것 같아요.』

207 『검사 : 그날 밤 맨디 그레이와 성행위를 했을 때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했죠. 맞습니까?

우루야 : 맞습니다.

검사 : 그리고, 음, 당신은 맨디가 당신에게 자신이 생리 주기를 체크한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그렇습니다.

검사 : 그리고 당신은 그걸- 그날 밤 그것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까?

우루야 : 아뇨, 그건 그날로부터 며칠 전 밤에 알게 되었어요.』

208 『검사 : 그리고, 당신은, 그때 그녀가 생리 주기를 체크한다는 것을 고려했던 겁니까, 아니면 피임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까?

우루야 : 아뇨, 그녀가 생리 주기를 체크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 그렇다면...

우루야 : 그리고 아직...

검사 : 그리고 당신은, 과거에도 그녀는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면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셨죠?

우루야 : 네, 맞습니다.』

209 『검사 :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음, 당신은 그날 밤 그녀와 성행위를 할 때 그냥 무작정 피임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생리 주기를 체크할 겨를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우루야 : 아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피임을 하지 않고서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죠?

우루야 :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시기였다면 그녀가 저에게 말해 줬을 거예요, 네.』

210 『검사 : 그리고 음, 당신이 가젤과 나누었던 대화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대화가 아니었나요? 당신은 가젤이 당신에게 와서 맨디가 레이시와 당신과 함께 쓰리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그녀는 레이시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검사 :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추측했죠?

우루야 : 아뇨, 어떤 추측도 하지 않았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그건 당신에게 있어서는 꽤나 흔치 않은 일이었겠네요?

우루야 : 어, 네, 그렇습니다.』

211 『검사 : 음, 그럼 당신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계속 평정심을 유지했다고 하셨죠?

우루야 : 네.

검사 : 음, 하지만 당신은 그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죠?



우루야 :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했죠?

검사 : 침대에서 나온다거나...

우루야 : 아뇨.

검사 : 예를 들면? 혹은 소파에서 잔다거나?

우루야 : 아뇨,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검사 : 혹은 맨디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우루야 : 아뇨, 맨디에게 나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검사 :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맨디를 내쫓거나?

우루야 : 어, 아뇨, 그러지도 않았어요.

검사 : 그리고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어, 처음에는— 당신은 그녀가 처음 당신에게 기대서 키스해왔을 때는 그녀와 성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우루야 : 그렇습니다.

검사 : 그럼 당신은 어, 침대로 가기 전에는 맨디와 키스 같은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우루야 : 침대로 가기 전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침대에서는 전회를 했어요.

검사 : 성적인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침대에서 말씀이십니까?

우루야 : 아니, 아뇨. 성행위 전, 대화를 나눈 후에요.

검사 : 아뇨, 저는 그녀가 당신에게 기대와서 키스를 하려고 한 것을 말했던 겁니다.

우루야 : 네, 그녀가 저에게 기대와서 키스를 한 후 저희는 대화를 했고, 그리고 전회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럴 섹스 그리고 삽입이 있었어요.

검사 : 제 생각에는 그날 밤 당신이 사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맨디 그레이를 모욕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우루야 : 아뇨, 저는 그녀를 모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검사 : 다른 사람에게 이게 마지막일 거고 너도 좋아할 거라고 말하는 게 모욕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루야 :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212 『**검사** :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다음날 아침 그녀가 화가 난 것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죠?

우루야 : 어, 조금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저를 더듬은 걸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이 관계를 끝내자고 했으면서도 섹스를 했으니까요. 그녀가 그런 것들에 대해 화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일을 언급하는 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까?

우루야 : 뭘 언급하는 게요?

검사 : 당신 말대로 하자면, 그녀가 당신을 더듬은 거요.

우루야 : 네, 저는 그걸 언급했고 저는 그게 음, 저희가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달랐던 거요.』

213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후 1시 27분에 “어젯밤 완전 개판이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당신은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읽었습니까?

우루야 : 아, 네, 그건- 받은 후로 몇 분 이내에 읽은 것 같아요. 부엌에서 그 메시지를 봤어요.』

214 『**검사** : 그럼, 음, 30분까지는 아니고, 20분 정도 후에 당신은 “그래”라고 답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네, 맞습니다.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라고 답장을 보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조금 있었겠네요. 맞습니까?』

215 『검사 : 당신은 “어젯밤 완전 개판이었지”라는 메시지를 받고, 답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루야 : 저는 그녀가 뭔가를 더 설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에도 그런, 음,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들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럴 때마다 나중에 문자메시지를 더 보내거나 직접 만나서 더 자세히 설명해주곤 했어요.

검사 : 음,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 당신과 그녀가 나눈 모든 문자메시지들이 있어요. 증거물 1C) 를 보여 드릴게요.

우루야 : 죄송합니다.』

216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화해하자”라고 했고 당신은 “그러자”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녀가 “어젯밤 완전 개판이었지”라고 보냈던 것도 비슷한 뜻이 아니었겠느냐 같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우루야 : 완전히 같은 건 아니죠. 하지만 둘 다 맥락이 없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네요.

검사 : 우루야,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메시지의 맥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루야 : 네...

검사 : 그게 그 문자메시지의 맥락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 :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이요, 네.

검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화해하자”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러자”라고 대답했을 때, 당신은 그녀가 정확히 뭘 가리키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우루야 : 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문자메시지에 그걸 확실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217 『**검사** : 그리고 5일 후, 당신은 “일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때 기분이 나빴었고 네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나의 실수를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루야 : 그렇습니다.

검사 : 당신이 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까?

우루야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당신은 그녀가 이 메시지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았습니까?

우루야 : 잘 몰랐어요. 메시지의 색깔 때문에 아마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거라고 거의 확신했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럼…

우루야 : 하지만 그때 그냥 그녀의 핸드폰이 꺼져 있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래서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검사 : 하지만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그날 밤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고 했죠?

우루야 : 제가요?

검사 :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한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우루야 : 네.』

218 『**검사** :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



어”라고 하셨죠.

우루야 : 네.

검사 :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신 겁니까?

우루야 : 음, 저는 그녀에게 저를 더듬지 말아달라고 했었고….

검사 : 음, 그게 뭐가 문제죠?

우루야 : 음, 좀 못되게 들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루야 : 음, 그리고 저는 그녀와 헤어졌으니까, 그게 제가 말한 의미였어요.

검사 : 왜 헤어졌다고 표현하시죠? 엄밀히 말하면 사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루야 : 음, 더 이상 같이 자지 않게 됐다는 뜻에서 헤어졌다고 한 거예요.

검사 : 그리고 당신은 “나는 그때 기분이 나빴었고 너에게 부당하게 대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라고 하셨죠?

우루야 : 네.

검사 : 그렇죠? 그리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루야 : 음, 이것도 그녀가 절 더듬은 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검사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당신을 더듬어서 기분이 나빴던 겁니까?』

219 『**검사** : 그렇다면,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이 부당하게 대해졌다는 건, 그녀가 술집에서 당신을 잠깐 가볍게 터치했고,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자마자 그녀가 그만뒀던 그거군요?

우루야 : 아뇨, 그게 아닙니다.』

220 『**검사** : 당신은 당신이 자제력을 잃고 맨디 그레이를 강간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른 것 아닙니까?

우루야 : 아뇨,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 : 당신은 그녀 때문에 짜증이 났죠? 그녀 때문에 짜증이 났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우루야 : 네, 하지만 저는 그녀를 강간하지 않았어요.

검사 : 그녀가 당신이 하고 싶어 했던 쓰리섬의 가능성을 완전히 날려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짜증난 정도를 넘어서 엄청나게 화까지 났죠?

우루야 : 아뇨,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 : 그리고, 여자친구가 당신의 행동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걱정도 됐죠. 맞습니까?

우루야 : 아뇨,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1부. 사실관계

(피고인 무스타파 우루야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 브리스토의 재신문



221 『**변호인** : 당신은 여자랑 같은 침대를 썼지만, 성행위는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2015년 1월 31일의 이른 아침, 당신은 그레이가 당신과 성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아니요.

변호인 : 방금 검사가 당신에게 음, 당신이 파티를 계속하자면서 레 이시와 나눈 대화에 대한 질문들을 했는데요. 파티, 혹은 파티를 계속하자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루야 : 음, 사실 정확히 뭘 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저희 집으로 가서 술을 좀더 마시고 수다를 떨면서 놀자는 거였어요.

변호인 : 음, 그러니까 파티를 계속하자는 데에는 술을 마시자는 뜻만 있었나요?

우루야 : 아뇨.

변호인 : 그냥 놀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뜻이었나요?

우루야 : 네.』

222 『**변호인** : 파티를 계속한다는 데에는 특정 상황, 음, 그러니까 쓰리썸과 관련된 의미도 있었습니까?

우루야 : 아뇨, 없었습니다.

변호인 : 당신이 술집에서 나와서, 어, 그레이와 레이스와 얘기다가 레이스가 택시를 타고 떠났을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루야 :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였을 거예요. 5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 이후에 레이스에게 쓰리썸에 대해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우루야 : 아뇨, 없었습니다.』

223 『**변호인** : 당신과 그레이의, 음, 당신의 말에 따르면 결별에 대해, 당신이 처음 그레이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루야 : 처음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한 건 음, 31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전이에요. 그때 제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저희의 관계- 그러니까 저와 맨디의 관계를 곧 끝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래서 그때 이 관계를 질질 끄는 것보다 일찌감치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인 :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잘 못 들었어요.

우루야 : 죄송해요. 음, 관계를 질질 끄는 것보다 일찌감치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인 : 그렇다면 2015년 1월 31일에 그레이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였죠?

우루야 : 음, 그건 주로- 저는 저희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다르고,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래서 그때 관계를 끝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224 『**변호인** : 당신은 그레이가 당신을 만진 것에 대해, 자신이 좀 과민반응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우루야 : 네, 그래서 문자메시지로 사과한 거예요.

변호인 : 그레이와 함께 당신 집에 도착한 이후로, 그녀가 당신에게 키스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이 있나요?

우루야 : 처음에는 그랬어요. 음, 왜냐하면 저는 그게 섹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이 관계를 끝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섹스를 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어,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섹스를 했죠.

변호인 : 그리고, 그 이후에는 키스가 문제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편승하게 됐나요?

우루야 : 아뇨, 그 이후로는 문제 삼은 적이 없었어요.』

1부. 사실관계

(피고인의 여자친구 앨리슨 무어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 브리스토의 주 신문



225 『변호인 : 어디 사시죠?

앨리슨 : 밴쿠버요. 그전 2년 동안은 몬트리얼에서 살긴 했어요.

변호인 : 알겠습니다. 몬트리얼에는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앨리슨 : 2013년 8월이요.

변호인 : 언제까지 그곳에서 사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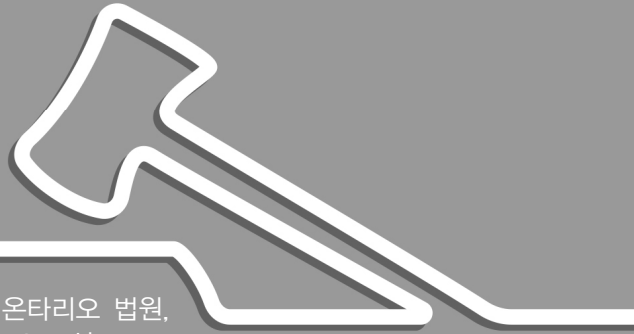
앨리슨 : 2015년 6월이요.』

중요한
신뢰력
판결 시리즈 1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2016.07.21. 선고,
2016ONCJ448 판결



2부 - 법률

226 무스타파 우루야는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식적인 혐의는 다음과 같다.

2015년 1월 31일 혹은 그 경, 토론토 지역의 토론토 시에서, 맨디 그레이를 강간했고, 이는 캐나다 형법 271조의 위반이다.

227 피고인에게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찰 측은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을 그에 따른 합리적 의심들이 해소될 때까지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 i. 우루야가 그레이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 ii. 그레이는 우루야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힘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 iii. 우루야는 그레이가 그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힘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 iv. 우루야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힘은 성적인 성격을 가진다.

228 검찰 측이 재판장이 만족할 만큼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그에 따른 합리적 의심들이 해소될 때까지 증명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나¹⁶⁾는 우루야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다.

229 검찰 측이 재판장이 만족할 만큼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그에 따른 합리적 의심들이 해소될 때까지 증명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나는 우루야의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다.

230 힘의 사용은 직접적일 수 있다. 사용된 힘은 폭력적일 수 있다. 폭력 범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은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도적이다*”라는 것은 그가 힘을 사용했을 때의 심리 상태에 적용된다. “*의도적이다*”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졌다는 뜻이다. 힘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나는 힘이 사용되었을 당시의 주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31 우루야가 *의도적으로* 그레이에게 힘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남게 된다면, 나는 우루야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

232 우루야가 *의도적으로* 그레이에게 힘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16) 재판장. 이 사건 판결문을 작성한 마빈 주커 판사를 의미함.



의심이 남지 않게 된다면, 다음은 합의 여부의 문제로 넘어간다.

233 합의 여부는 심리 상태에 적용된다. 합의란 행위와, 행위의 방식, 행위가 일어난 시간에 대한 자발적 동의이다.

234 고소인 그레이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그녀가 행위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동의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힘, 협박, 공포, 혹은 속임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레이의 온전한 판단 역시 필요하다.

235 그레이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사용된 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남게 된다면, 나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

236 그레이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사용된 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게 된다면, 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37 검찰 측은 그레이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사용된 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루야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는 데에 성공해야 한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할 당시에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8 나는 그레이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사용된 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루야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는가?

239 나는 우루야가 사용한 힘에 대해 그레이가 동의하지 않았을 위험이 있음을 우루야가 알고 있었으나, 우루야는 행위를 계속했고, 우루야가 그레이의 동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는가?

240 나는 우루야가, 그가 그레이에게 (*의도적으로*) 사용한 힘이 그레이와 합의된 것인지 물어봐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레이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진실을 굳이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루야는 그레이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합의 여

부를 묻지 않았는가?

241 그레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루야가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 측이 모든 사실관계의 기초를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

242 우루야가 그레이가 동의한 것을 알았는지, 혹은 몰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나는 모든 증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3 나는 우루야가 (*의도적으로*) 그레이에게 힘을 사용했을 당시와 그 이전, 이후로 이루어졌던 모든 행동과 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4 우루야가 그레이에게 (*의도적으로*) 사용한 힘에 그레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루야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루야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

245 형법 271조는 성폭력을 정의한다. 성폭력은 그 자체로도 범죄일 뿐만 아니라 ss. 272와 273에서 명시된 더 심각한 범죄들의 필수적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두 번째 단락에 의하면, 성폭력은 네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 i. 힘의 사용
- ii. 합의의 부재
- iii. 합의의 부재에 대한 자각 그리고
- iv. 성적인 성격

246 피고인은 성행위가 합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 여부는 피고인 측에 의해서 주장될 것이 아니라 검찰 측에 의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피고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것이다. 검찰 측은 이 요소를 피고인의 실제 자각, 경솔함, 혹은 의도적 무관심을 증명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다. 합의의 부재에 대한 자각은 검찰 측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로서, 어떤 방식으로 파악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관련성을 가진다. *R. v. Lutoslawski, [2010] 3. S.C.R. 60.* 참고.

247 성폭력이 성립되기 위해서 부적절한 이면의 목적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R. v. Ewanchuk, [1999] 1. S.C.R. 330.* 참고. 성폭력이 성립되는 신체적 행동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신체적 접촉

성적인 성격 그리고

합의의 부재

성폭력이 성립되는 정신적 요소들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접촉하려는 의도 그리고

합의의 부재에 대한 자각, 혹은 경솔함, 혹은 의도적 무관심.

248 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폭력은 보통의 폭력처럼 항상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위협은 합의의 부재로부터 나온다. *R. v. Litchfield, [1993] 4 S.C.R. 333*. 참고. 성폭력은 일반적 의도(*general intent*)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행위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그 행위가 성적인 성격을 지녔고, 성적 완전성(*sexual integrity*)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상기 *R. v. Litchfield*, 참고. 성폭력이 성립되기 위해 성적 취향 혹은 성적 만족은 필요하지 않다. (1992), *3d (65) (Ont. C.A.)*를 확인하는 *R. v. V (K.B.), [1993] 2 S.C.R. 857* 참고.

249 성폭력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성적 만족감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R. v. Alderton (1985), 17 C.C.C. (3d) 204 (Ont. C.A.)* 참고.

250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범죄의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된 일련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여부이다. 검찰은 주장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와, 우루야가 그 사건들에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우루야 쪽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주장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남게 된다면, 나는 우루야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

251 나는 양쪽이 각각 제시한 사건 설명 중 단순히 한쪽의 설명을 고르는 식으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나는 범죄의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된 일련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게 될 때까지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252 우루야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 결백함을 주장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우루야가 혐의에 대해 무결한 상태에서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 원칙은 유효하다. 검찰 측이 재판장에게 우루야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을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게 될 정도로 증명하는 데에 성공할 경우에만 우루야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우루야 측이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측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게 될 정도로 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R. Lifchus, [1977] 3.C.R. 320* 참고.

253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형사 사법 제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합리적 의심이란 설득력이 없거나 하찮은 의심이 아니다. 동정이나 편견에 근거한 의심도 아니다. 그것은 이성과 상식에 근거한 의심이다. 그것은 증거 혹은 증거 부족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발생하는 의심이다.”라는 구절.

254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검찰 측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절대적 확실성은 증명에 있어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준이다.

255 합리적 의심이란 무죄 추정의 기본적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입증의 기준이 된다. 이때 입증의 책임은 검찰 측에 있고, 피고인 측에는 항상 입증의 책임이 없다.

256 합의의 부재에 있어서 합의란, 심리 상태에 적용되며, 이는 그때 당시의 행위에 대해, 그리고 성행위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 그레이가 가졌던 심리 상태를 말한다. 그레이의 실제 심리 상태만이 중요시된다. 우루야의 심리 상태 혹은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고려되지 않는다.

257 합의란 그레이가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성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했는가를 말한다.

258 재판장이 자신은 기소된 혐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게 된다면, 나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59 모든 증거를 세심하게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면, 나는 우루야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왜냐하면 검찰 측이 우루야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는 데에 실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60 재판장이 우루야의 진술을 믿게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유무죄 여부(혹은, 기소된 혐의에 있어서의 필수적 요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게 된다면, 나는 우루야에게 (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261 우루야의 진술이 재판장에게 유무죄 여부(혹은, 기소된 혐의에 있어서의 필수적 요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는 정도에 증명할 때에만 나는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R. v. W.(D.), [1991] 1 S.C.R. 742.* 의 Cory J 참고.

262 합리적 의심의 원칙은 신빙성뿐만이 아니라 검찰 측의 증명의 기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진술의 맥락에서, 모순되는 증거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할 수 있다.

263 신빙성에 대한 평가는 맥락에 달려 있다. 우루야의 진술이, 모든 진술의 맥락에서, 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지의 여부이다.

264 W.(D) 판례의 목적은, 사실심리관¹⁷⁾들의 판단이 진술들 간의 단순한 선택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모든 진술의 맥락을 고려해서 사실심리관들에게 유무죄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게 되어야 함을 사실심리관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다. *R. v. Y. (C.L.), [2008] 1 S.C.R. 5* 참고.

265 W.(D)와 관련해서, 두 양립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설명이 각각 주어진 경우에, 나는 그레이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R. v. Avetyysan, [2000] 2 S.C.R. 745* 참고.

266 W.(D.)는 그러나 신빙성에 대한 집착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신빙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들에는 W.(D.)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R. v. Daley (2007), 226 C.C.C. (3d) 1.* 참고.

267 *R. v. Randall, 2012 NBCA 25*에서, 리처드 판사는 재판 도중 피고인에 의해 제시된 변론은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

17) Trier of fact, 재판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진실을 발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재판장이나 배심원을 일컫음.

한다. 특히 26번째 문단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R.S.L.은 피고인의 법정 밖에서의 진술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가중치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가중치가 주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재판장 혹은 배심원들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일이며, 이때 진술이 선서 아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차 신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R.S.L.은 그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증거에서만 검찰 측이 제기한 증거에서도 합리적 의심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만을 지지한다.

268 온타리오 항소 법원은 W.(D.)가 모든 피고인 측 증인, 증거, 혹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검찰 측 증거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R. v. D.(B.)*, (2011), 266 C.C.C. (3d) 197 참고.

269 101번째 단락에서, 블레어 판사는 이것을 판사의 책임에 있어서의 취약함이라고 보았는데, 그는 이 취약함에 대하여, 배심원단이 의심을 품고 있다면 배심원단이 무죄를 선고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114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피고인 측에 의해 제시된 모순되는 증거나, 검찰 측에 의해 제시된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에 대한 신뢰도 측정이 필요하다. 재판장은 합리적 의심의 개념을 이러한 신뢰도 측정과 관련시켜야 한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그들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피고인 측의 증거를 꼭 믿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오히려 모든 증거들의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었을 때, 모순되는 증거가 그들에게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배심원들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270 W.(D.)의 지시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호인이 직접 제출한 증거뿐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할 만 한 모든 증거에 적용된다.

271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입증 책임은 항상 검찰 측에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범죄 행위의 각 요소들을 합리적 의심



이 존재하지 않게 될 정도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72 상황적 증거가 여전히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재판장 혹은 배심원단이 피고인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273 *R. v. D. (J.J.R.) 2006, 215 C.C.C. (3d) 252 (Ont C.A.)*에서, 도허티 판사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을 불신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 당시 일기의 기록을 모두 고려하여, 그가 딸을 강간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린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53번째 단락에서, 도허티는 이렇게 말한다.

재판장은 항소인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비록 항소인의 (면책)증거에는 명백한 흠결이 없으나, [고소인의] 진술과 일기와 관련된 피고인의 증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았다. 상반되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수용에 기반하여 피고인의 증거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피고인이 진술하는 방법이나 피고인의 증거의 핵심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기반하여 피고인의 증거를 기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

274 이 사실은 입증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고소인의 진술의 가치를 인정한다. 와트 판사는 *J.A. in R. v. T.S., 2012 ONCA 289*, 79번째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의 문제에 있어서, 고소인의 진술을 합리적이고 분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 고소인의 진술을 합리성과 숙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논리로,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들과 진술에 내재하는 문제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275 재판장은 고소인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는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때 진술 전체가 고려되어야 하고, W.(D.) 원칙은 분명히 혹은 명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R. v. Binnington (2005), 202 C.C.C. (3d) 364 (N.S.C.A.), R.*

v. L. (R.) (2002), 162 O.A.C. 275 (C.A.), R. v. Tzarfin (2005), 201 O.A.C. 183 참고.

276 캐나다 대법원은 *M. (M.L.), [1994] 2 S.C.R. 3*에서 거부를 표현하는 말을 하지 못 하거나 행동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동의의 표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277 범죄행위에 있어서 동의 여부는, 고소인이 성적 행위를 원했는가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상기 *R. v. Ewanchuk* 참고.

278 고소인의 말과 행동은 그녀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혹은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동의의 추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묵시적 동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말 혹은 행위로 “예(Yes)”라는 표현을 했는지에 따라 범행 의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측정될 수 있다.

279 수동성, 혹은 당사자 간의 과거 관계에 근거한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는 사건 당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소인의 동의가 불가능할 때에 일어난 성적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J.A., [2011] 2 S.C.R. 440* 참고.

280 동의에 대한 믿음은, 고소인이 말이나 행동에 의하여 자발적이고 분명하게 동의 표시를 하였다는 믿음이어야 한다. 수동성 혹은 거부하지 않았음을 동의라고 믿는 것은 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닌 법률에 대한 착오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변호되어서는 안 된다.

281 피고인은 동의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단순한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믿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없고, 제시된 증거로부터 그러한 믿음의 현실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82 피고인은 동의가 공포 혹은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믿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의도적 무관심에 해당된다)

283 변호인이 배심원을 상대로 현실성이 결여된 변론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 절차상의 오류이다. *R. v. Cinous, 2002 SCC 29, [2002] 2 S.C.R. 3* 참고.

284 *R. v. Osolin, [1993] 4 S.C.R. 595, 109 D.L.R. (4th) 478, (1993),*



86 *C.C.C. (3d) 481*의 198번째 단락에서, 코리 판사는 현실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98 ... “현실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재판장이 제시된 증거를, 그것에 대해 이성적인 배심원단이 내릴 판단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증거가 검증을 통과한다면 배심원단에게 변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재판장과 배심원 사이의 기본적인 업무 분담의 예이다.

285 상기 *R. v. Cinous*, 53-54번째 단락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53 증거의 현실성 판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재판장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제시하는 증거가 진실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상기 *Osolin*, 상기 *Park* 참고. 증거 판단의 근거는 피고인, 피고인 측 증인, 혹은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주 신문 또는 반대 신문에서 도출된 증거에서 나올 있다. 또한 사건의 사실적 정황이나 기록상의 다른 증거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 증거가 반드시 피고인에 의해 제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상기 *Osolin*, 상기 *Park*, 상기 *Davis* 참고.

54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재판장의 판단은 피고인의 반론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을 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배심원단의 몫이다. 상기 *Finata, R. v. Ewanchuk, [1999] 1 S.C.R. 330* 참고. 재판장은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진술의 중요성을 가늠하거나, 사실 판단을 하거나, 확정적인 사실의 추론을 하지 않는다. 상기 *R. v. Bulmer, [1987] 1 S.C.R. 782, Park* 참고. 또한 이 현실성 검증은 피고인 측 변론이 승리할 가능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재판장이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증거가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할 실질적인 쟁점에 관한 사항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부이지, 배심원단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가 아니다.

286 대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현실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R. v. Gauthier, 2013 SCC 32* 와, *R. v. Cairney, 2013 SCC 55* 참고.

287 메이저 판사는 “사실에 대한 착오”가 성폭력 혐의의 변호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42번째 단락을 보자.

42 그러나, 성폭력은 고소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커먼로에 따르면 단순한 오해로 고소인을 만졌고,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과실을 변호하는 것은 인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결백한 개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부당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R. v. Creighton, 1993 CanLII 61 (SCC), [1993] 3 S.C.R. 3* 참고. 성폭력의 고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만지려는 의도.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부재를 알고 있거나 확인하는 데에 부주의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함. 상기 *Park*, 39단락 참고.

288 피고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증거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에 대하여 정직하지만 잘못된 믿음(an honest but mistaken belief)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289 동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오해라는 맥락에 있어서 동意的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상기 *Ewanchuk* 48-49단락에 의하면 이렇하다.

48 “동의”의 개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고소인의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관련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각각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범죄 행위에 있어서, “동의”란 고소인이 성적 행위가 일어나기를 원한 것을 말한다.

49 범행 의도에 있어서 -특히 동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오해였을 경우에 있어서- “동의”란 고소인이 피고인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말 혹은 행동을 통해 동意的 표현을 한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구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분석의 두 부분은 분리되어야 한다.

290 메이저 판사는 52단락에서 이러한 변호의 한계점을 설명하기도 한다.

의도적 무관심 혹은 경솔함으로 인해 고소당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사실은 문제의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믿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는 동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오해를 적용하여 변호할 수 없다. 형법 273.2(a)(ii)항.

291 이러한 변호에는 현실성이 존재해야 한다. 단순하게 고소인의 동의(혹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오해)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R. v. Osolin, R. v. Bulmer, [1987] 1 S.C.R. 782, 39 D.L.R. (4th) 641* 참고. 현실성은 고소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혹은 범죄 당시의 주변 상황 모두에 의해 생겨난다. *R. v. Esau, [1997] 2 S.C.R. 777, 148 D.L.R. (4th) 662* 참고.

292 *R. v. Sansregret, [1985] 1 S.C.R. 570*는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들 중 하나이다. 판결의 근거는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것이었다.

293 상기 *R. v. Esau, [1997] 2 S.C.R. 777*에서, 맥라클린 판사는 70번째 단락에서 의도적 무관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70 ... 의도적 무관심이라는 개념은 사실과 상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른 척 하고,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을 못 본 척 한다는 뜻의 법률적 용어이다. 고소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고소인이 동의했다고 가절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동의를 얻는 것에 의도적으로 무관심했다는 논리로 결코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원문에서도 강조되어 있었음.]

294 *R. v. L. v. I.E.B., 2013 NSCA 98*에서,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 법원은 재판장이 273.3(b) 항에 따른 “합리적인 단계”를 수행하지 않았고 범리 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할 것을 명하였다. 올란드 판사는 38-45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38 동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범행 동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로버트슨의 글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증거를 요구할 수 없다. 고소인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로도 충분하다. *R. v. Osolin, supra, [1993] 4 S.C.R. 595, pp. 686-687* 참고.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동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오해를 입증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어렵다. *R. v. Park, [1995] 2*

S.C.R., 21번째 단락.

39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이 변호의 공이 크다. 현실성 검증은, 동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오해의 주장을 포함한 모든 변호에 적용되어야 한다. *R. v. Cinous*, 2002 SCC 29, 57번째 단락. 변호에 있어서 현실성이 존재하는가는 법리의 문제이며, 정확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inous* 55번째 단락.

40 검증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판장은 진술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Cinous* 53번째 단락. 진술 전체를 검토할 때, 재판장은 고소인이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말 혹은 행동을 통해 표현했다고 피고인이 단순한 오해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Ewanchuk* 46-49번째 단락, *R. v. J.A* 48번째 단락. 오로지 고소인의 침묵, 수동성 또는 모호한 행동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은 변호될 수 없다. *Ewanchuk* 51번째 단락, *R. v. Dippel*, 2011 ABCA 129, 13번째 단락. 피고인이 성적 행위를 시작했을 때 단순한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Dippel* 17번째 단락. 고소인이 저항하지 않은 것은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 중 오직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상기 *R. v. Esau*, 22번째 단락.

41 재판장은 동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오해라는 주장에 현실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항소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로 현실성이 존재했는지를 내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현실성이 있다고 했더라도, 재판장은 법적 오류를 범했다.

(b) 동意的 법적 정의

42 항소인은 형법 271항을 위반하고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 측은 재판장이 형법 265, 273.1, 273.2항에 명시된 동意的 개념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본다. 이 조항들의 마지막 부분만을 고려하여도 이 항소는 받아들여진다.

273.2, 271, 272 또는 273항에 의거하여, 고소인이 고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오해가 피고인의



- (i) 스스로 유도한 취한 상태 또는
- (ii) 경솔함 혹은 의도적 무관심

으로부터 유래되었다면, 변호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그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상황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3 *R. v. Cornejo (2003)*, 179 OAC 182 에서, 아벨라 판사(당시 직위)는 273.2항의 목적을 설명했다.

21 이 조항의 목적은 성적 행위의 참가자들이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명확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입법 체계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부적절하게도– 수동성이나 침묵이 동意的 표현이라고 추정했던 것을 반대한다. 코렌조와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는 수동성 혹은 비언어적 대응을 동의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심각한 위협을 감수하게 된다.

44 재판장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실성의 존재 여부를 적절하게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는 피고인이 “그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상황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273.2(b)항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했다. 이는 합리적 조치의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법리 오해이다. *Dippel* 15번째 단락, *R. v. Malcolm*, 2000 MBCA 77 8번째 단락, 캐나다 대법원의 항소 기각, [2000] S.C.C.A. No. 473, *Cornejo* 18–19, 30, 35번째 단락 참고.

45 판결 근거에는 고소인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진술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295 *R. v. Hutchinson*, 2014 SCC 19의 다수 의견에 따르면, 형법은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단계의 절차를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273.1(1) 항에 의해 “고소인이 성적 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것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고소인이 접촉 그 자체, 접촉의 성적인 성격, 혹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필요로 한다. 고소인이 동의했거나, 그녀의 행동이 문제된

성적 행위에 대한 자발적 동의 여부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남기게 된다면, 두 번째 단계로 간다. 두 번째 단계는 265(3) 항과 273.1(2) 항에 의해, 고소인의 표면적 동의 혹은 참여를 무효화 하는 상황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296 다수 의견은 “문제된 성적 행위”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273.1(1) 항에 따라, 고소인이 특정 신체적 행위 자체(예를 들면 키스, 애무, 구강성교, 삽입, 혹은 성인용품 사용)에 각각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사건에서의 접근법은 273.1(1) 항의 일반적 의미와 형법, *R. v. Cuerrier*, [1998] 2 S.C.R. 371 와 *R. v. Mabior*, 2012 SCC 47를 따른다. 여기서의 “문제된 성적 행위”는 성관계였고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콘돔 사용은 피임법이다. 성병 예방은 성적인 행위가 아니다.



2부. 법률

피고인 측 변호인 브리스토의 의견 진술



297 『**변호인** : 그럼 재판장님, 그레이의 진술에 대한 전반적인 논평으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다루고 넘어갈 그녀의 진술의 다른 부분들도 주목되기를 바랍니다.

그레이는, 우루야가 자신의 동의 없이 혹은 자신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증거물 3번, 2015년 2월 2일에 이루어진 그레이의 진술의 18페이지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레이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아, 그게 현실부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친구에게, 저는, 잘 모르겠어, 나는 어젯밤의 섹스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난 정말, 난 동의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게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저는 그냥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야 할 지 몰랐고, 그리고 말씀드리다시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298 마찬가지로 그레이의 진술입니다. “저는 그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술집에서 그를 더듬은 적이 없어요. 그가 “만지지 마”라고 했던 건 완전히 밀도 끝도 없이 나온 소리였어요.”』

299 『변호인 : 그레이는 우루야가 빅토리 카페에 왔을 때, 그녀가 우루야와 시간을 거의 같이 보내지 않았고,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뜨거운 섹스를 하자고 했고, 그가 술집에 오기로 하자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만지거나 혹은 그에게 추파를 던진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300 『변호인 : 세 번째로, 강압적인 힘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확인된 외상은 없었습니다. 20분에서 30분간 언어적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는 우루야가 그녀의 입에 성기를 넣은 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에게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성행위를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우루야가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왜 그녀는 그가 바지를 벗었을 때, 혹은 그가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 혹은 그가 그녀를 침대로 밀쳐 쓰러뜨렸을 때 도망치지 않은 걸까요?』

301 『변호인 : 그레이는 그 성적 행위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가자였습니다.』

302 『변호인 : 저는 그녀가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조금도요.』

303 『변호인 :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우루야가 반복적으로 그녀를 술 취한 걸레라고 불렀다는 것과, 그녀가 창피하다고 말했다는 것, 그녀가 애정결핍이고 자신을 성적으로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 또렷이 진술했지만, 실제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주장할 때에 이르면, 그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304 『변호인 : 그레이의 진술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사건 다음날 아침에는 그녀가 술에서 깨어나서 우루야에게 대답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레이가 그때 당시의 세세한 정황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305 『변호인 : 왜 자신을 강간한 남자에게 “어젯밤 완전 개판이었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원래 의도한 바가, “너 나를 강간한 거에 대해서 사과 안 할 거야?”였다면요. 이 구절들에서, 그레이는 그녀가 성행위를 하고 싶어 했다고 우루야가 생각하게끔 만든 의사소통의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306 『변호인 : 그레이는 우루야에 대한 모든 것을 그녀의 핸드폰에서 지우고 싶었다고 했지만, 그녀의 친구 밀렌과 구체적으로 우루야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저장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재판에서 제시했습니다.』

307 『변호인 : 또한, 그녀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죠. 음, 이 성폭력 사건의 공소요지 중 대부분은 그날 우루야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에 따르는 것인데, 그녀는 이 모든 진술에 대하여 물질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08 『변호인 : 다섯 번째로, 그레이의 진술이 그녀의 정치적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09 『변호인 : 저는 그레이가 우루야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건 당시에는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후회였든,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혐오였든,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복수였든,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끌어내리고 그녀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었든 말입니다. 그녀의 동기는 그녀가 동의했던 행위를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레이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체스 게임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310 『변호인 : 그날 밤, 우루야는 쓰리썸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쓰리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11 『변호인 : 그리고 우루야는 그레이가 화를 냈고 울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루야는 그녀를 달랬고, 그들은 동시에 서로에게 기대서 키스를 했고, 우루야는 그들이 함께 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는 그의 위에 올라타서 오럴 섹스를 했고, 자발적으로 네 발로 엎드렸고, 그 후 그들은 합의된 성행위를 했습니다. 우루야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다음날 아침...』

312 『변호인 : 그레이는 우루야의 위에 올라타서 오럴 섹스를 했고, 자발적으로 네 발로 엎드렸고, 그 후 그들은 합의된 성행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레이는 급하게 떠났습니다.』

2부. 법률

검사 로프트의
의견 진술

313 『**검사** : 7시 55분, “빅토리에 있어. 우리 술 먹고 나서 뜨거운 섹스를 하자”. 그녀는 진술에서 그녀가 언제쯤 도착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아마 8시에서 8시 30분쯤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5분밖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오후 7시 55분에 우리가 계속 재판에서 다루었던 소위 그 문자메시지를, 빅토리 카페에 이미 도착해 있었을 때 보냈습니다.』.

314 『**검사** :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왜인지 공공장소에서는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그녀는 그것을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는, 뭐 상관없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했습니다.

알코올 섭취량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녀는 빅토리 카페에서 맥주 서너 잔을 마셨다고 했고, 파워퍼스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열 잔 정도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파워퍼스에서 그녀는 피고인에게 그의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고, 그는 “알겠어. 하지만 섹스는 안 할 거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영업 종료 시간까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 레이스와 함께 나왔고, 그녀는 레이스가 택시를 타고 떠나자마자 우루야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가 그녀에게 화가 났다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언짢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루야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그와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 성적 사건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모욕당했고, 욕을 들었고, 결례에 술주정뱅이라고 불렸으며, 그는 그녀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친구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15 『**검사** : 다른 노동조합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은 모두의 앞에서 그녀에게 “네가 창피해”, “넌 멍청해” 같은 말을 했고, 이런 말들은 점점 격렬해져 갔습니다. 욕설의 수위와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져 갔고, 결국 피고인은 그녀의 머리를 잡고 그녀에게 오럴 섹스를 시킴으로써 그녀를 모욕하고 그의 성적 욕구를 표출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 너에게 화났어, 너 정말 짜증나, 넌 아무 가치도 없지만 어쨌든 나는 널 따먹을 거고-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 그리고 너도 좋아할 거야.” 같은 말을 한 후였습니다. 모두 피고인 자신만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316 그는 그녀의 동의 없이 그녀의 머리를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오럴 섹스를 시키고, 그녀를 침대에 밀쳐서 그녀에게 성기를 삽입합니다. 그녀가 맞서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고 싫어, 그러면 안 돼, 넌 날 강간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 완전성(Integrity)에 관련된 문제야, 난 동의하지 않았어, 라고 소리쳤을까요?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17 『**검사** :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그녀가 웅크린 자세로 울면서 잠 들었다는 것을 몇 번이나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기억은 우루야가 침대 위 그녀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깬 것입니다. 그녀는 어젯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 그의 태도가 냉담하다고 생각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술에서 깬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맑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녀의 머리를 어제보다는 덜 강

압적으로 잡았고, 그녀는 싫어, 안 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녀는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훨씬 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318 『**검사** : 그녀는— 그녀는 우루야가 그녀에게 설명하는 동안 침대에 누워서 실망에 찬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B급 영화 각본 같군요. 누가 그런 걸 믿을까요? B급 영화를 B급 영화로 만드는 요소가 그거죠.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와, 저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요. 그는 옷을 벗은 후 그녀 옆에 누워서, 우리는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원하는 게 다르고, 이 관계는 잘 풀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B급 영화라면 여자 주인공은 이때 울 것이고, 아마 애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그녀가 원했던 것, 바로 그의 육체적 존재감을 그녀에게 전달 하면서 최대한 그녀를 달래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변호인이 그레이를 반대 신문하는 동안, 변호인의 뛰어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술에는 눈에 띄는 모순이 없었습니다.』

319 『**검사** : 변호인의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기억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빅토리 카페에서는, 생각하는 중이에요, 빅토리 카페에서는 확실히 맥주 세 잔을 마셨어요. 음, 그리고 저는— 저는, 기억해 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바에서 맥주 값으로 40달러를 쓴 거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 지금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이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마시려고 했고, 네, 아마 그 정도로만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입니다.』

320 『**검사** : 그래서, 그녀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321 『**검사** : 자, —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그녀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셨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 받았죠. 그리고 그녀는—,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냥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런 단어를 쓴 거고, 그녀는 그 단어를 쓰지 말았어야 했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322 『**검사** : 그녀는 긴 반대 신문, 주 신문을 겪는 동안 계속 그녀가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완전히 기억을 잃은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술은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피고인이 그녀에게 술 취한 주정뱅이라고 했다는 진술과도 일치하죠.”

323 『**검사** : 그녀가 주 신문과, 길었던 반대 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그녀가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래”라는 답장을 받은 후,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들을 지웠고- 그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말해 줍니다.』

324 『**검사** : 그것은- 그리고 그녀가 모든 문자메시지 기록을 지웠던 행동은, 그녀가 묘사했던 대로 강간당한 사람이 할 만한, 일관성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325 『**검사** : 7페이지. 그의 답변 중간 부분, 첫 번째 줄입니다. 그는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맨디로부터 제가 술집에 왔으면 좋겠고 이따가 같이 섹스를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어요.”라고 합니다.

변호인의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와 그날 밤 성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우루야의 답변입니다. “네. 그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성행위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그는, 그는 그 계획에 마음이 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 중, 5권, 3월 3일, 44페이지, 3번째 줄로부터 시작되는 질의응답입니다.

검사의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럼 당신이 그 문자메시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 생각에는 당신은 맨디 그레이와 뜨거운...”

우루야의 답변입니다. “아뇨, 저는...”

검사의 질문입니다. “뜨거운 섹스를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우루야의 답변입니다. “어,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문자메시지가, 그건 전혀- 그날 저녁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단지 하나의 문자메시지에 의해 예상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검사의 질문입니다. “음, 하지만 그 문자메시지로 인해 당신은 술집으로 가기로 했죠. 당신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루야의 답변입니다. “네, 이유들 중 하나긴 했어요. 그날 술집으로 간 꽤 큰 이유, 음,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검사** : 변호인의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날 밤 당신이 우루야에게 뜨거운 섹스를 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레이의 답변입니다. “그가 저를 강간한 것과 그 문자메시지가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우루야에게 오라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뜨거운 섹스를 할 수 있게 빅토리로 오라고 한 것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경찰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그레이의 답변입니다.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연락처를 제 핸드폰에서 삭제해 버렸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모든 문자메시지를 지웠고 제 페이스북에서도 그를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정확히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지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당신이 오늘 저에게 그 문자메시지들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제가 문자메시지로 뭐라고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326 『**검사** : 어떤 것을 숨기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327 『**검사** : 이 문자메시지 기록들은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계가 맨디 그레이가 묘사한 것과 별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죠. 가



범고 친근했던 관계 말입니다.』

328 『**검사** : 그녀의 진술을 요약하면, 그녀는 세세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해줄 수는 있었지만, 그의 오른손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죠. 그의 왼발이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그녀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진술에 약점에 있다는 뜻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329 『**검사** : 그녀는 또한 자신이 경찰에게 진술을 하게 된 후, 사건 다음 날 아침에 그녀의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한 후,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침습성 강간 키트 검사를 하고 경찰에게 진술을 한 후에야 비로소 자칭 그 분야의 운동가가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답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건...”,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반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330 『**검사** : 변호인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합니다. 29페이지 11번째 줄입니다.

변호인의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당신은 우루야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레이의 답변입니다.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제가 강간당한 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그는 이미 저를 강간했죠. 그러니까, 제가 안심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루야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으니까, 우루야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질문을 고쳐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인의 질문입니다. “음, 제 생각에는, 고메시의 무죄판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고려하면, 비슷하게 우루야가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면, 그건 사법체계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신의 주장에 도움이 되니까, 당신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레이의 답변입니다. “음, 저는 방금 그 발언이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모든 법조계 분들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정의”가 구현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말했던 위민스 칼리지 병원에 계신 제 상담사를 포함해서요. 사법체계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저는 제 상담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될 것 같네요.”』

331 『**검사** : 그리고, 변호인은, 음, 그녀가 자기를 찬 남자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던 실연당한 여자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332 『**검사** : 그건 그레이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들의 관계를 지속적이거나, 애정 어리거나, 혹은 이득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33 『**검사** : 음, 증거물 2의 이 문자메시지들을 봐 주십시오. 그레이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뒤 몇 분 후, 그녀가 9시 43분에 보낸 메시지는, 첫째로, 그녀가 울고 있고 슬프다는 내용이 아니라, “왜 나는 항상 폭력적인 싸이코들만 만나는 거지?”라는 내용입니다.

답장이 오갑니다. “무슨 일이야?” “무스타파는 싸이코야, 일어나 보니까 개가 날 덮쳤던 걸 알았는데 난 하고 싶지 않았어...”』

334 『**검사** : 그녀가 우루야의 집에서 나간 뒤 몇 분 후, 그녀는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를 반, 이를 후 경찰에게 했던 진술, 그리고 재판에서 했던 진술들과 일치합니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직후 몇 분 만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야기를 지어낼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애매함의 문제는, 그녀가 법정에서 명확하게 밝혔듯이, 그녀는 성행위가 합의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헛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이후 그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녀가 상황을 맞게 받



아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녀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표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신경 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녀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라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그가 그녀의 동의를 얻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는 단 한 점의 진실도, 혹은 진실에 가까운 것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성행위의 적극적인 참여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335 『**검사** : 그리고 그들이 침대로 갔을 때, 그가 자신의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그에게 기대서 키스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술집에서 엄청 짜증나게 군 것, 그녀가 두 곳의 술집에서 총 두 번 그의 다리를 만진 것, 빅토리아에서 첫 번째로 다리를 만지고 파워퍼스에서 두 번째로 다리를 만진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매우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녀의 행동은 무례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우리 둘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그녀는, 그의 폭로에 상처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달랠니다.』

336 『**검사** : 하지만 그건, 그의 입장에서의 진실일 뿐입니다. 그 자신의 진실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옷을 벗다가 갑자기 그녀가 짜증나고 너무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론, 그의 따뜻한 본성이 튀어나오고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서 키스하다가, 그녀가 그의 위에 올라타입니다. 갑자기 그녀는 또 적극적으로 바뀌죠. 그녀는 적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려는 생각이 없었고, 주저하죠.』

337 『**검사** : 24페이지, 9번째 줄입니다. 변호인의 질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신고하기까지 3일짜이나 걸린 이유가, 이야기를 생각해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그레이의 답변입니다. “생각이요? 생각하기는 했죠. 저는 생각했고—저는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처럼 상황을 부정했어요. 저는 어떻게

저에게 친절했던 사람이 별 이유도 없이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생각했고- 네, 당연하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게 특이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338 변호인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우루야가 여자친구에게 돌아가려고 당신과 헤어졌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 것이 아닌가요?”

그레이의 답변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저는 고작해야 2주 밖에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제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꼬박 일 년의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네, 완전히 틀려요.” 그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39 『**검사** : 그리고 나서, 그레이는 응급피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피임을 하지 않은 것은 우루야와의 성행위가 상호 간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는 그녀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생리주기 조절법으로 피임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8번째 줄에서 변호인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인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원하던 대로 뜨거운 섹스를 하게 되어 만족스러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또, 그 뜨거운 섹스의 약속에 대해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레이의 답변입니다. “그건 뜨거운 섹스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섹스조차 아니었어요.”

변호인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침에 우루야의 집에서 나왔을 때, 당신은 우루야와 헤어졌다는 데에 꽤 실망해 있었죠?”

그레이의 답변입니다. “아뇨.”

그녀는 이것을 여러 번,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부정합니다.』

340 『**검사** : 그녀는 자신이 동의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말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자신이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341 『검사 : 그녀가 분명하게 우려하는 것은, 그녀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42 『검사 : 재신문에서 그레이는 그녀가 헛갈려 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질문 받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친구에게 명확히 의사표현을 하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을 때 느꼈던 혼란이 정확히 무엇이었는데 대해서요. 4권, 4월 11일, 47페이지, 27번째 줄입니다.

검사의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 성행위에 동의했었는지 헛갈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레이의 답변입니다. “헛갈린 적 없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책한 유일한 이유는 제가 명확하게 싫다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합의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사건으로부터 받은 충격과, 제가 저도 모르게 무슨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제가 동의했는지 동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헛갈렸던 적 없어요.”』

343 『검사 : 변호인은 재판장님께서 이 진술을 그녀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증거로 받아들일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자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권, 3월 3일, 114페이지입니다. 우루야는 오후에 그레이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어젯밤 완전 개판이었지”라는 문자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답장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위쪽, 검사의 질문입니다. “그럼, 음, 30분까지는 아니고, 20분 정도 후에 당신은 “그래”라고 답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루야의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전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장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루야의 답변입니다. “아뇨. 그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그녀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음, “어젯밤 완전 개판이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게 보내는 답장 치고는 굉장히 이상하죠. 그의 진술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그 정도로 해 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25분 후에 “그래”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기다립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합니다. 5일 후, 그는 그녀의 연락을 받지 못하고 그의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117페이지, 5권, 5번째 줄입니다.』

344 『**검사** : 그리고 변호인은 6~7잔의 맥주로는 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레이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그냥 6~7잔이 아니라 6~7파인트¹⁸⁾를 마셨습니다. 확실히 많은 양의 맥주고 그녀는 그때 약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취해 있었습니다.』

345 『**검사** : 그리고 이 사실이 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루야의 입장에 따르면, 그가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성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이 잘 맞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재빨리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장에 따르면, 그는 화가 나 있었고, 그녀는 술에 취해 있어서 좋지 않은 결정들을 내렸고, 그녀가 그의 집에 가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모욕했고, 마지막으로 “내가 널 따먹는 건 이게 마지막일 거고 너도 그걸 좋아할 거야.”라는 최악의 모욕을 했습니다. 이게 그가 했던 일들입니다.』

346 『**검사** : 우루야의 룸메이트, 소의 진술에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짐작건대 그는 (사건 현장의) 바로 옆방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레이가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면 룸메이트가 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려고 증인으로

18) 1파인트는 약 0.5리터.



불러왔습니다. 그는 만약 그레이가— 만약 그녀의 말처럼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면 자신이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나중에 그레이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소리도 몇 번 지르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말투가 거칠어진 것뿐이었다고 정정했습니다-

이 룸메이트의 진술이 뜻하는 바는, 그가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룸메이트는 항상 창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 잠드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밤에 거의 아무 것도 듣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진술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루야의 여자친구, 무어의 진술도 비슷하게 별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자가 하는 모든 말을 믿는다고 법정에서 명확하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기로는 그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열린 연애편제였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루야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레이를 성적으로 적극적인 위치에 놓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동의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다른 주장과 완전히 상충됩니다.』

347 『변호인 : 재판장님, 몇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들이 있습니다.』

348 『변호인 : 제가 성폭력의 신체적 요소들에 있어서 대수롭지 않은 모순은 있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그레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49 『변호인 : 제가 그녀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 것은, 그녀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려던 의도가 아니라, 그녀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던 맥락이었습니다.』

350 『변호인 : 법정에서의 그녀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태도가, 그녀가 이 모든 절차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제 이전

의 주장을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351 『재판장 : 하지만, 그레이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동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52 『변호인 : 그렇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우루야의 진술을 믿으신다면 말이죠.』

353 『변호인 :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께서 그의 진술을 믿지 않으시고 그레이의 진술만을 믿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의 주장만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섹스에 대한 문자메시지 말인데요. 그건, 음, 저는 그녀가 문란하다든가 그런 말을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기를 바랐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문자는 그녀가 우루야에게 그의 집에서 자고 가도 되는지 물어봤던 것을 그녀 쪽에서 증명합니다.』

354 『변호인 :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꼭 그랬어야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그녀 쪽의 주장처럼 우루야가 그녀의 입에 그의 성기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그때 싫다고 말하거나 저항하거나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도중 그녀는 그녀의 등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원했다면 그녀는 침대 위쪽으로 피해갈 수도 있었으며, 그레이는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녀 쪽의 진술만 들어도, 그녀의 진술들은 동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들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355 『변호인 : 변호인의 질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 당신과 같이 있지 않을 때 그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356 그레이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는 서로 하지 않기로 동의했어요. 그건 저희가 다른 사람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면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면, 별로 상관없었어요.”』



357 『**변호인** : 두 가지 정도 문제만 짧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사는 우루야가 술에 취한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술에 취한 여자들에게 매력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는 내용을 방금 읽었는데요. 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그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58 『**변호인** : 저희는 이 일이 2015년 1월 31일에 일어났고, 우루야와 그레이 모두 그날 밤이 굉장히 추웠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사는 소에게 그가 평소에 창문을 열고 지내는지, 혹은 차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검사는 소에게 정확히 2015년 1월 31일 밤에 창문을 열었는지 열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2부. 법률

역사



359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성향에 대한 정보는 보통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뜨거운 섹스”에 대한 문자메시지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뜨거운 섹스”에 대한 문자메시지는 다양한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이 문자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루야의 혐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360 문자메시지들은 고소인이 성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나, 그레이의 성적 성향을 증명하지 못한다.

361 진술은 (a) 그 진술이 없다면 어떤 사실의 개연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b) 그 사실이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에만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들이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녀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해도 된다는 허락이 될 수 없다.

362 피고인의 주장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양식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레이가 동의했다고, 혹은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래 관계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완척 사건 이후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원래 존재했던 성적인 관계로부터 알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거의 없어졌다.



363 “성적 행위”의 개념은 형법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그 정의에 부합하고, 어떠한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가?

364 *R. v. Zachariou, 2015 ONCA 527*에서 고소인은 두 명의 남자에 의해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성행위가 합의된 것이며, 고소인이 세 명에서 동거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였다는 논리로 변호했다. 고소인은 주 신문에서 그녀가 세 명에서 하는 성행위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인들은 몇 달 전 그녀가 자카리오에게 자신이 “쓰리썸”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으며, 그에게 키스했고 그와 그의 여자친구(그의 여자친구 역시 그녀의 친구였다)를 집에 초대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그녀를 신문하고 싶어 했다.

365 재판장은 쓰리썸에 대한 사전의 논의가 “선행되었던 성적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진술의 중요 가치가 그것의 큰 부정적 효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항소 법원은 고소인이 쓰리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성적 행위라고 본 사실을 포함하여, 276번 판결을 지지했다.

366 “성적 행위”는 성적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는 증거가 존재하는 모든 활동으로 구성된다. 성적 행위에는 신체 부위의 접촉이 필요하지 않다.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R. v. J.I., 2015 ONCJ 61* 참고. 재판장은 276 판결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제시된 증거(그녀가 쉽게 증거를 조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그녀가 성행위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가 그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며, 그녀가 두 차례나 비슷한 방식으로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367 재판장은, 고소인의 과거 성적 행위들에 대한 증거는 증명력이 아예 없거나 혹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러한 증거를 인정할 경우) 고소인들이 성폭력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68 *R. v. Beilhartz, 2013 ONSC 5610*에서 재판장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이전에 껴안았던 것은 “성적 행위”가 아니며 s.276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소인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그 손을 그녀의 가슴에 올려놓은 이전의 사건은 명백하게 “성적 행위”라고 밝혔다.

369 *R. v. Darrach, [2000] 2 S.C.R. 443*에서 대법원은 고소인의 다른 성적 행위에 대한 증거들은 해당 성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밝혔다(58, 59단락).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고소인의 관점에 서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성적 행위는 해당 성적 행위의 동의 여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경우에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370 곤티에 판사는 276 판결이 모든 합의되지 않은 성적 행위에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과거의 성적 행위에 대한 증거들은 a)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편견과 b) 신빙성 없는 증인을 늘림으로써 법안의 목적을 망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성폭력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2부. 법률

신빙성



371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인간 행동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몇몇 행동들은 우리의 상식 밖에서 일어나거나 우리의 편견 외부에 존재한다. 이때 상식과 특수적 지식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다.

372 폭로가 시간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 아니다. *R. v. G.G., [1977] O.J. No. 1501 (C.A.)* 참고.

“이때까지 캐나다의 어떤 법원도, 아동 시절에 겪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폭로가 늦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재판장이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373 하지만, 폭로가 시간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상식일 수도 있다. *R. v. D.D., [1998] O.J. No. 4053 (C.A.) ((2000) 148 C.C.C. (3d) (SCC) 로 에서 확인됨)* 참고.

“마샬 박사의 진술을 허용하면서, 재판장은 배심원단에게 폐를 끼쳤다. 그는 이 행동에 대한 배심원단의 이해력과, 배심원단이 어린이와 성인의 행동에 대한 그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다.”

374 문헌에 기록된 사법적 진상조사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는 것, 불완전하

게 신고하는 것, 신고가 늦어지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모두 흔한 사례들이다.” *R. v. L. (W.K)*, [1991] 1 SCR 1091 참고.

375 상식이란 우리가 알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진실된 것과 허울만 그럴듯한 것을 구별해내는 묘한 능력이다”. *R. v. Pappajohn*, [1980] 2 S.C.R. 120 으로부터 156, per Dickson C.J. 참고. “사람이 기억하는 것들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와, 인간 기억력의 재구성 혹은 연상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한 작동은, 배심원단의 지식에도 일상적으로 적용된다.” *R. v. Fong*, [1981] Qd. R. 90 으로부터 95 (Q.C.C.A.). 참고. *R. v. Perlett*, [2006] O.J. No. 3498 (C.A.), *R. v. M.(B.)* (1998), 130 C. C. C. (3d) 353 (C.A.) 와 *R. v. Francois*, [1994] 2 S.C.R. 827 으로부터 840 역시 참고.

“배심원단은 그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가진 지식과 상식, 그리고 경험을 통해 고소인의 억압되고 회복된 기억을 그들이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1990년에 겪었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진실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맥라클린 판사(당시 직위).

376 과학으로 위장한 상식이 더 상위의 영향력을 끌어당길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필요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내재된 문제점이 있다. 전문가가 사실심리관의 기능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진보적인 접근 방식은, 재판이 사실심리관으로 하여금 어느 전문가를 받아들일지 심사하게 하는 전문가들의 경연이 아니라, 단순한 보살핌의 역할이 되게 한다.” *R. v. Mohan* [1994] 2, S.C.R. 9. 참고.

377 물론, 비공식적인 주지의 사실, 상식, 상식에 속하는 지식, 경험, 공식적인 주지의 사실, 명확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들), 악명 높은 사실(들), 합리적 분쟁이나 논쟁을 넘어서는 사실(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접근 가능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정확한 출처에 의거해 즉각적이고 정확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들)이 있다.

378 사실의 문제는 어느 경우에 법의 문제가 되는가? 성폭력 범죄의 모든 희생자가 범죄 사실을 즉각적으로 폭로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R. v. D. (D.)* (2000), 148 C.C.C. (3d) 41 (S.C.C.) 59, 63단락 참고.

379 주지의 사실의 허용 범위는 고려 중인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사



실이 처분적 문제에 가까울수록, 법원은 그것을 사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주지의 사실로 허용할 수 있다.

이성적인 사람들 간에 그 문제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악명이 높음 혹은

접근 가능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정확한 출처에 의거해 즉각적이고 정확한 입증이 가능함.

“사회적 사실”이란 사실의 발견 과정과 관련된 판결이 아닌 사실들이다. “입법적 사실”이란 입법 혹은 사법정책과 관련된 판결이 아닌 사실들이다. 주지의 사실이 인정되는 범위는 “사회적 사실”과 “입법적 사실” 모두와 관련하여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용도대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주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의해 합리적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신빙성과 신뢰성의 필요는 문제의 성격에 있어서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R. v. Spence, [2005] 3 S.C.R. 458.* 참고.

380 무엇이 “상식”을 구성하는가는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시공간에서 공동체의 상식에 의해 판단된다. *R. v. Zundel (1987), 31 C.C.C. (3d) 97 (Ont. C.A.),* 항소 기각됨 (1987) 1 S.C.R. xii 참고. 경험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 역시 주지의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 판사는 무엇을 주지의 사실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녀가 주목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주지의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381 1991년 10월 23일의 R.R.에 대한 상원의 결정에 따르면 “근대 잉글랜드 법률은 부부 간 강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1991] 3 W.L.R. 767* 참고. 하원은 최고 법원의 형사 분과에 속한 다섯 명의 구성원이 내린 결정을 지지했다. 레인 수석판사에 의해 발표된 이 판결은 “남편의 면책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상관 없이, 강간법은 오로지 형법에 의해 강간범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법이 선언해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1991] 2 W.L.R. 1065, 1074B-C* 참고.

382 여성 또는 남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권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도전 받을 수 없는 권리를 향유한다는 원칙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어 보일 정도로 자명한 원칙이다. 강압은 사랑, 그리고 성관계와도 반대되는 개념이다. 타인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사람은 당연히 존재해야만 하는 신뢰와 상호 존중을 무너뜨린 것이다. 어떤 실제의 혹은 상상된 어려움이 따르던 간에, 형법은 적어도 어떤 행위 가 용납되는지 혹은 용납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명제로서 작용해야 한다. 사회는 더 이상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중세적 관념을 용인하지 않는다.

383 피해자는 자신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고투하거나 맞서 싸워야 하는 달갑지 않은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며, 피해자가 공격을 받았을 때 행동하는 방식과 상반된다.

384 블랙스톤은 이렇게 쓴 바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 결혼의 과정에서 여성의 실제적 혹은 법적 존재는 사라지며, 혹은 적어도 그녀의 남편의 존재에 합병되고 통합된다는 뜻이다. 남편의 보호와 보장 아래에서 그녀는 모든 행위를 수행한다...” Commentaries (1765), I, 442.

385 여성 또는 남성을 소유물로 보는 개념은 현대적인 관점으로는 매우 불쾌하게 보인다.

386 “진짜” 강간을 구성하는 요소, 혹은 “진짜” 성폭력의 피해자가 행동해야 하는 방식(예를 들면 비명을 지르다던가, 온 힘을 다해 저항한다던가, 즉시 신고하는 것)에 대한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존재한다. 아무리 법이 발전하더라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건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387 “진짜”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들도 존재한다. 고소인이 멍청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공격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그녀 또는 그를 비난하는 것이다.

388 성폭력은 한 개인의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에서 용인될 수 없다. 성폭력은 강간부터 강압적이지 않은 성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다. 성폭력은 의도적인, 허락 받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나 그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합의는 알려지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상호 이해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물리적 힘이 사용되었다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고소인이 피해자의 행동양식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고소인을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없으며, 각각 독립적이다. 신고가 늦어진 것, 피해자의 심리 상태(예를 들어, 피해자가 침착해 보인다는지 혹은 눈에 띄게 동요하고 있다든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은 것.

389 적극적 합의란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동의한 데에 있어서 드러나는 공통의 요소들을 말한다. 항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했다는 자각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 합의란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동의이다. 성행위에 관여한 모든 사람은 그 또는 그녀가 상대방과 성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390 합의의 정의는 최소한 a)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한 것을 뜻함. b) 언어적 혹은 물리적 저항이 없었음. 위협 또는 힘의 사용에 굴복한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c) 상대방의 옷차림은 동의의 의사표현이 아님. d) 과거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미래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님. e) 한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기로 동의한 것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님. f) 개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g) 개인이 그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황 상 의식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을 인정한다.

391 동의는 말 혹은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말 혹은 행동을 통해 성적 행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침묵, 혹은 저항의 부재는 그 자체로는 동의라고 볼 수 없다.

392 성 혹은 젠더와 관련된 폭력을 다루는 데에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권력,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Lucy Bancroft의 Why Does He Do That? Inside the Minds of Angry and Controlling Men (2003), 수잔 브라운밀러의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1993), 수잔 에스트리히의 Real Rape (1988) 참고. 왜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지, 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공적 권력과 협력하는 것을 꺼려하는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포래집단 내의 낙인찍기를 경험하고 트라우마에 반응하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레베카 캠벨, 에밀리 드워킨과 지아니나 카브랄의 An Ecological Model of the Impact of Sexual Assault on Women's Mental Health, 10 트라우마, 폭력과 학대 225 (2009) 참고.

393 우리는 종종 통념과 상반되는,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 방식, 기억의 파편화와 기억의 뒤늦은 소환, 비협조적인 피해자, 권력과 젠더 및 섹슈얼리티 간 상호 작용의 역학을 목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매트 J. 그레이와 토마스 W. 롬바르도의 Complexity of Trauma Narratives as an Index of Fragmented Memory in PTSD: A Critical Analysis, 15 Appl. Cognit. Psychol. S171-S186 (2001) 참고.

394 적극적 합의란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동의이다. 적극적 합의는 성적 행위 도중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며, 어느 때에든지 철회될 수 있다. 성적 행위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나, 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합의라고 볼 수 없다.

395 엘렌 펜스와 마이클 페이마르가 쓴 Power and Control: Tactics of Men Who Batter (1986)이라는 이름의 교육 매뉴얼에서 (이 매뉴얼은 후에 미네소타의 폭력 범죄 가해자들에게 사용되었다), 펜스와 페이마르는 폭력을 통제의 한 형태로 보며, “가해자, 피해자, 혹은 그들의 관계에 각각 또는 모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폭력의 원인이라는 과거의 이론들을 거부한다.

396 일반 사회에서 수용되는 형태의 통제에 저항하는 여성들(예를 들면,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저항하는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덜 받는다. 지배의 여러 형태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전통주의라는 명분 아래 포섭됨에 따라, 지배에 저항하다가 상처를 입은 여성은 그녀가 겪은 고통의 본질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기도 더 어렵다. 우리는 사법제도에 존재하는 압력을 자각하고, 법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의식까지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97 폭력은 관계에 있어서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며, 폭력의 대상이 되는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해자는, 폭력 사건 혹은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의 심리 상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남성들은 그들의 파트너가 행동하는 방식을 지시하고 결정하기를 원하며, 그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이를 성취한다. 그들은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들의 요구에 복종시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

398 “그녀는 왜 그와 헤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실제로 그 여성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말이다.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실제로 헤어진 여성들은 감추어진다. 법은 여성의 자율성을 가정한다. “그녀는 왜 그와 헤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그녀가 그와 헤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선택의 강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피해자가 겪은 경험과 고통을 드러내고, 헤어짐에 대한 논의를 폭력을 통한 통제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399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Acquaintance rape)이란 아는 사람 혹은 친구에 의해 강요되거나, 거짓말로 조작되거나, 강제된 성행위를 말한다. 이는 폭력성, 공격성과 권력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400 논란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사건에는 성행위가 합의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입장의 이야기가 흔히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합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거나 심지어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믿는다.

401 그레이의 입장에 따르면,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느꼈으며,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의 표시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그의 성적 접근에 저항하거나 이를 제지하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단지 굳어 있었을 뿐이었다. 데이트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어느 정도까지 성적으로 친밀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성적 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의사소통의 실패로 드러난다. 첫 번째로, 순수한 (나쁜 의도가 없는) 생각의 불일치였던 경우가 있다. 남성은 여성이 동의하였으며 성적 행위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성적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성적인 접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로, 명확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남성 쪽에서 자신의 의도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든, 아니면 여성 쪽이 남성이 그러기를 원했거나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든 말이다. 세 번째로, 남성이 여성의 간접적인 흥미의 표현, 예를 들면 대화를 나누는 것이나, 그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 혹은 명확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지 않는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로, 남성이 상대방과 점차적으로 친밀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존하여, 여성에게서 명백한 거절의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 성적 행위를 계속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다섯 번째로, 피해자가 자신의 거부 의사를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예를 들면, “몸이 굳는 것”)은 불편함의 표시라기보다는 흥분의 표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애매한 표시들은 성적 행위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402 논란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사건 중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분명한 거절 의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403 오해가 생길 명백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구를 서로에게 드러내는 데에는 비언어적 단서들이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면 눈 마주치기, 신체적 거리를 가깝게 하기, 암시적인 움직임 등과 같은 것이 있고, 이는 열정적으로 키스하기, 옷 벗기기와 같은 대담한 성적 접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성적 행위에 참여하기를 언어적으로 명백하게 요청하는 경우는, 성적 접근에 대해 언어를 통해 명시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 흔하지 않다.

404 게다가 성적 의사소통에서는 거절의 표현을 직접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저항에 실패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예이다. 성적 접근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서로 상호 작용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저항하지 않음은 충격, 혼란, 수치심, 거절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을 나타내는 반응일 수 있다.

405 상호 간의 알코올 섭취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 혹은 성적인 행위에 동의한다는 신호가 아니다.

406 성폭력 혐의가 제기되면, 양 측의 당사자들은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 받는다. 예를 들면 관계의 세부사항이나 문제의 사건으로 이어졌던 상호 작용들, 사건 도중에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이나 발언들, 상대의 행동이나 발



언에 대한 감정, 반응 그리고 해석,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의도,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많은 세부사항들은 사건 이후에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러한 세부사항에 집중하지 않았을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이 아예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동의나 거절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가는 법적 맥락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사건의 큰 골자만 기억할 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는 특히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러하다. 기억에 남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양 측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사건의 큰 골자와, 그들과 상대방의 행동에 따른 그들 자신의 대체적인 반응과 해석 정도이다.

407 인간의 기억력은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재구성되며,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고, 추측과 편견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게다가 사람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 그리고 세계관과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408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동의는 자동적으로 암시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을 때, 혹은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했을 때?)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거절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여겨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해야만 하는가?

409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강간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행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

410 성폭력의 실재와 특수한 정서적 외상(Trauma), 성폭력 고유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411 수많은 성폭력 사건이 본래 믿었던 사람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생존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성폭력 또는 강간이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412 개인이 성폭력 사건을 늦게 신고하거나 혹은 아예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는 다음 이유들이 포함된다.

- 사건이 신고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지 않음
- 범죄가 일어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음

- 가족이 알기를 원하지 않음
- 보복에 대한 두려움
- 경찰의 대처에 대한 두려움
- 사건에 대한 증거 부족

413 안토니아 에비 외의,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ntity of Alcohol Consumed and the Severity of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College Men*, 18(7) *J. of Interpersonal Violence* 813 (July 2003) 참고. (“적은 양의 알코올은 긴장을 완화하고, 많은 양의 알코올은 자제력을 잃게 하며,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은 잠재적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한다.”).

414 알코올로 인해 용이해진 성폭력의 사안에서 누군가를 완벽한 (성폭력의) 표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뒤따르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도 그 사람을 신뢰받을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든다. 그 요인이란, 그 또는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415 합의 여부의 문제는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리고 늘 상존하는) 문제이다. 성폭력 사건은 양쪽 혹은 한쪽의 알코올 섭취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건에 대해 제한된 기억을 갖게 되거나, 혹은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재판장은 다른 증인들로부터 제공된 정보들 혹은 다른 보강 증거들을 입수하고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다. “너 나랑 섹스하고 싶니?”라고 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416 각각의 성적 행위에 대해, 또 각각의 성적 접촉이 일어날 때마다, 그에 대한 동의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성적 행위에 연루된 두 사람 모두의 의무이다. 성행위를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 성적 행위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만족스러운 성적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다음번의 성적 접근을 허용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417 우리는 자주, 성폭력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입견 혹은 오해를 가진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왜 피해자는 폭력을 나중에 신고했는가? 왜 피해자는 처음에는 아무런 대처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가? 왜 피해자는 사건을 깔끔하게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단편적



으로만 서술하는가? 왜 피해자는 경찰에 진술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이제 와서 기억한다고 하는가?

418 성폭력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트라우마적 사건에 대한 “보통”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보통”의 반응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신고가 늦어지는 것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드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고 피해자가 진실되지 않으며 폭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패트리샤 L. 팬플릭의 “Victim Responses to Sexual Assault: Counterintuitive or Simply Adaptive?”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2007), p.9 참고. 또한,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 대처 전략에는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매일매일 대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의 반응은 그 행동에 있어서의 다양성 때문에 자주 분석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피해자는 어떤 때에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으며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때에는 불안하고 다른 생각에 정신이 팔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몇몇 관찰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Fanflik, 14페이지 참고.

419 알코올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취한 상태였고,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후회했을 것이라는 초기의 추측이 있을 수 있다.

420 많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뿐이다. 이는 양 측 당사자의 이야기에만 근거해 결론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421 기술의 발전은 성폭력 사건 당시에 대한 많은 정보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당시와 전후로 당사자 간 교환된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는 양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많은 경우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높다. 단 하나의 증거가 그 자체만으로 판결의 방향을 결정할 확률은 매우 적다. 피해자가 동의 가능한 상태였는지, 혹은 동의했는지를 말해주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22 재판장은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자이다. 우리는

각각 모든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신뢰도와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순을 해결하고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은 진술이 어떤 것인지 판단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증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거나, 일부만을 믿거나, 아무것도 믿지 않을 수 있다. 증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증인이 말하는 방식이 그 증인의 진술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423 증인은 그가 이전에 말했던 것과는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모순이 증인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모순이 증인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때때로 무언가를 잊어버린다. 모순은 의도적이지 않은 순수한 기억의 혼란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된 거짓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혹은 둘 다인가? 그리고 그것은 모순이 작은 일에 관련된 것인지, 큰 일에 관련된 것인지와 상관이 있는가?

424 우리는 증거로부터 추론할 권리가 있다. 추론은 때때로 정황 증거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도 추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주어진 정보들에 인생 경험을 적용하고,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는 논증의 작은 과정들이다.



2부. 법률

판결



425 피고인과 그레이가 주 신문, 반대 신문, 재신문에서 진술한 모든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성은 명백했다.

426 우선, 2015년 1월 30-31일에, 우루야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우리는 그 여자친구의 진술을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앨리슨이다.

427 우선, 2015년 1월 30-31일에, 우루야와 그의 여자친구 앨리슨은 열린 연애관계에 있었다.

428 우선, 2015년 1월 30-31일에, 우루야는 그의 다섯 번째 “또 다른”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다. 그는 2013년 여름, 약 18개월 전부터 또 다른 여자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이 다섯 번째 또 다른 여자친구는 고소인 맨디 그레이였다. 앨리슨은 이 다섯 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429 우선, 2015년 1월 30-31일에, 우루야는 다섯 번째 여자친구, 고소인과 가벼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430 우선, 2015년 1월 30-31일에, 우루야는 쓰리섬에 대한 명백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여자친구 앨리슨, 그의 당시 친구, 맨디 그레이, 그리고 가젤(예전 친구)에 의해 증명된다.

431 우선, 2015년 1월 30-31일에, 우루야는 그레이와 같은 요크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다.

432 우선, 2015년 1월 30-31일에, 우루야는 가젼이라는 여성과 (아마 그의 네 번째 또 다른 여자친구) 헤어진 혹은 헤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433 우선, 2015년 1월 30-31일에, 가젼과 그레이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 그들은 지인 관계였다.

434 2015년 1월 30일 이전, 그레이와 우루야는 서로를 2주 동안 알고 지냈다. 2주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설명되었다. 그들이 2주 동안 맺은 관계는 그들이 나눈 문자메시지 기록에 잘 드러나 있다.

『**그레이** : 저는 그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고, 남자친구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때 그냥 그와 어울리는 게 좋았을 뿐이에요.』 (2015년 2월 2일, 경찰에서의 진술 10페이지)

435 2015년 1월 30일 오후 7시 55분에 그레이가 우루야에게 보낸 그 문제의 문자메시지, “와서 술 먹고 나서 우리 뜨거운 섹스를 하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해석이 이루어졌다.

436 우루야는 그날 (2015년 1월 30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가 그날만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빅토리 카페에서 파워퍼스로 자리를 옮기기 전, 그는 집에서 나와 빅토리 카페에 도착했다.

437 1월 30일 오후 8시쯤부터 파워퍼스의 영업 종료 시간인 2015년 1월 31일 오전 2시 30분까지, 그레이는 맥주 7-8잔을 마셨다. 우루야는 빅토리 카페에 오후 9시쯤 도착한 후 맥주 몇 잔 정도를 마셨다. 우루야의 관점으로 본 이야기는 진실되게 시작된다.

438 우선, 뜨거운 섹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는 성행위를 매우 하고 싶어 했고,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지만 기대에 부응할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했다.

439 우루야는 자신의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고 싶기라도 한 듯이, 그레이가 그를 개인적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 추행했다고, 빅토리 카페에서 더듬었다고 말이다. 그는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우루야의 말에



따르면, 그레이는 파워퍼스에서 또다시 그를 추행했고 그는 또 화가 났다. 이는 그레이의 적극적인, 하지만 제지될 수 없지는 않았던 태도의 연장선이었다.

440 우루야는 빅토리 카페에서 그날 밤에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레이가 암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파워퍼스의 칸막이 좌석에서 그레이가 테이블 밑으로 그를 더듬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441 우루야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가 그를 여러 번 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바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파워퍼스 영업 종료 시간 이후 파워퍼스를 떠났고, 레이시(그레이의 친구)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우루야의 말에 따르면, 그와 그레이는 20-30분 동안을 행복하게 팔짱을 끼고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워퍼스에서 그의 집까지 걸어갔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맨디는 “나로는 충분하지 않니?”라고 물어봤고 그는 “충분해”라고 대답했다. 그레이에 의하면 우루야는 레이시가 그들과 함께 그의 집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 그녀는 걸어가는 길에 우루야가 화를 냈고, 그의 말투가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442 갓 사귀기 시작한 가벼운 관계에 있는, 두 명의 행복한 연인들은 (비록 우루야에게 있어서는 다섯 번째 연인이었다고는 해도), 아마도 성행위를 하기 위해 우루야의 집으로 향했다. 우루야가 성행위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성행위를 할 계획이었다.

443 왜 그렇지 않았겠는가? 적어도 그레이는 술을 많이 마셨고, 그들은 행복했으며 파업 투표의 결과도 좋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는가?

444 그들은 그의 집에 도착했고, 우루야의 말에 따르면 침대로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루야의 진술에 따르면, 그레이는 그에게 키스하기 위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피했다고 말했다. 우루야의 진술을 따른다면 그레이가 우루야에게 저지른 세 번째 성추행이다. 그레이의 평소 성향인가? 애정 표현인가? 누군가는 그것을 전희라고 할 수도 있다. 성행위의 첫 단계인가? 그리고 우루야는 그가 그레이에게 한 말에 대해 진술했다.

445 우루야의 진술에 따르면, 그레이는 그의 말을 듣고 좌절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느끼고 상처받은 것 같았다고 한다. 그녀는 울기 시

작했고, 그는 그녀를 달랠고 또 사과했다. 그리고 그레이는 “우루야의 바지를 벗기고 오럴 섹스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네 번째로 우루야를 그가 기대치 않게 추행했다. 우루야에게 있어서 그날 밤 있었던 일은 합의된 성행위였고, 오히려 그레이는 그날 밤 내내 계속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게 될 마지막 성행위였다. 그 역시 성행위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레이는 적극적인 행동을 결코,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선명하게 상황을 묘사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아침이었다. 그레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우루야의 집에서 나왔다.

446 우루야의 말에 따르면, 파워퍼스에서 가젼은 그에게 그레이가 쓰리썸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해 주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역시도 쓰리썸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이걸 그레이가 그를 처음으로 더듬기 전인가? 혹은 두 번째로 더듬기 전인가? 확실하지 않다. 그 역시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447 맨디, 레이시와 우루야는 총 세 명이었고, 쓰리썸을 원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빠져서는 안 됐다. 택시는 떠났고 쓰리썸의 기회 역시 떠나 버렸다.

448 우루야는 2015년 1월 31일로부터 며칠 후 우연히도 가젼으로부터 쓰리썸이 어땠냐는 질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젼에게 쓰리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진술했다.

449 적어도 우루야의 입장에서는, 우루야는 그레이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우루야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녀의 집착적이고 공격적인, 쓰리썸까지도 원하는 성적 행동에 있어서 피해자였다. 우루야와 그의 메신저 가젼에 따르면 맨디는 쓰리썸에 관심을 보였다. 그것이 맨디의 계획이었을까? 맨디가 레이시를 우루야의 집에 함께 가자고 부추겼는가? 그렇지 않다. 레이시가 우루야의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맨디가 막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루야의 말에 따르면, 우루야는 레이시가 자신과 맨디와 함께 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는가?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450 우루야는 그들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맨디에게 꽤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가? 나는 너한테 나를 더듬지 말라고 (나를 공공장소에서 만지지 말라고) 했고 너는 알겠다고 했지만, 너는 오히려 또 나를 더 공격적으로 더듬었어. 나는 너에게 우리 사이가 끝났고, 왜 끝났는지를 말해. 그리고 너는 울어. “우리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451 그의 말에 따르면 앨리슨은 2015년 4월에 몬트리얼로 다시 돌아온다. 그가 그 사실에 대해 신경을 쓴 적이 있는가? 그는 마치 언제는 신경을 썼던 것처럼 앨리슨이 알아차릴지도 모르니까 비밀로 해야 해, 라고 말한다. 그는 언제, 어디에서 앨리슨에게 헌신한 적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 헌신했는가? 맨디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심지어 그녀는 그에게 사과도 한다. 나중에 그녀는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와 성행위를 할 준비를 한다. 우루야의 말 따르면, 그녀는 그에게 덤벼들고, 심지어 후배위로 성행위를 한다.

452 이 가벼운 관계는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이다.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나 버렸지만 그는 그의 변호인에게 맨디와의 성행위는 합의된 것이었으며, 오히려 맨디가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453 우루야의 말에 따르면, 맨디는 우루야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 그는 대부분의 옷을 입고 있다. 왜 옷을 벗는 데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그의 생각에는 맨디는 민소매 하나만 입고 있다. 피고인은 긴 팔 셔츠와 긴 바지를 입고 있다. 맨디가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려고 한다. 그는 그녀를 피해 움직인다. 넌 나쁜 여자야(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전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는 그녀를 타이른다. 우리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관계는 끝이야. 맨디는 사과하고 울기 시작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녀를 달래려고 시도하며, 그녀를 껴안는다. 그는 그녀의 팔과 등을 만진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뻐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그는 등을 돌려 눕는다. 그녀는 그의 바지를 내리고, 그의 셔츠를 벗기고 오럴 섹스를 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라고 묻는다. 응, 콘돔 없이 후배위로. 그는 피곤했는가? 그는 그저 자고 싶었는가? 동요하고 있었는가? 화가 나 있었는가? 이 모두일지도 모른다. 맨디를 거부하고(그는 그렇게 했다), 그녀를 꾸짖고(그는 그렇게 했다), 우리 관계가 끝났다고 말한다(그는 그렇게 말했다).

454 어쨌든 우루야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성행위를 할 때 맨디는 계속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다. 생각해 보라, 긍정적인 감정들은 항상 기분을 좋게 한다. 거절은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처음에는 상처가 된다. 이 모든 일 이전에 그는, 맨디에게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한다. 그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난 적이 없다.

455 보통 이성과 감성은 함께 갈 테지만, 우루야의 말에 따르면 그레이는 다르게 행동했다. 맨디는 그가 했던 말과 행동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성행위를 하고 싶어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맨디는 상처받지 않은 듯 보였다. 우루야의 말에 따르면, 맨디의 좌우명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였던 것 같다.

456 우리가 우루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 없고,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수습해 보려고 하는 미약하고도 미약한 시도일 뿐, 신빙성이 없고 이해될 수 없다.

457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난 적이 없다. 그의 주장에 진실은 조금도 없다.

458 그레이는 그를 더듬은 적이 없다. 그레이가 그를 더듬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의 관계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그레이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459 파워피스에서 그녀는 정말로 그를 두 번째로 더듬었는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왜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그레이는 우루야로부터 손을 뗄 수가 없었던 것일까? 그녀는 그를 만지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일까? 그녀는 그 날 저녁 그의 근처에도 거의 있지 않았고, 각각의 술집에서 그를 더듬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그린 그림은 매우 흥미롭지만 거짓된 그림이다. 그리고 그레이가 우루야를 더듬는 중간에 일어났다는, 쓰리썸에 대한 에피소드는 어떤가?

460 맨디와 가젼, 가젼과 우루야, 그리고 우루야와 맨디와 아마도 레이스. 이 역시 외설적인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레이가 말했던 뜨거운 섹스는 쓰리썸을 뜻했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뜨거운 섹스”라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461 맨디가 우루야와 대화하기 위해 가젼에게 접근했다고? 왜 그래야만 했던 걸까? 우루야와 가젼은 헤어진 것이 아니었던가? 맨디는 (굳이 가젼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줄 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1월 31일 이후에 가젼과 쓰리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462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콩달콩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침대에 올라가 이불 속에서 우루야를 덮쳤다는 것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우루야의 망상으로 농담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모든 것은 꾸며낸 거짓말이고, 전혀 신빙성이 없다. 나는 이 진술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463 나는 (우루야의) 진술들을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맥라킨 판사가 *R. v. Marquard*, [1993] 4, S.C.R. 223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49번째 단락이다.

“신빙성은 전문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능력 내에서 고려되는 문제이다. 보통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464 “(신빙성에 대한) 심사는 현재 주어진 상황들을 둘러싼 여러 개연성들을 고려하여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aryna v. Chorney*, [1952] 2 D.L.R. 354 참고. 관련된 근거는 물론 재판장이 제공해야 한다. *R. v. Sheppard*, 2002 S.C.C. 26, [2002] 1 S.C.R. 869와 *R. v. Braich*, 2002 S.C.R. 27, [2002] 1 S.C.R. 903 참고.

465 판단의 근거는, 증거와 법 그리고 증거와 결론 간의 논리적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R. v. R.E.M.*, 2008 S.C.C. 51 41단락, 그리고 *R. v. Lifchus*, [1997] 3, S.C.R. 32- 참고.

466 타당성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평가는, 때로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지식이나 학습된 경험에 의존하기도 한다.

467 무죄 추정의 원칙은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하는 기준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기 *R. v. Lifchus* (1997), 1997 CanLII 319 (SCC), 118 CCC (3d) 1, 대법원 코리 판사, 27번째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첫 번째로, 모든 형사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필수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배심원단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형사행정의 금색 실이라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형사행정의 은색 실로서, 이 두 가지 실은 형법이라는 옷감 안에 영원히 함께 얽혀 있게 된다.

Lifchus 사건의 재판장은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39번째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한다”는 표현은 역사의, 그리고 사법의

전통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 표현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왔다. 이것은 너무나도 깊이 뿌리내려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합리적 의심이란 상상되거나 하찮은 의심이 아니다. 합리적 의심은 동정 혹은 편견에 기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성과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은 증거의 존재 혹은 부재에 의해 논리적으로 추론된 것이어야 한다.

이아초부치 판사의 *R. v. Starr, 2000 S.C.C. 40 (CanLII), 147 C.C.C. (3d) 449, 242번째 단락도 보라.*

나의 견해로는, 배심원단에게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효과적으로 정의하려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개연적이 높다는 증명보다는 절대적 확실성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Lifchus*에서 명시된 것처럼, 재판장은 배심원단에게, 배심원단이 유죄를 선고하려면 절대적 확실성보다는 약하지만, 유죄의 개연성보다는 더 강한 확실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설명은 상당히 정확하며 매우 이해하기 쉽다.

468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하는 기준은 신빙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상기 *R. v. W.D., 1991 CanLII 94 (SCC), 3 CR (4th) 302*의 10번째 단락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신빙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을 제시한다.

469 *R. v. White, 1947 CANLII 1 (SCC), 89 CCC 148*, 151페이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신빙성의 문제는 사실의 문제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규칙을 따름으로써 결정될 수 없다.

에스테이 판사는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 증인의 전반적인 진실성, 지성, 관찰 능력, 기억력, 그리고 진술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진실하고 정직한지,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말을



잘 하지 않으며, 얼버무리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질문들 혹은 다른 질문들은, 신빙성의 문제를 판단할 때, 증인의 전반적인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는 것을 통해 대답될 수 있다.

470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전형적인” *W.D. (상기 R. v. W.(D.), 1991 CANLII 93 S.C.C., [1991] 1 S.C.R. 742)*¹⁹⁾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재판장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한 쪽의 설명을 다른 쪽의 설명보다 더 선호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참일 가능성, 피고인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그는 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진술이 고소인의 것과는 반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자신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남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71 이 사건의 일차적인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 사건은 “W.D.” (상기 *R. v. W.(D.)*) 상황, 즉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적 쟁점인 경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의 쟁점이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472 물론 입증 책임은 검사 측에게 있으며, 이 사실은 재판 내내 변하지 않는다. 입증 책임은 절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입증 책임이란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을 확립하는 것이다. 나는 굳이 상기 *W.(D.)*에서 코리 판사에 의해 설명된 검사를 또 한 번 언급하지는 않겠다. 이 판례법은 사건에 있어서의 문제가 증인들 간의 신빙성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그렇게 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훼손될 수 있고, *R. v. L.H., 2007 CANLII 13703 (ONSC), [2007] O.J. No. 1558* 참고, 합리적 의심의 개념은 무시될 것이다. 이는 누구의 진술이 더 일관성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조사를 끝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473 이 사건에서는, *W.(D.)* 사건 분석의 두 번째 단계가 문제의 중심점이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단순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19) [261]~[275] 단락 참고

포함한 다른 증거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믿는다”는 것은, 캐나다 옥스포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하다”라는 뜻이다.

474 내가 피고인의 진술을 믿거나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가? 피고인의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될 수 있는가?

475 W.(D.)의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혹은 배심원이 피고인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검사 측 증인들의 신뢰도를 위해 피고인의 신뢰도를 하찮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476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믿을 만한지, 믿을 수 없는지, 혹은 거부되어야 하는지, 검찰 측이 최종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혐의를 증명했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477 고소인이 진술한 대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면, 혐의는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그레이는 동의의 표현을 한 적이 없다.

478 나는 고소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문제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조사는 끝나지 않는다. 나는 피고인의 진술을 여러 번 듣고 검토했다. 그의 진술은 고소인의 진술과 완전히 달랐다. 알란 W. 브라이언트, 마리 헤네인과 자넷 A. 레이퍼의 Law Society of Upper Canada Special Lectures 2003, The Law of Evidence (Toronto: Irwin Law, 2004) 에 실린 비니 판사의 “Judicial Notice: How Much is Too Much?” 참고.

479 설령 “내가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아직 남아 있다면, 나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480 앞서 말했듯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측의 진술 중에 단순히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진술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남게 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R. v. C.L.Y., 2008 S.C.C. 2*. 참고.



481 우루야는 그가 그레이에게 강간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따라서 합의의 문제는 쟁점이 아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도, 아무리 우루야가 그렇다고 주장해도, 그레이가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사건과 무관하다.

482 더 나아가, 합의의 문제는 쟁점이 아니므로(합의는 결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변호가 재판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의도하지 않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는 변론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상기 *R. v. Ewanchuk*, [1999] 1 S.C.R. 330 41-49번째 단락 참고.

483 그들이 이불 속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대한 그레이의 기억이 없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그레이가 2015년 1월 31일 우루야와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과 그 외의 행동들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이 적극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할 수 있겠는가? 그곳에는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루야가 제출한 증거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가 제출한 증거는 모순적이지 않다. 법에 의하면 대답할 수 없는 진술은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합의의 문제는 쟁점이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레이는 그날 밤과 그 다음 날 아침 내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역할이었다. 그레이의 기억에는 공백이 있지만, 나는 그녀의 진술이 믿을 만하며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그레이는 그들이 그의 집에 가서 그녀가 그의 침대에 앉았을 때 우루야가 그녀에게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레이와의 소통에 대한 우루야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절대 그녀를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484 나는 우루야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5년 1월 30일 저녁과 31일 아침의 그레이의 행동에 대한 그의 진술은, 나에게 어떤 합리적 의심도 들게 하지 않는다. 모든 진술을 검토했을 때, 나는 그들이 그의 침실로 들어갔고, 그레이가 그의 침대에 앉았으며 그가 그녀를 강간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는다.

485 나는 그레이의 진술의 비일관성이 주목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였다. 나는 그레이의 진술에 사소한 비일관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녀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R. v. Francois*, [1994] 2 S.C.R. 827 으로부터 836, 그리고 *R. v. W. H.*, 2013 S.C.C. 22 32번째 문단, [2013] 2 S.C.R. 180 참고. 진술 내부의 모순과 증인들 간의 모순이 다소 존재한다고 해

도, 그것이 증인의 신빙성과 그의 진술의 정확성 혹은 신뢰도를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486 우루야는 2015년 1월 30일 저녁과 2015년 1월 31일까지 성행위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만약 쓰리섬을 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 더욱 좋았을 것이다. 맨디 그레이는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술에 취해 있었으며, 혼자였고, 취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맨디 그레이를 강간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악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는 비난을 받았다. 그녀의 서랍 안에 병원에서 받아온 키트가 들어있는 것을 제외하면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재판장은 맨디 그레이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한 상태를 공격하려는 듯이, 우루야만이 믿을 수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들어 왔다. 정말 대단하고 비열한 행동이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지어내려고 시도하다니 말이다. 우리는 강간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시행 착오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문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487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이야기를 지어낼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 불완전한 진술, 기억의 상실, 기타 등등. 그리고, 전형적이게도, 그 이야기에는 대화가 없다. 그레이가 그 당시에 완전한 문장을 구사했다고? 무슨 문장을 구사했다는 말인가? 그때 그녀는 아무런 힘도, 발언권도, 저항 능력도 없었다.

488 우루야가 그레이를 문란한 파티광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그녀를 깎아 내리기 위해, 혹은 최소한 그녀가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굉장히 뒤틀린 논리이다.

489 전문적인 또는 대중적인 저널에 실린, 강간을 다루는 상당한 양의 연구와 출판물들에도 불구하고, 법적 추론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간]신화가 나타나고 있다. 세라 벤-데이비드와 오프라 슈나이더의 Rape Perceptions, Gender Role Attitudes, and Victim-Perpetrator Acquaintance, 53 Sex Roles 385 (2005) 참고.

490 강간범의 전형이라 할 만한 인구통계학적 인간상(demographic profile)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간범을 전형화 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였고, 그 관계를 강간에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뢰를 저버렸다면, 피고인의 야만적 행동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파악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

491 다른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들도 강간 피해자만큼 비난, 의심, 불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매우 흔한 일이며, 이는 정의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를 피확성애자로 만드는 것(예를 들면, 그녀도 즐겼다고 하거나, 그녀도 원했다고 하는 것), 피해자가 사건을 촉발시켰다고 보는 것(예를 들면, 피해자가 요구했다거나, 그녀가 자초한 일이라고 하는 것), 피해자가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하는 것(예를 들면,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거나, 그녀가 과장을 했다고 하는 것). 세라 벤-데 이비드와 오프라 슈나이더의 Rape Perceptions, Gender Role Attitudes, and Victim-Perpetrator Acquaintance, 53 Sex Roles 385, 386 (2005) 참고.

492 동의 없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싫다”는 말은 “싫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밤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성착취를 겪은 적이 있는지, 가해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모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강간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취약한 피해자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의 몫이어야 한다.

493 강간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성을 무기로 사용하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이다. 강간은 주로 성적 자극을 받아서 생긴 욕정에 의한 행위라는 잘못된 믿음을 활용하고 강간을 성행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너무나도 흔하다. 강간과 성행위를 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494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것은 없다. 바바라 E. 존슨, 더글라스 L. 쿠쉬와 패트리샤 R. 스캔더의 Rape Myth Acceptance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36 Sex Roles 693, 696 (1997) 참고. 성적 흥분은 강압적인 성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피해자가 입맞춤, 포옹, 혹은 다른 성적 접촉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강간범들은 성행위를 하고 싶어서 강간을 하

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강간범들은 서로 합의된 성행위를 하는 파트너가 있다.

495 우리는 성행위와 성폭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성기 외 부분의 외상을 입지 않는다. 칼리 레니슨의 Rape and Sexual Assault: Reporting to Police and Medical Attention, 1992-2000, Bureau of Just. Stat., U.S. Dept. of Just. (2002) 참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외상을 입는다고 가정하고 강간 그 자체뿐 아니라 추가적인 외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함)

496 강간은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사건이고 피해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성폭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아주 짧은 순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어떤 피해자들은 성폭력의 극심한 트라우마를 분열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통해 나타내는데, 이는 “자신의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이라고 묘사되기도 하고, 무력해지고 완전히 수동적이 된다는 점에서 “몸이 얼어붙는 공포”라고 묘사되기도 한다. 분열이나 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낀 피해자들 또는 성폭력 이전에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저항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킴벌리 론스웨이, 조앤 아참발트와 데이비드 리삭의 False Reports: Moving Beyond the Issue to Successfully Investigate and Prosecute Non-Stranger Sexual Assault, 3, The Voice, Nat’l District Attorneys Ass’n Newsletter 8 (2009) 참고.

http://www.ndaa.org/publications/newsletters/the_voice_vol_3_no_1_2009.pdf 에서 열람 가능.

497 강간 피해자에게, 폭력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가해자가 흥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찾아온다.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피해자가 동의했음이 틀림없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두려워하여 성폭력에 대한 저항을 중지하거나 아예 저항하지 않기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피해자가 동의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강간 피해자들은 각각 살아남기 위해 그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무엇이든지 한다.

498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에 대응한다. 만약 사건을 신고한다면, 신고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



지 않기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성폭력을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가해자를 두려워하거나, 경찰이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칼리 레니슨의 Rape and Sexual Assault: Reporting to Police and Medical Attention, 1992-2000, Bureau of Just. Stat., U.S. Dept. of Just. (2002) 참고.

499 마그나 카르타 이후, 판사들은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다. 법에 대한 지식이란 실제적 혹은 절차적 법률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 법의 영향에도 적용된다. 한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법이란 단지 쓰여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하다. 로버트 A. 사맥의 “A Case for Social Law Reform” (1977), 55 Can. Bar Rev. 409부터 411 참고. 판결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사법적 근면의 중요한 요소이다.

500 폭력의 순환은 임상심리학자이자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의 초기 연구자였던 레노어 E. 워커 박사가 제기한 워커의 “폭력의 순환이론”에 제시된 대로이다. 워커 박사는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9)이라는 책에서 처음 이 순환 현상을 설명한다. 1984년에 출판된 그녀의 책 The Battered Woman Syndrome, 2nded.(NewYork:SpringerPublishingCo.,2000)에서 워커 박사는 400명의 폭력 피해 여성들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워커 박사의 연구는 그녀가 이전의 책에서 제시했던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긴장 감소 이론은 반복되는 폭력의 순환이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1) 긴장 성립(tension building)의 단계, (2) 격심한 구타(the acute battering incident)의 단계, (3) 사랑에 기반한 참회(loving contrition)의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긴장은 서서히 고조되며 이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각각의 사건들로 인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욕설, 다른 악의적인 행동들 또는 신체적 학대이다. 가해자는 불만족감과 적의를 드러내지만 이는 극단적으로 혹은 폭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성은 가해자를 달래려고 시도하고,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를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나, 그를 진정시키거나 혹은 적어도 더 자극하지는 않는 행동을 하려고 시도한다. 그녀는 그의 적대적 행동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며 일반적으로 화를 누그러

뜨리는 기술들을 이용한다. 종종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는 데 잠시 동안 성공하며, 이는 자신이 그 남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녀의 비현실적인 믿음을 강화시킨다...”

501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며 그녀는 결국 그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그녀는, 그녀가 무심코 그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을 두려워하여 가해자로부터 물러나게 된다. 그는 그녀의 이러한 행동에 더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위커, 1979, 59페이지). 이 단계에서 아무런 개입이 없다면 불가피하게도 두 번째 단계인 격심한 구타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가끔, 피해자는 이 불가피한 분노의 폭발을 일부러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을 조절함으로써 더 나은 예방책을 마련하고 외상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502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축적되었던 긴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게 된다” (위커, 1979, 59페이지). 가해자는 이때 전형적으로, 언어적 그리고 신체적 공격성을 발산한다. 이는 여성을 동요하게 만들고 여성에게 외상을 입힌다. 실제로 외상을 입게 되는 것은 대부분 이 두 번째 단계에서이다. 이 단계는 경찰이 개입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경찰이 신고를 받는다면 말이다. 격심한 구타의 단계는 가해자가 멈추면 종결되고, 대개 생리적 긴장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 단계만으로도 폭력의 순환은 강화된다. 폭력의 사용은 대부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

503 피해자는 학대를 즐기지 않으며, 학대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 아니고, 정신병을 앓고 있지도 않다. 실제로 피해자들에게는 (적어도 학대를 당하기 이전까지는) 정신병력이 없다. 여성을 학대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여성이라는 사실 그 자체이다. 어떤 여성이 학대의 피해자가 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연인의 학대 경력을 살펴보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504 물론,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예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두 증인이 각자 진술하는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신뢰의 문제는 사실의 문제이며 일련의 규칙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는 것은 예로부터 주장되어 왔다. *White v. The King, 1947 CanLII 1 (SCC), [1947] S.C.R. 268* 참고. 신빙성에 관한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고 진술의 태도나 방식 등 무



형적인 요소에 기대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상급심에서는 하급심 법원의 사실 발견, 특히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따르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다.

505 당사자들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이성적인 관찰자들은 재판장이 일반화에 의해 판결을 내린다면 그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²⁰⁾ 재판장은 법령의 목적 검토에 근거하여,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현실 역시 인식해야 한다. 이 원칙의 내용과 목적은 *Varcoe v. Lee et al. (1919), 180 Cal. 338, 181 223, 226*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세 가지 필요조건들은… - 해당 문제가 상식적이며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할 것, 적절히 확립되었으며 권위에 의해 해결되었을 것, 실질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그리고 이러한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지식이 특정 사법권 내에 존재할 것- 이러한 요건들은 규칙의 근거와 목적에 따르는 것으로, 사안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에 증명의 형식적 필요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506 에드먼드 M. 모르간은 “Judicial Notice” (1944), 57 Harv. L. Rev. 269의 27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재판장은... 일반적 지식, 특수한 지식,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과 사전 정보들을 관련시킬 수 있는 능력, 일반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상정된다. 일반적 정보는 공동체 내의 모든, 합리적이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정보의 합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논쟁의 여지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그가 무지하다고 상정될 수는 없다.

507 상기 *Children’s Aid Society of Toronto v. C. (S.A.), 2005 ONCJ 274, 항소심 2005 CANLII 43286(ONSC)*에서 기존 판결이 지지됨, 500-506번째 단락 참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재판 경험이 주지의 사실과 동일시 될 수도 있다.

20) 사건의 당사자 및 사건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합리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재판장이 단순한 일반화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2부. 법률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를 하는지 나는 아내²¹⁾



508 마야 안젤루²²⁾에게 있어 강간은 그녀가 속한 인종이 겪는 고통을 반영한다. 마야 안젤루는 스스로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애쓰며 새장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새로 비유했다. 버지니아 울프는 그녀 자신이 “거울의 수치”라고 부르던 것으로 인해 고통 받았다. 그녀는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말을 통해, 무엇을 위해 우리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509 위민스 칼리지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으로 갔다가, 48시간을 기다린 것? 경찰에 가는 데 72시간이 걸린 것? 오래 걸렸다는 것은 정말 오래 걸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고통을 느끼는 데에는 시간제한이 있는가? 그들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든 주고받지 않았든, 우루야는 그레이를 강간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 “빠진” 문자메시지를 찾을 필요는 없다. 2015년 1월 31일 이른 아침, 그녀는 웅크린 자세로 울고 있었다. 나는 이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확실히 강간이었다.

510 강간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훼손한다. 피해자들은 높은 확률로 분열을 경험한다. 흔히 피해자는 자포자기 하여 가해자의 심기

21) 마야 안젤루의 자서전의 제목

22) 미국의 흑인인권운동가이자 성폭력 피해 생존자



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라거나, 강간이 끝나기를, 혹은 그저 살아남을 수 있기만을 필사적으로 바라게 된다. 강간 피해자들은 종종 그들 자신의 법적 변호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응징의 의도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상관없다. 하지만 고통을 치유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고통을 발산하는 창의적인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511 일본어로 트라우마를 뜻하는 단어는 “외상”인데, 이는 “바깥”이라는 뜻의 한자와 “상처”라는 뜻의 한자가 합쳐진 단어이다. 트라우마는 가시적인 상처와 고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고통이며,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고통이기도 하다.

512 우리는 현실성의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학대의 피해자들은, 많은 경우 학대의 경험을 폭로하지 않으며, 폭로한다고 하더라도 꽤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폭로하는 경우가 많다. 상기 *R. v. D.D.*, [2000] 2 S.C.R. 275 참고. 우리는 강간의 피해자들을 전형화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신고를 늦게 하였으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매우 타당성이 결여된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를 전형화하지 말아야 한다.

513 재판장은 2015년 2월 2일 저녁 경찰에서의 그레이의 진술을 검토했다.

514 이때까지 “착한” 강간 피해자, “신뢰가 가는” 강간 피해자는 죽은 강간 피해자였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당신의 입 안에 그의 성기를 처넣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경험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사람은 우루야였다. 2015년 1월 31일 맨디 그레이는 취해 있었으며, 그녀가 진술한 대로 분열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다. 나는 이를 인정한다. 강간의 자세한 정황을 누가 기억할 수 있고, 누가 기억해야 하는가?

515 강간당했을 때 우는 것은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그레이의 진술은 매우 믿을 만하고 신빙성이 있었다. 그레이는 우루야의 침대에 앉았을 때부터 다음날 아침에 나갔을 때까지 아무 행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는 그녀의 진술을 받아들인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임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응급피임약을 복용했다. 그것은 강간이었다. 이는 재판장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이 아니다. 그레이는 피고인에 의해 강간당했다.

516 맨디 그레이는 2015년 1월 31일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옳다. 그녀에게 사건의 자세한 정황을 요구하

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녀가 생생하게 묘사한 것처럼, 피고인은 그녀의 머리를 잡았다. 그는 그녀의 입 안에 성기를 처넣었고 그 후에는 삽입을 했다. 이는 확실히 일어났던 일들이다. 마치 악몽과도 같았다.

517 우리는 강간당했을 때 주로 누구를 자주 비난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한다. 그레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기를 원했다. 그녀는 우루야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누가 그것을 믿고 싶겠는가? 어떻게 피고인이 그레이를 강간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몸이 좋지 않았다. 어떻게 그에게 그녀를 강간할 만한 힘이 있었겠는가? 그는 합의된 성행위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랬다. 하지만 우루야는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레이에게 힘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녀를 폭력적으로 강간했다.

518 『경찰 : 그러니까, 그가 당신에게 소리를 질렀고, 당신이 그의, 그의 침대에 앉았을 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레이 : 음, 저는 (한숨),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성행위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제 머리를 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저에게 오를 섹스를 강요했을 때 말이에요. 저는 그때, 에라 모르겠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화가 나 있고 나는 정말 취해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경찰 : 그럼 당시에 당신은— 당신은 옷을 입고 있었나요?

그레이 : 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냥 브래지어와 민소매 셔츠만 입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아마 그것만 입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저는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음, 제 바지나 속옷을 벗은 기억은 없어요.』 (진술 14-15페이지)

519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녀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모호한 사과를 했다. 2015년 1월 31일 오후 1시 27분에 맨디는 “어젯밤 완전 개판이었지”라는 문자메시지(증거물 1C 참고)를 보냈다. 우루야는 오후 1시 53분에 “그래”라는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2015년 2월 5일 오전 11시 52분에 마지막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때 기분이 나빴었고 네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나의 실수를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였다. (증거물 1C 참고)

520 2015년 1월 31일 그레이는 강간당했다. 이는 단어 선택이나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521 우루야는 “뜨거운 섹스” 때문에 술집으로 오기는 했지만, 나중에 몸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레이를 밀고 당기면서 주도권을 가졌다. 피고인이 붙잡고 싶어 했던 쓰리썸의 기회를 맨디 그레이가 완전히 망쳐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은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래서 그날 밤 그레이는 걸레라고 비난당했다. 그레이는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핑계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자고 레이 시에게 권유하지 않았다. 그레이는 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가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녀는 취약한 상태였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덮쳤다. 콘돔은 잊어버려. 지금은 나에게 권력이 있고, 명령권은 나에게 있어. 그는 “내가 널 따먹는 건 이게 마지막일 거야. 이게 마지막일 거고… 너도 그걸 좋아할 거야”라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권력, 권력, 권력. 그는 보스였고 그 사실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

522 강간, 취침, 그리고 기상. 우루야에게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레이는 그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과, 또다시 성행위를 원하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덜 피곤하고 술에서 깬 상태였기 때문에, 그레이는 우루야의 집에서 나왔다. 또다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레이의 진술을 인용하겠다. (그레이의 진술 8페이지 참고)

『그레이 : 저는 아니, 안 할 거야, 라고 했고, 음,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그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음, 저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는 그냥 그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으로 온 경찰관과 이야기를 했고 제 문자메시지 기록들을 다시 한 번 봤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제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침 9시 45분에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전차에 타자마자 그 문자를 보냈으니까, 아마 아침 9시 40분쯤에 그의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

던 걸 거예요, 네.』

『그레이 : 음, 아침에 저는 그가 제, 제, 제 옆에서 자위를 하고 있는 걸 느껴서 잠에서 깬고 저는, 저는, 젼장. 저는 그가 그런 짓을 할지 몰랐어요. 그는 그때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즐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왜 저에게 그런 짓을 한 건지 생각하면서 울면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일어난 걸 알아챘고, 저를 봤고, 그러더니 그가 제 손을 잡고, 그의 성기 쪽으로 저를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제가 “싫어, 안 할 거야.”라고 했어요. 저는 마치 예전에 굉장히 취했던 때처럼, 저의 몸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음, 제가, 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마치, 움직일 힘도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니야, 나 이제 술 깬어, 일어날 수 있어.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 해도 뚝고, 집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 나 갈 거야, 나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떠나면서 -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그냥 일어나서 나갔고, 그리고 저는,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2015년 2월 2일 맨디 그레이의 진술, 17-18페이지)

523 그레이의 행동에는 맥락이 존재한다. 강간 신화는 모두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친절함이 폭력, 사악함, 일탈과는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친절한 남자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믿음을 영속시켜서는 안 된다. 친절한 사람은 강간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회가 가져야 할 관념이 아니다. 피고인은 그레이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루야는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했다. 그레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었다.

524 검찰 측은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는 데에 성공했다.



525 따라서 나는 우루야에게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다.

선고 : 2016년 7월 21일

서명 : “판사 M.A. 주커”

역자 후기

부족한 실력으로나마 초벌 번역을 맡았던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강예은입니다. 판결문의 대부분이 구어를 그대로 받아 적은 대화문과, 복잡한 문장으로 된 법률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독자 여러분들께서 읽기에 혹여나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역에 대한 지적이나, 더 나은 번역에 대한 제안은 언제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우루야 사건은 사실 너무나도 전형적인 케이스라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란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읽으면 입을수록 쏟아져 나오는 가해자와 가해자 측 변호사의 좋은 먹잇감이 될 만한 소재들에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던 피해자, 평소 친근했던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 술을 마시고 가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피해자, 피해자 증언과 기억의 불완전성, 물적 증거의 부족, 피해자의 사회운동 경력 등등- 저뿐만이 아니라 판결문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서 당황스러움과 피해자에 대한 걱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졸임이 무색하게도, 주커 판사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모든 요건들을 판결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단 하나-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만을 고려합니다. 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라는 명목 아래 역사적으로 항상 지워져 왔던 피해자의 목소리 역시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강간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폭력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의 몫이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이 말은 그 당연성만큼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우루야 사건에 대한 이 판결도 어떻게 보면 그저 ‘당연함’을 재확인시켜준 것뿐이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성폭력 사건의 판결에 있어 진보적이라고 평가 받는 캐나다에서조차도 이 판결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커 판사의 젠더법 연구 경력이 아니었다면, 사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번과 같은 판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들 하네요. 그러나 단 하나의 판례라도 이것은 선례로서 기능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큰 성취이자 성공인 것입니다. 우루야 사건을 계기로, 더더욱 좋은 판례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 피해자의 말대로 이러한 판결이 ‘강간 복권 (rape lottery)’의 당첨 사례가 아닌, 그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강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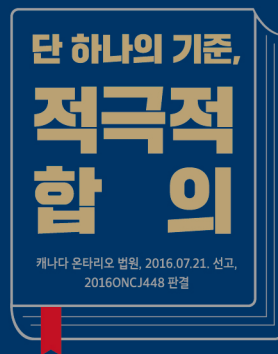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1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2016.07.21. 선고,
2016ONCJ448 판결



발행일	2017년 8월 31일
발행인	이미경
발행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번역	강예은, 박아름
감수	신윤진
편집	박아름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우) 04072
전화	02-338-2890~1
홈페이지	www.sisters.or.kr
블로그	stoprape.or.kr
S N S	facebook.com/ksvrc1991 @stoprape
디자인·제작	(주)인디엔피 www.indnp.com
후원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우)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사무전화 02-338-2890~2 상담전화 02-338-5801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www.sisters.or.kr